
고등학생이 기록한
제주해녀 이야기

고등학생이 기록한
제주 해녀 이야기

인쇄 2016년 12월

발행 2016년 12월

발행처 제주특별자치도 해녀박물관

63362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해녀박물관길 26

Tel. 064-782-9898 / Fax. 064-710-7779

www.haenyeo.go.kr

총괄 이기우

기획 김동호, 강권용

편집 이지은, 권미선

사진 제주영상동인, 서재철

디자인/제작 출판기획 풍경 Tel. 064-711-0120

발간등록번호 : 79-6500000-000348-01

* 이 책에 게재된 모든 사진과 글은 동의없이 무단으로 전재하거나 복제할 수 없습니다.

비매품

고등학생이 기록한
제주 해녀 이야기

Jeju Haenyeo Story Recorded by High-school Students



Jeju 제주특별자치도

발간사

제주해녀들의 생생한 역사를 담은 구술사 채록집인『고등학생이 기록한 제주해녀 이야기』 발간을 축하합니다. 제주해녀문화가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시점에서 발간되어 의미가 더 큰 것 같습니다. 제주해녀 한 명을 잊으면 박물관 하나를 잊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해녀 한 분 한 분이 거쳐 온 삶의 여정과 생생한 경험은 바로 제주의 역사이고 문화이기 때문입니다.

어머니의 어머니에게서 이어져 온 방식을 고수하며 살아온 해녀들의 삶과 문화는 우리가 보존하고 계승해야 하는 중요한 문화유산이 되었습니다. 이런 역사를 기록하는 일에 도내 9개 고등학교 학생들이 참여했다는 것은 매우 의미가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지난 5개월 동안 해녀들의 말로 풀어내는 생애사를 기록했던 경험은 해녀문화를 깊이 인식하고 공감했던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또한 미래 세대를 위한 체계적인 보전·전승작업이었다는 의미에서 제주의 미래에도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발간된 책이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이어 주는 소중한 연결고리가 되길 바랍니다. 채록을 위해 애쓰신 27명의 고등학생과 지도해 주신 선생님, 편집과 발간에 애쓰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어려운 시간을 내어 이야기를 들려주신 해녀 여러분들께 특별한 고마움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 12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발간사 04

목차 06

서문 08

영원히 들리게 될 해녀들의 숨비소리 11
남주고등학교 2학년 양윤찬 · 변규민

결국 해녀도 엄마다 21
남주고등학교 2학년 김인수 · 양동혁

숨悲소리 29
대기고등학교 1학년 서준호

유정숙 해녀의 삶 38
대정고등학교 1학년 강승일

물질은 나의 삶 45
브랭섬홀 아시아 11학년 박지현

제주 평대 어명의 삶 56
세화고등학교 1학년 고진현

제주도의 해녀는 제주도의 역사이다 61
세화고등학교 2학년 정현비

물의 아이 67
제주사범대학부속고등학교 2학년 고준혁

해녀 삼춘 뭐 햄수파? 85
제주사범대학부속고등학교 2학년 김은희

제주바다의 별, 그리고 눈물 97
제주사범대학부속고등학교 1학년 황사빈

고등학생이 기록한
제주 해녀 이야기

우리 할망, 바다 이야기 107
제주사범대학부속고등학교 2학년 흥지희

6남매를 홀로 키운 어머니의 힘, 해녀의 힘! 115
제주여자고등학교 1학년 강예진

한가정의 든든한 대들보 124
제주여자고등학교 1학년 강해인

바다의 딸, 해녀 130
제주여자고등학교 1학년 김서연

신흥 바다 소라왕 138
제주여자고등학교 1학년 김수진

평생을 제주해녀로 146
제주여자고등학교 1학년 문유경

오랜 세월 함께해 온 나의 친정, 바다 153
제주여자고등학교 1학년 성미현

웃는 모습이 아름다운 해녀 할머니의 생애 158
제주여자고등학교 1학년 양해림

삼천포 물질로 청춘을 보내고 163
제주중앙여자고등학교 1학년 고민주 · 박미선 · 강성민 · 장지은

두 해녀 취재일기 182
제주중앙여자고등학교 2학년 김지영

바다를 사랑하는 新해녀, 김영순 194
표선고등학교 1학년 고은빈

숨비소리, 그 고귀한 소리의 메아리 201
표선고등학교 1학년 박재용

서문

『고등학생이 기록한 제주해녀 이야기』는 제주해녀문화 보급 사업의 일환으로, 미래 세대들에게 사라지는 제주해녀문화를 알리기 위해 추진되었다. 2016년 6월에 제주해녀 생애사 조사에 참여할 학생들을 지도교사와 함께 신청받았고, 교사들과 학생들이 한자리에 모여 생애사, 구술사 등 해녀 조사 방법에 대한 오리엔테이션 시간을 가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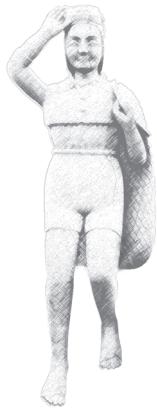
‘처음에는 과연 할 수 있을까?’ 하던 학생들이 주변에 할머니나 이웃을 통해 해녀들을 직접 만나 생생한 이야기를 듣는 것은 흔치 않을 경험이었을 것이다. 물론 할머니나 가족, 친지 중 해녀가 있어 해녀의 삶을 옆에서 지켜봐 온 학생들도 있겠지만, 대부분 학생들은 책이나 사진으로만 보던 막연한 해녀의 이미지에서 그들이 직접 전하는 이야기를 통해 언론에서 비치는 해녀의 모습과는 또 다른 현실적인 해녀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을 것이다.

책자에는 도내 9개교 27명의 학생들이 지난 8~10월 동안 직접

해녀들을 만나고 그들의 생애사를 조사·채록한 결과물이 실렸다. 첫 물질 이야기, 자식과 가족을 위한 희생정신, 타지에서의 출가물질 경험담, 불턱·해녀굿 등 해녀들의 공동체문화, 요즘 젊은 해녀들이 물질하는 방법 등 학생들이 궁금했던 이야기들이 고스란히 기록되었다.

조사에 참가한 학생들은 할머니 혹은 어머니대의 삶을 채록하면서 멀게만 느껴지던 해녀들이 가까이에 있었음을 알게 된 것이 가장 큰 수확이며, 해녀 분들이 전해주는 제주의 근현대사를 듣다보니 마치 역사의 한 부분을 직접 보는 듯한 기분이 들었고, 해녀문화가 세계적으로 매우 소중한 유산임을 몸소 느끼게 되었다고 전하고 있다.

이번 구술활동을 통해 고등학생들이 아마추어 민속학자, 인류학자의 시선으로 해녀의 삶을 조명해 제주해녀문화를 새롭게 인식하는 계기가 되고, 세대 간의 소통이 이루어졌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를 토대로 미래 세대들이 앞으로 제주해녀문화를 알리고 보존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



영원히 들리게 될 해녀들의 숨비소리

남주고등학교 2학년 양윤찬 변규민



- 구술자 : 이복선
- 나이 : 1945년생(72세)
- 고향 : 서귀포시 남원읍 태종리
- 현거주지 : 서귀포시 남원읍 위미리
- 연담자 : 양윤찬 · 변규민
- 연담일시 및 장소 :
7월 23일 ~ 7월 24일, 자택

바당에서의 첫 자맥질

해녀는 제주의 상징이자, 제주의 정신이고, 제주의 표상이다. 이런 제주의 자랑스러운 해녀이신 이복선 할머니는 1945년에 서귀포시 남원읍 태흥리에서 2녀 중 장녀로 태어났다. 이복선 할머니의 친어머니께서는 해녀 상군이셨다. 해녀는 대상군해녀, 상군해녀, 중군해녀, 하군해녀로 나뉘는데, 이것은 해녀들의 해녀 경력과 기량에 따라 나뉜다.

해녀 경력이 많아 해녀 상군이신 친어머니 밑에서 18세의 나이에 처음으로 물질을 배우기 시작했다. “바당 미티 이신 거 아무 거나 캉 와보라!”라는 말과 함께 속옷과 물적삼만 입고 작은 눈과 빗창을 들고 바다로 들어갔다. 빗창이란 전복을 떼어낼 때 쓰는 도구이다. “어멍! 이추룩 하면 될꺼꽈? 어멍 이거 며꽝?” 해녀일이 신기하기도 하고 재미있어서 수없이 많은 질문들을 어머니께 하며 해녀일을 배우기 시작했다. 서투른 솜씨로 수확해 온 것을 어머니께 보여드렸다. 많이 상처도 나고, 다 자라지 않은 작은 해산물을 잡아 올려 어머니께 꾸지람을 듣기도 하였다. 해녀는 아직 다 자라지 않은 해산물을 함부로 잡으면 안 됐다. 우여곡절 끝에 난생 처음 바다에서의 첫 물질을 한 그녀는 바다에서 무엇이든 잡아오는 해녀일이 너무도 신기해 어머니를 따라 해녀일을 배우기 시작했지만 나중에는 가족의 생계유지를 위해 어머니를 따라 물질을 계속하였다.



할머니의 해녀증

출가물질

꽃다운 청춘, 18세부터 친정어머니를 따라 시작한 물질이다. 역사적으로 일제강점기, 일본 어민들의 제주여장 침탈로 해산물 채취량이 현저히 줄어들어 생활이 어렵게 되자 타 지역으로 출가물질을 가는 해녀 수가 늘어나게 되었다. 광복 후에도 18~19세 즈음 젊은 해녀들은 동해안, 남해안, 서해안뿐만 아니라 일본 등지의 육지로 출가물질을 나갔다. 그녀도 또래 해녀들과 마찬가지로 출가물질을 떠났다.



그녀는 각종 도구와 해녀옷, 테왁망사리 등으로 간단히 짐을 싸 출가물질을 하러 가는 배에 올라탔다. 테왁망사리란 해녀들이 물질을 할 때 물에 띄워놓고 몸을 의지해서 숨을 고르고 전복, 소라, 미역, 해삼 등 채취한 해산물을 담는 도구이다.

충청도 태안 앞바다와 거제도, 경주시 감포 해안에서 출가물질을 하면서 그녀는 소라와 전복을 많이 잡았고, 제주도에서는 볼 수 없었던 해산물도 많이 잡으면서 돈을 많이 벌었다. 육지 바다에는 해녀가 없어서 그런지 제주도보다 해산물들이 더 많고 제주도에

있을 때보다 수익이 많아서 제주도에 있을 때보다는 더 힘차게 물질을 할 수 있었던 것 같다.

바다일엔 나보다 더 해박한 남편

18세부터 5년 간 출가물질을 한 후 그녀는 고향 제주로 돌아왔다. 그 당시 모든 학생들이 그랬듯 그녀 또한 충분치 않은 가정형편으로 태흥중학교를 졸업한 후 친정어머니를 따라 해녀일을 시작하여 바다로, 육지로 물질을 떠났다. 그런 그녀는 외모를 꾸밀, 연애를 할 여유도 없이 오로지 물질을 위해 18세부터 23세까지 그녀의 청춘을 모두 바쳤다. 출가물질을 한 후 돌아온 그녀는 위미에 살고 있는 한 청년을 만난다. 그가 바로 지금의 남편이다. 하지만 그 사람을 만나 깊은 사랑을 나누기도 전에 그는 군대로 떠나갔다. 당시 군 복무기간은 36개월로, 3년 간의 기다림이 지속되었다.

그가 떠난 이듬해 1969년 1월, 휴가를 받아 돌아온 그와 백년가약을 맺었다. 하지만 신혼생활을 누리기도 전에 그는 다시 군대로 떠나갔다. 외롭게 홀로 위미에 남겨진 그녀는 해녀였던 시어머니, 동서 형님과 함께 위미어촌계에 가입하여 물질을 떠났다. 1971년, 휴가로 다시 돌아온 남편 사이에서 딸을 얻게 되었다. 하지만 남편 없이 홀로 외롭게 딸을 낳았다. 산후조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또 다시 돈을 벌기 위해 바다로 갔다. 남편이 군대에 가 있기에, 홀로 딸아이를 키워야 했기 때문에 바다로 가 돈을 벌어야 했다. 제대를 한 후 그녀의 남편은 돈을 벌어오기 위해 1년 간 일본에 가 생활을 하였다. 생계를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기 때문에 존중할 수 밖에 없었다. 또 다시 그녀는 혼자가 되었다.

시어머니와 남편의 형수는 위미에서 내로라하는 상군이셨다. 어머니를 따라 바다에 가면서 자연스레 그는 바다일을 접할 수 있었다. 그런 그이기에 해녀인 부인에게는 든든한 조력자이자 파트너가 될 수 있었다. 그는 바닷속에서 직접 물질을 하지 않을 뿐이지 여느 해녀들 못지않게 바다일에 대해선 빠삭하게 알고 있었다. 그는 매일 물질을 가는 그녀를 오토바이에 태워 데려다 주었다.

위미리어촌계 해녀들은 톳철인 3월 초에 지귀도에서 천막을 치고 조를 짜 야영을 하면서 톳 수확을 한다. 물이 내려갈 때(썰물 때) 톳을 수확하고 물이 올라올 때(밀물 때)는 톳을 말리는 작업을 반복한다. 날씨가 좋으면 한 달만 작업을 하고 돌아온다. 날씨가 좋지 않으면 5월 말까지도 작업을 해야 했다. 그녀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작업에 참여를 못하면 그녀의 남편이 직접 지귀도에 가서 작업에 참여를 한다. 그녀는 매일 아침에 배를 타고 나가 미역을 채취해 저녁 배를 타고 돌아온다. 그녀의 남편은 그녀가 수확해 온 미역을 말려주고 손질도 해 주었다.

해녀들에게 가장 힘든 작업 중에 하나는 ‘성게 작업’이다. 해녀들은 성게를 수확해 온 후 뾰족한 가시가 박혀있는 껌질을 벗겨 그 속의 알맹이를 채취해야 한다. 이 작업은 장시간이고, 더욱이 가만히 앉아 오랜 시간 동안 반복해야 했기 때문에 지루하기도 하고 온 몸이 뻐근하기도 한 작업이다. 그녀의 남편과 딸딸은 하교를 한 후 그녀의 성게 작업을 도와주었다.

위미리어촌계 해녀들은 더 많은 수확을 위해 금채기간 동안 어린 전복들을 양식장을 운영하면서 키운다. 이런 양식장을 해녀들은 조를 짜 보초를 서야 했다. 그녀 대신 남편이 대신해서 보초를 서곤 하였다.

삿기(자식) 위해 일햄수다

결혼 후 위미에서 생활하면서 아들과 막내딸을 더 낳았다. 늘어난 식구를 책임지기 위해 할 줄 아는 것이라고는 물질밖에 없던 그녀는 해녀일을 계속 해야만 했다. 위미 해녀들은 위미항에서 조금 떨어진 지귀도에서 조업을 한다. 물질을 하기 전에는 반드시 뇌신(뇌선)을 먹었다. 뇌신은 서너 시간 동안 수심 10여 미터를 오르내리면서 울렁거리는 파도에 대비하기 위해 먹는 두통약이다.

8시에 지귀도에 도착해서 9시에 작업을 시작해 1시 정도까지 조업을 한다. 물에 따라 1시에서 3시 정도까지 물질을 한다. 그녀의 남편은 그녀보다 바다일에 대해서는 더 많이 알고 있어서 그녀에게 잔소리를 한다. 물질을 하고 난 후 녹초가 된 몸으로 집에 돌아오고 나서 남편에게 잔소리를 들을 때면 그렇게나 힘들었다.

집에 돌아와 잠깐 눈 붙일 틈도 없이 저녁 준비를 해야 했다. 저녁으로 물질해서 캐온 해산물로 만든 성게미역국이나 고동무침, 소라산적을 해 줄 때면 자식들이 많이 좋아해 한 끼라도 대충 차려줄 수가 없었다.

금채기간에는 물질을 하지 않아 남편의 밭일을 도와주곤 했다. 금채기간이란 해녀가 다 자라지 않은 작은 해산물을 함부로 잡지 않으며 일정 기간 물질작업을 금지하는 기간이다. 보통 소라는 길이 7cm, 오분자기는 길이 3.5cm, 전복은 길이 10cm 이하의 해산물들은 채집하지 않는다.

그녀는 밀감 수확철인 11~12월에는 본인 밭에서 밀감을 수확해 팔고 놉(하루하루 품삯과 음식을 받고 일을 하는 품팔이 일꾼 또는 그 일꾼을 부리는 일)으로 남의 밭에 가서 밀감을 따서 일당을 벌어오기도 하였다. 이렇

게 번 돈으로는 의식주를 해결하고, 아이들에게 육성회비와 용돈을 주었다. 아이들의 교육방법 중 하나로, 작업이 끝난 후 남은 소라, 고등 껍데기 위에 무릎을 끓으라고 아이들을 위협하기도 하였다. 그렇게 할 때면 아이들은 눈물을 흘리며 잘못을 빌곤 하였다.

할머니의 고무옷

할머니의 고무옷은 3벌이 있다. 여름에는 4mm 고무옷을 입고, 겨울에는 5mm 고무옷을 입는데, 아주 더울 때는 3mm 고무옷을 입는다. 할머니가 젊었을 때는 가족들 생계를 위해서 많이, 그리고 자주 바닷속으로 들어가야만 했다. 옛날 누구도 넘보지 못할 정도로 위 미에서 최고로 가는 해녀일 때는 기운이 넘쳐서 물질을 많이 하여 서 그런지 고무옷이 빨리 닳았다.

근 몇 년 전부터 도에서 3년에 한 번씩 고무옷과 물질 도구들을 지원해 주고 있다. 하지만 옛날 도에서 지원을 해 주지 않을 때는 물질을 마치고 불턱에 앉아 물소중이, 물적삼, 물수건(까부리) 등 해녀옷을 수선해 가며 바다로 들어갔다.

그때는 천을 살 돈도 아까워 옷을 몇 번이나 다른 천으로 덧대어 만들었다. 그러다가 정 안되면 해녀 반장 집에 모여 동료 해녀들과 함께 해녀옷을 만들었다. 이제 그녀들은 눈이 침침해 바늘에 실꿰는 것도 힘든 나이가 되었다. 해녀 반장 아들의 도움을 받아 힘겹게 실을 펜 후 해녀들은 각자 분담받은 역할대로 해녀옷을 만든다. 지금은 모든 해녀복이 도에서 지원되어서 힘들게 손수 만들 필요가 없어졌지만 본인 손때가 묻은 옷이 너무 정들어 버리지 못하고 아직도 간직하고 있다. 다 큰 아들, 딸들이 용돈을 주어서 충분히

천을 아무 때고 살 수 있지만 젊었을 때의 절약하는 습관이 들어 아직도 옷을 덧대어 입는다.



할머니의 고무옷

힘들어지는 해녀일

그녀가 생각하기에 ‘해녀일’은 세상에서 가장 어렵고 힘든 일이다. 아무런 장비 없이 자신만을 믿고 2분가량 숨을 참고 바닷속으로 들어가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겁이 난다. 그렇기 때문에 친정어머니, 시어머니, 그리고 본인까지 어찌 보면 가업으로 내려오는 해녀일을 본인에서 끝을 내고 싶어 한다. 그래서 그녀는 딸 둘에게, 그리고 하나뿐인 손녀딸에게 물질을 가르치고 싶어 하지 않는다.

해녀들은 잠수 능력에 따라 상군, 중군, 하군으로 나뉜다, 상군은 10m 이상, 중군은 7~8m 하군은 3~5m 잠수를 한다. 젊을 때는 상군이 되어 바다 깊은 곳까지 숨을 참고 들어갈 수 있었지만 이제 70이 넘어가는 나이가 되어 숨이 가빠 얕은 곳에서만 물질을 한다. 작년에는 84세로 가장 고령이신 해녀 할머니께서 물질을 하다가

심장병으로 바다에서 돌아가셨다. 그 안타까운 죽음을 옆에서 직접 경험한 그녀로서는 요즘 들어 바다가 무섭다. 더 조심히, 그리고 안전하게 잠수를 한다.

몸에도 이상이 생기기 시작했다. 작년 질 속에 문제가 생겨 질 내부를 걷어내는 큰 수술을 감당해야 했다. 의사는 운이 나쁘면 여기서 해녀일을 그만해야 한다고 말하였다.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20대부터 청춘을 바쳐 평생 해 온 일이고, 할 줄 아는 것이 물질뿐이라 해녀일이 없는 삶을 상상할 수 없었다. 다행히 수술이 잘 마무리되어 다시 바다로 갈 수 있었지만 가족들의 염려 때문에 더 조심해서 바다로 들어간다.

이제 그녀는 귀도 멀고 사지가 아프다. 전화를 받을 때는 물론이고 바로 옆에 있는 남편의 호통도 이제는 잘 들리지 않는다. 평생 들어온 남편의 호통과 잔소리로부터 이제는 해방될 수 있었지만 무언가 허전한 기분을 느낀다. ‘해녀병’을 앓고 있는 것이다. 해녀병(잠수병)이란 고압의 물속에서 체내 축적된 질소가 완전 배출되지 않고 혈관이나 몸속에 기포를 만들어 생기는 해녀들의 직업병이다. 귓속에 귀지가 가득하지만 아파서 빼지 못하고 있다. 물질을 하려갈 때면 허리에 납을 매고 바닷속으로 들어간다. 그래서 그녀는 바닥에 앉아 일어날 때면 아픈 고통을 참아야만 한다. 고무옷을 장시간 입어 바닷속에서 물질을 하는 탓에 겨드랑이를 비롯한 그녀의 몸에서 성한 곳을 찾기 힘들다. 이런 고통으로 그녀는 1~2년 정도 더 물질을 하고 물질을 그만둘 예정이다.

뉴스에 따르면 제주해녀문화의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를 추진하고 있다. 해녀에 대한 무관심, 그리고 고령화에 따라 오랜 역사를 이어온 해녀가 사라질 위기에 처해있기 때문이다. 제주

도에서는 해녀들에게 아낌없는 지원을 하고 있다. 해녀증을 가지고 있는 해녀는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녀도 해녀증을 가지고 있어 공짜로 진료를 받을 수 있고, 만약 수술을 하게 된다면 2/3은 본인이 지불하고 1/3은 해녀 특혜를 받아 도에서 지원을 받는다.

최근 해녀의 직업계승에 대한 문제들이 이슈가 되고 있지만 그녀는 젊은이들이 힘든 해녀일을 선택하기 보다 더 열심히 공부를 해서 더 나은 직업을 가지고 생활하기를 바란다. 그녀는 본인이 직접 힘든 것을 경험하였기 때문에 자식들에게 이런 고통을 물려주고 싶지 않다.

65세까지만 해도 바닷속에는 물건들이 많았다. 하지만 근 7년 사이 바닷속은 급격히 변해버렸다. 70~80년대 톳이 많이 났기 때문에 매해 3월마다 작업을 하러 갔다. 하지만 이제는 바다가 오염되어 톳 양이 많이 줄어들어 작업을 나가지 못하고 있다. 미역도 마찬가지다. 이제는 아무리 뒤져도 오분자기, 전복, 소라를 찾기 힘들다. 바다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 바다는 그녀의 삶의 터전이고 일평생을 바친 공간이기 때문에 쓰레기가 나뒹굴고 비어가는 바닷속을 보면서 그녀의 마음은 찢어진다.

첨언; 제주해녀가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주는 사람들에게 제가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해녀일을 배우는 사람이 줄어들면서 해녀가 점점 줄어 사라질 위기에 처해있는데, 이렇게 해녀를 널리 알리고 보존하려 노력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들었을 때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제주해녀의 숨비소리가 영원히 들리도록 노력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결국 해녀도 엄마다

남주고등학교 2학년 김인수 양동혁



- 주출자 : 강봉열
- 나이 : 1946년생(71세)
- 고향 :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곶
- 현거주지 : 서귀포시 동송동
- 멘답자 : 김인수 · 양동혁
- 멘답일시 및 장소 :
10월 24일, 자택

강봉열 씨가 해녀로 살아온 나날

1946년 출생

16세; 해녀일을 처음 배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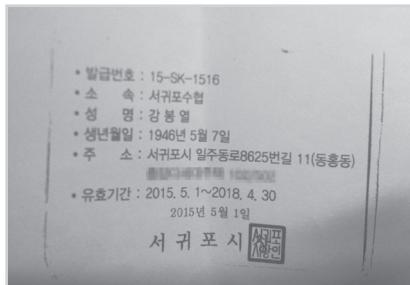
21세; 결혼

30세; 약 10년 간의 해녀생활을 접고 서귀포에서 장사생활을 함.

44세; 장사생활을 접고 일본으로 출가물질을 가면서 해녀생활을 다시 시작함. 출가물질로 빚을 갚고 다시 장사생활을 시작함.

55세; 자식의 뒷바라지를 위해 다시 해녀생활을 시작하여 최근까지 해녀생활을 이어감.

71세(현재); 건강상의 문제로 현재 해녀생활을 중단함(몸이 괜찮아지는 대로 해녀생활을 계속할 예정)



강봉열 씨의 해녀증(복사본)

해녀로의 첫발을 내딛다

1946년, 강봉열 씨는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에서 3남 3녀 중 다섯째로 태어났다. 사계에서 태어나 국민학교까지 다닌 강봉열 씨는 그 당시에도 중학교에 가기 위해 중학교 입학시험과 면접까지 보러 다닐 정도로 배우고자 하는 의지가 있었다. 하지만 그 당시 동

네에서 여자가 무슨 학교를 가냐면서 싸움이 날 정도로 반대를 했었다. 그래서 가고 싶었던 중학교는 결국 가지 못했다.

그런 강 씨는 국민학교를 졸업하고 16세라는 어린 나이에 처음 해녀일을 배웠다. 해녀일을 배우게 된 이유는 단순했다. 그저 국민학교를 졸업하고 할 게 없는 탓에 해녀일을 배웠다. 물질을 배우는 데 특별한 스승은 따로 없었다. 그저 바다가 놀이터였고 스승이었다. 마음 맞는 친구들끼리 수영하면서 숨이 닿는 대로, 손이 가는 대로 오분자기도 따고, 우무(우뭇가사리)도 따면서 시작한 것이 해녀의 길로 접어들게 된 계기가 된 것이다.

육지로의 첫 물질을 떠나다

“젊었을 땐 안 가본 데 어서. 방어진이랑 충청도, 다 가봤지”

그저 할 것이 없어 시작했던 해녀생활이 4년이 지나 20살이 되었을 때 강 씨는 해녀로써 처음으로 돈을 벌기 위해 육지로 출가물질을 떠나게 되었다. 장소는 경상북도 울산시 방어진(1965년 당시 지명은 경상북도 울산시)이었다. 마을 선배 해녀들과 친구 두세 명이 강 씨와 함께했다. 첫 출가물질의 주요 물질 목표는 천초(우뭇가사리의 제주도 방언)를 캐는 것이었다. 하지만 한 달쯤 울산에서 거주하면서 물질을 나가도 돈벌이가 잘 되지 않았다.

그래서 강 씨는 전화도 없던 시절 친언니에게 돈벌이가 쉽지 않다는 편지를 썼고, 언니는 자신이 사는 충청도로 올라오라고 답장을 했다. 답장을 받자마자 강 씨는 당시 언니가 살던 충청도로 떠났다. 길도 모르는 곳이었지만 기차를 타고 무작정 떠났다. 그곳에서 몇 개월을 살면서 돈을 모으고 강 씨는 다시 제주도로 내려왔다.



처음 출가물질을 떠났던 울산 방어진의 바다

잠깐 해녀와의 이별

울산 방어진으로의 첫 출가물질이 그렇게 끝나고 제주도에서의 해녀생활이 익숙해질 때쯤 21세 때 강 씨는 같은 동네 사람이던 현재의 남편을 만나 결혼을 하였다. 그리고 세 아들을 낳았다. 아이들 양육, 그리고 해녀일까지 두 가지 일을 병행하던 강 씨는 결국 세 아들의 양육을 위해 약 14년 간의 고된 물질을 잠시 멈추고 30세 때 장사를 시작했다.

하지만 난생 처음 해 보는 장사라는 게 그리 녹록치 않았다. 맨 처음에는 시청 옆에서 장사를 시작해 어 정도 돈벌이가 되었지만 시청이 이전하면서부터 장사가 잘 되지 않았다. 결국 커가는 아들들의 뒷바라지를 위해 강 씨는 장사를 접고 바다에서의 삶을 택했다. 후에 돌이켜보니 당시 장사가 잘 되었다면 강 씨는 계속 장사를 했을 것이라고 한다.

다시 만난 바다, 처음 만난 일본

해녀생활을 쉬었던 14년 간의 공백은 길었다. 몸도 정신도 모두 힘든 게 물질이다. 강 씨에게 14년 간 쉬었던 일을 다시 시작하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었다. 하지만 세 아들을 기르는 동안 장사를 하며 생긴 빚 때문에 결국 44세에 다시 해녀일을 하는 것을 택했다. 14년만의 첫 물질을 떠난 곳은 일본이었다. 일본은 강 씨가 처음 가보는 곳이었다. 일본의 바다는 제주도의 바다와는 확연히 달랐다. 더구나 오랫동안 물질을 쉬었기 때문에 적응하기가 더욱 힘들었다.

해녀일을 하던 친구들 몇 명과 함께 울산 방어진을 거쳐 처음엔 보름(15일) 비자를 받고 일본에 나갔다(지금은 3개월 짜리 비자도 있지만 그 당시에는 보름 비자가 최대였다고 한다). 하지만 돈을 많이 벌어야겠다는 생각 때문에 일본에서 살면서 보름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고 10개월 정도를 일본에서 지내다가 많은 벌금을 물었다. 그 이후로도 계속 보름 비자를 받고 돌아와서 일주일을 쉬고, 다시 일본에 나가고 쉬고 나가고 하는 일이 반복되었다.

일본으로의 출가물질 덕분에 빚은 모두 갚을 수 있었다. 그리고 아들들의 교육 또한 시킬 수 있었다. 돌이켜 보면 이 때 나갔던 물질은 참 고마운 시간이었다. 물질을 택했던 그 선택 뒤에는 강 씨의 아이들에 대한 사랑이 있었고 가족에 대한 사랑이 있었다.

자식을 위한 길, 해녀

일본으로의 출가물질 이후로도 강 씨는 해녀생활을 계속했다. 그러다 다시 장사를 시작했다. 물론 물질이 싫어서가 아니었다. 모

든 선택은 가족을 위한 것이었다. 하지만 장사생활은 여전히 쉬운 게 아니었다. 아들들이 대학에 갈 나이가 되면서 부담이 더욱 커진 것이다. 더군다나 둘째아들이 한의대에 가면서 학비 부담이 컸다. 그래서 강 씨는 다시 바다에 나가기로 결정했다. 그녀 나이 55세 때 였다.

강 씨가 말하길 해녀의 벌이는 일정하지 않다고 말한다. 년마다 들쑥날쑥하다고 한다. 잘 벌 때는 한 달에 200만 원까지 벌 때도 있다 하고 물질이 잘 안 될 때는 150만 원 정도라고 한다. 이렇게 수입이 일정하지도 않고 벌이가 크지도 않지만 강 씨가 바다에 꿋꿋이 나간 것은 강 씨가 이 일을 좋아한 것도 있지만, 바로 강 씨의 세 아들들 때문이기도 하다.



강봉열 씨와
평생을 함께한
사계리 앞바다

“이렇게 다 벌어서 내가 애들 키우고 했지. 가족들을 위해서 해녀 한 거나 마찬가지여 그래. 애들 다 키웠어”

결국, 강 씨는 3형제를 모두 대학에 보냈고 반듯하게 잘 키우셨다. 특히 둘째 아들은 한의대를 졸업하고 지금 한의사가 되어 있다. 그녀의 해녀 인생이 없었더라면 절대 이뤄지지 않았을 자식들의 성공이다.

아프고 아파도 결국엔, 해녀

“막 요즘에는 진통제 맞고 들어가는 해녀들도 있다 하잖아. 우리 때는 그런 거 없었지. 그냥 막 바로 물질하래 들어간 거여”

해녀들은 목숨을 걸고 바다에 들어간다고 한다. 강 씨가 젊었을 때만 해도 물옷이라는 물소중이와 저고리를 입고 바다에 들어갔다고 한다. 그렇듯 위험한 일임에도 강 씨는 해녀일을 좋아했고, 아무 런 거리낌 없이 물속에 잠수하여 물질을 하셨다. 그만큼 해녀일은 그녀에게 열정 그 자체였다.

“사실 말이여. 딱 물질하민 힘들주게, 정말로. 숨 참고 물숨하다 보면 돌아가시는 해녀도 많은 거라. 40~50대는 딱 적정하고 55세 이상 가민 좀 벼치기 시작하고, 60세 넘어가민 하도 벼쳐그네 온몸이 쑤시는 거라”

강 씨는 현재 71세이다. 해녀일은 점점 벅차왔다. 호흡이나 체력적으로도 해녀는 고령 할머니들에게 너무 힘든 일이기 때문이다. 너무 무리해서인지 강 씨는 2013년 발의 통증을 느꼈다. 지금은 발의 병이 악화되어 해녀일을 쉬고 있다.

강 씨는 말한다. “나는 아직도 나가고 싶어. 근데 이 발이 나을지 안 나을지 모르겠네. 발만 나오면 바로 나갈 거여” 그녀는 아직도 병이 나아 해녀일을 할 생각만 하며 더 넓은 바다를 꿈꾼다.

아무도 모르는 바다의 여신, 해녀

비록 지금은 해녀일을 못하는 실정이지만 가끔 강 씨의 마음은 바다에 나선다. 그만큼 강 씨는 바다를 사랑했다. 그래서 강 씨는

지금이 너무 안다깝다.

먼저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환경오염 때문이다. 과거에는 오분자기도 나왔던 바다가 이제는 점점 그 생기를 잃고 있는 것이다. 강씨는 이렇게 말했다.

“근데 요즘은 이렇게 놀지도 못하여. 없어, 이제. 소라나 전복이 없으난, 막 갈수도 없주게. 오분자기 있지않아? 오분자기. 응, 이젠 안 보여. 나 30~40대일 때는 위미리 가서 오분자기 캐고 먹고 해신디 이제는 어서. 응응, 아예 어서. 참말로 그건 안다까운 일이여. 아무 것도 어서 아무 것도…” 이러다 미래에 해녀가 사라지는 것이 아닌지 그녀는 걱정한다.

뿐만 아니라 젊은 사람들은 요즘 해녀일을 하려고 안 한다. 목숨 걸고 해녀일을 할 만한 그 절박함이 젊은 사람들에게는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점이 앞으로 해녀의 미래를 생각할 만큼 강봉열 씨에게 해녀는 인생 그 자체이다. 인생의 대부분을 해녀로 보내셨고, 해녀의 본보기로 살아오신 그녀이다. 만약 다시 바다에 들어가게 된다면 그녀는 바다의 여신이라 불려도 손색이 없을 것이다.

마지막은 강 씨가 꼭 하고 싶던 말이다.

“책에 꼭 이건 적어줘. 나는 이 일이 아무리 힘들다고 해도 취미생활이라 생각하고 좋다, 좋다 여기면서 이 일을 해 온 거여. 나는 자랑스러워, 이게”

숨悲소리

대기고등학교 1학년 서준호



- 구술자 : 양순자
- 나이 : 71세(1946년생)
- 고향 : 제주시 우도면
- 현거주지 : 제주시 우도면
- 연락처 : 서준호
- 연단일시 및 장소 : 8월 10일,
- 양순자 할머니께서 운영하시는 음식점

우도 소녀, 바당을 만나다

섬 속의 섬, 아름다운 제주도의 예쁜 모습만 한가득 모아놓은 듯 그림같은 풍광을 자랑하는 우도는 사실 굉장히 열악하고 척박한 삶의 터전이었다. 세상과 동떨어진 듯한 우도에서 태어난 양순자 해녀 할머님은 어린 시절에 학교와 놀이터 대신 매일 우도의 투명한 바다에 몸을 맡기곤 하셨다. 사면이 바다인 작은 섬 우도의 소녀는 수영을 따로 배우지 않았지만 자연스럽게 바다와 친구가 되었고 철도 들기 전에 물속을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게 되었다. 지금도 용돈을 타서 생활하는 우리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지만 고작 9~10살 무렵부터 물질을 하며 해녀일을 시작하셨던 것이다.

낭만, 아니 현실

근래 들어 일본에서 일본의 해녀인 ‘아마’를 유네스코 세계문화 유산으로 등재하려는 적극적인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고, 우리나라 제주도 해녀를 마찬가지로 유네스코에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이를 위해 많은 단체에서 해녀에 대해 연구하고 있고, 내가 지금 참여하고 있는 이 프로젝트도 그 노력의 일환일 것이다. 우도 바당을 삶의 터전으로 살아가고 있는 양순자 해녀 할머님을 비롯한 우도의 많은 해녀 할머님들은 이미 이와 같은 방식의 인터뷰에 익숙해 보이기까지 했다. 제법 많은 사람들이 우도의 해녀 할머님들을 찾아와서 비슷비슷한 질문을 던지고 자기들이 원하는 답을 얻어서 가곤 했다는 것이다.

특별한 장비도 없이 깊은 바닷속에 들어가서 자연 훠손을 최소화하는 몸짓으로 1분이 넘는 시간을 오직 정신력으로만 버텨가며 자연이 주는 선물을 품에 안고 돌아오는 해녀들을 경이롭다는 듯이 바라보는 외부의 시선이 그녀는 씁쓸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다고 했다. 물속에서 어떻게 그렇게 긴 시간을 숨을 참아가며 물질을 할 수 있는지를 궁금해 할 것이 아니라 왜 그렇게 숨을 참아가며 살아가야만 했는지를 생각해 봐 달라고 했다.

제주도도 그렇지만 우도의 경우에는 더욱 농사를 짓기에 매우 척박한 환경이다. 농사라고 해 봐야 고구마 정도였던 옛날에는 물질을 해야만 제대로 먹고 살 수가 있는 형편이었다. 매일 고구마만 먹고 살 수는 없지 않은가. 게다가 집집마다 식구 수도 적지 않아서 아이들은 철도 들기 전에 어머니를 따라 바다에 나가 먹을 것을 구해오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것이다. 설상가상으로 4·3사태가 발생하는 바람에 당시 우도에서는 성인 남자들의 그림자도 보기 어려울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 멀리 바다로 조업을 나갔던 가장들이 사라지게 되자 그 무거운 책임을 우리 어머니와 딸들이 나눠서 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어머니 혼자서 물질을 하는 것만으로는 온가족이 입에 풀칠하기도 어려웠다. 그래서 어린 소녀들이 철도 들기 전에 숨을 참아가며 바닷속을 헤매게 된 것이다.

서빈백사의 눈부시게 하얀 모래밭과 어우러진 비취색의 우도 바닷속에서 방금 물질을 끌내고 나오는 해녀 할머님들을 보고 카메라 셔터를 눌러대는 사람들에게는 그녀들의 숨비소리가 색다르게 들리고, 제주해녀를 모티프로 만든 모빌을 비롯한 각종 기념품들이 예쁘게만 보일 것이다. 바닷속을 자유자재로 드나드는 그녀들의 모습을 흡사 인어에까지 비유해 가며 낭만을 노래하는 우리

들에게 양순자 할머님께서는 세상을 달관한 듯한 미소를 보이시며 말씀하셨다. 그래도 당신 자신이 해녀로 살아온 것에 후회는 없다고. 자신의 지난 삶에 자부심을 느끼신다고.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물질을 해서 온가족이 배곯지 않게 하였으니 이만하면 자랑스럽게 여겨도 되지 않겠느냐며 되려 반문을 하는 할머니 옆에 놓인 녹슨 유모차와 그 위에 담겨진 물질 도구가 처량하게 느껴졌다.



넓은 바다를 향한 도전

천혜의 아름다움을 간직한 우도이건만 땅이 워낙 척박하다보니 땅을 경작해서 먹고 살기란 불가능한 일이었다. 그래서 우도의 어린 소녀들은 손에 손을 잡고 바다로 나가 물질을 해야만 했다. 그렇

지만 우도 앞바다에서 건져 올릴 수 있는 해산물의 양에는 한계가 있었다. 그렇게 우도 앞바다에서의 물질만으로는 생계유지가 어렵다고 느낀 어느 날, 양순자 해녀 할머니는 몇몇 다른 해녀들과 함께 더 넓은 바다로 떠나게 되었다.

출가물질이 유행처럼 번져 다들 머나먼 타국 바다로까지도 서슴지 않고 떠났지만 양순자 해녀 할머니는 밀항을 해 가면서까지 일본으로 물질을 하러 가고 싶지는 않으셨다. 그래서 차선으로 선택한 곳이 바로 충청남도와 경상남도의 드넓은 바다였다.갓 스무 살을 넘긴 양순자 해녀 할머니의 전성기였다고 한다. 우도 바다에서보다 몇 배는 더 많은 해산물을 채집할 수 있었고, 그렇게 모은 돈으로 가족들을 건사할 수 있어서 몸은 고되도 마음만은 풍족한 나날이었다고 한다. 어떤 해녀들은 몇 년씩 출가물질을 하러 다녀 오기도 했는데 양순자 해녀 할머니는 3~4개월 정도씩 몇 차례 다녀 오는 것으로 만족했다고 한다. 출가물질을 위해 떠나는 여정도 만만치가 않은데다가 가족에 대한 그리움 때문에 긴 시간을 견디기에는 힘들었기 때문이었다.

얻는 게 있으면 잃는 것도 있는 법

바다는 양순자 해녀 할머니에게 양식을 나눠주고 결혼 전에도 결혼 후에도 가족을 부양할 수 있는 힘이 되어 주었다. 아낌없이 주는 바다이기에 늘 고맙고 감사했지만 단 하나만은 얻고 싶지 않았다. 오랜 세월 어머니나 주변 어르신들을 지독히도 괴롭혔던 그놈, 바로 ‘잠수병’이다. 그래도 젊을 때는 그럭저럭 참을만 했다. 그런데 나이가 드니 단 하루도 진통제 없이는 버티기가 힘들었다. 이제

는 하루에도 몇 번씩 진통제를 삼켜야만 하루가 지나간다. 해녀라면 그 누구라도 예외일 수 없다는, 지독히도 무서운 잠수병이 양순자 해녀 할머니까지 잠식해 버린 것이다. 바다는 모든 것을 내주는 대신에 그녀의 건강을 앗아갔다.

매일 진통제를 먹는 것이 결코 몸에 좋을 리가 없는데도 양순자 해녀 할머니께서는 태연하셨다. 별 일 아니라고, 할머니의 어머니도 그러셨고, 할머니의 친구 분들도 다들 그러시다고. 당장 죽는 일 아니니 너무 심각하게 받아드리지 말라는 할머니의 말씀에 마음이 무겁기만 했다. 제주시내만 해도 큰 병원에서 고압산소치료 시설을 갖추고 있어서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우도에는 그런 장비조차 없지 않은가. 매년 국회의원들은 우도에도 고압산소치료 시설을 지원하겠다고 하지만 매번 말뿐이다.

제주도는 유독 여성들의 생활력이 강한데, 강인한 여성들의 맨 앞 옆에는 제주도를 대표하는 해녀 분들이 자리하고 있다. 일제강점기 때는 외화 벌이를 위해서, 4·3사태 이후에는 제주도의 각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그녀들은 언제나 발벗고 앞장서서 제 몸 망가지는 것도 신경쓰지 않고 바다와 혼연일체가 되어 살아 왔다. 이제는 우리가 그런 해녀 분들을 지켜드려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에 괜히 죄송해지고 숙연해지기까지 했다. 그런 나를 보며 양순자 해녀 할머니께서는 인자하게 미소를 지으시며 그래도 요즘에는 잠수 도구도 지원해 주고 병원도 지원해 주고 그래서 예전보다 훨씬 나아진 거라며 너무 걱정 말라고 하셨다. 바다에서 가져만 와서 항상 고맙고 미안한데 그까짓 잠수병 때문에 물질을 포기할 수도, 바다를 원망할 생각도 전혀 없다는 양순자 해녀 할머님의 말씀에 차마 고개를 들 수가 없었다.

숨비소리, 그 처연함

바다에 들어가면 정말 온갖 진귀하고도 아름다운 풍경이 눈앞에 펼쳐져서 눈을 뗄 수가 없다는 양순자 해녀 할머니께서 바다에서 온전히 숨을 참고 견디는 시간은 1분에서 2분 정도라고 하셨다. 사실 일반적으로 1분이나 2분이 그리 긴 시간이라고 생각되지는 않는다. 그런데 문제는 깊은 바닷속에서 부력을 이겨가며 혼자 오롯하게 숨을 참아내고 이곳저곳 해산물을 찾아 움직이면서 견뎌내는 시간이라는 것이다. 그저 얌전하게 의자에 앉아서 숨을 참고 견디기에도 1분은 결코 짧지 않은데 말이다.

그렇지만 양순자 해녀 할머니에겐 이 1분, 2분이 너무 짧게만 느껴진다고 하셨다. 조금 더 깊이, 조금 더 가까이 가려고 하면 어느 새 숨이 턱밑까지 밀려와서 어쩔 수 없이 해수면 위로 솟아오르곤 하신다고. 그래서 자신보다 숨이 더 길어서 2분 넘게 잠수하는 다른 해녀 분들을 보면 부럽기까지 하다는 말씀에 양순자 할머님은 역시 천생 해녀로구나 싶었다. 여러 차례 심해와 해수면을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체력도 많이 소진되고 숨이 안 쉬어지기도 하는데, 그럴 때 숨을 쉬기 위해 내는 소리가 바로 숨비소리인 것이다.

휘파람 소리 같기도 한 숨비소리를 방송매체에서 소개하는 걸 언뜻 본 적이 있다. 한 어촌 마을에서 여러 해녀 분들을 모셔서 숨비소리 합창단을 조직한 다음 해녀 분들의 노래 중간 중간에 숨비소리를 자유롭게 넣어서 만드는 과정을 보여주는 방송이었다. 해녀 분들마다 모두 다른 숨비소리를 내셔서 참 신기했다는 말씀을 드렸더니 양순자 해녀 할머니께서도 자신만의 숨비소리를 들려주셨다. 바로 앞에서 생생하게 숨비소리를 들어본 것은 처음이라서 신

선한 경험인 동시에 웬지 모르게 그 소리가 굉장히 슬프고 처연하게 들렸다. 할머니의 길고도 긴 해녀 인생과 고달픔이 모두 전해지는 것 같았다.



우도 해남

양순자 해녀 할머니의 자제 분들은 그 누구도 해녀일을 전수받지 않았다. 한 아드님은 우도에서 승마장을 운영하고 계셨고, 다른 분은 양순자 할머니를 도와 그녀가 매일 바다에서 건져 올리는 해산물을 요리해서 파는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었다. 할머니께서는 해녀일이 워낙 고되기 때문에 누구에게도 강요할 수 없고 권할 수 없었다고 하셨다. 그렇지만 막상 우도에는 다양한 직업이 없기 때문에 만약 딸이었다면 해녀를 하라고 권했을지도 모른다고 하셨다.

여름방학의 끝자락에 찾아간 우도 해녀 양순자 할머니는 인터뷰 내내 밝고 편안한 표정으로 자신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진솔하게 들려 주셨다. 공부하기 너무 힘들어서 고민이었는데 할머니를 뵙고 나니 그 동안 배부른 투정을 했다는 생각에 반성이 된다고 말씀드렸더니 공부하기 싫으면 언제든지 우도로 들어와서 해남이 되

어도 좋다고 하시며 환하게 웃으셨다.

요즘에는 취업난이 워낙 심각해서 청년들이 해녀학교에 입학해서 해녀나 해남이 되기 위해 도전하는 경우도 여럿 있다는 말씀을 드렸더니 바다는 해고나 정년퇴직을 시키지 않으니 좋은 생각이라며 재차 우도 해남이 되어 보는 게 어떻겠느냐고 권하시면서 그동안 쌓은 모든 비법을 전수해 주시겠노라고 하셨다. 양순자 해녀 할머니 시대에도 어쩔 수 없이 생계의 수단으로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물질이 요즘 시대에도 취업난에 쫓긴 청년들의 일자리로 언급되고 있다는 현실에 마냥 웃을 수만은 없었다.

제주도나 국가 차원에서 제주도의 해녀를 중요한 문화유산으로 여기고 이를 전승하고자 한다면 그저 단순하게 직업이나 체험의 차원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다. 제주도의 한 유명 수족관에서는 해녀 할머니들을 고용해서 수조 속에서 채집하는 과정을 무슨 쇼처럼 보여주기도 한다는데 그네들의 삶의 무게를, 숨비소리의 애달픔을 제대로 이해는 하고 진행하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

양순자 해녀 할머니는 앞으로 3~4년 정도면 자신은 더 이상 물질을 못할 것 같다고 하시며 벌써부터 아쉽다고 하셨다. 지금까지만 한 번도 다른 사람에게 아쉬운 소리하지 않고 물질해서 먹고 살았기에 죽는 순간까지 떳떳하게 살고 싶다고 하셨다. 72세의 양순자 해녀 할머니를 비롯한 대부분의 제주해녀 분들은 이미 고령자이시기에 물질이 무척 고된 작업일 것이다. 그녀들이 이렇게 생의 끝까지 숨을 참아가며 살지 않도록 보다 현실적인 대안과 지원책이 마련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양순자 할머니와 아쉬운 작별 인사를 나누었다.

유정숙 해녀의 삶

대정고등학교 2학년 강승일



- 주술자 : 유정숙
- 나이 : 1943년생(74세)
- 현거주지 : 서귀포시 대정읍 상모리
- 연담자 : 강승일

Q. 해녀를 몇 살에 시작하셨는가요?

A. 18살에 시작하였다.

Q. 처음에 해녀할 때 얘기를 해 주세요.

A. 해녀를 처음에 배울 때는 얼마나 힘들게 배웠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었다. 그때는 해녀를 간단한 시험을 치면 하게 되었는데 주변에 공장도 없고 밭일 외에는 딱히 할 일이 없었다. 그래도 해녀일을 하면 그래도 옷도 사 입을 수도 있었기 때문에 해녀일을 하게 되었다. 또 내가 해녀를 시작하게 된 계기는 당시에는 돈을 벌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었다. 당시에 일당은 700원밖에 되지 않았으며, 주변에 공장 같은 것도 없어서 돈 벌 일을 택하다가 해녀일을 시작하게 되었다. 그때 당시에는 해녀질만 하면 돈을 벌 수 있었으므로 그 돈으로 시집도 가고 했다. 한겨울에 눈이 내릴 때도 그냥 속곳만 입고 물에 들어갔다.

Q. 그 당시의 해녀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세요.

A. 처음에는 고무옷이 없었다. 그래서 그냥 속곳이라 불리는 것을 만들어서 입었다. 그때는 옷이 너무 부실했으므로 금방 추워졌다. 그래서 물질을 조금 하다가 추워지면 밖으로 나와서 불을 쬐어 몸을 녹였다. 그리고 다시 조금 따뜻해지면 다시 물에 들어갔다. 하루에 2번씩 그런 식으로 하였다.

Q. 그렇다면 고무옷을 본격적으로 입게 된 계기는 언제인가요?

A. 고무옷이 나온 것은 내가 40대 쯤이었다. 그런데 초반에는 그 고무옷을 못 입게 했다. 그 이유는 고무옷을 입으면 물속에 있을 수

있는 시간이 길어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물질을 오래 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수확할 수 있는 물건들이 줄어든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러나 너무 추워 물질을 하기 힘들어서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고무옷을 입게 되었다. 그러나 그때 이 대정지역에는 고무옷을 할 수 있는 곳이 없었으므로 제주시에 가서 고무옷을 해 오곤 했다. 또한 고무옷이 비쌌기 때문에 남이 입던 중고를 사다가 입었었다. 그 후에 도지사에게 건의를 해서 고무옷을 지금받게 되었고, 그때 도지사가 해녀축제 같은 것도 생기게 하였다. 그런데 아쉬운 것은 고무옷을 입으면서 물속에 있을 수 있는 시간이 길어지게 되자 해녀질할 물건이 많이 사라지기는 한 것 같다.

Q. 혹시 제주도 말고 다른 지역까지 가서 해녀일을 하셨나요?

A. 해녀일을 시작하고 얼마 지나지 않은 19살에 경북에 다녀온 적이 있다. 경북 수용포라는 지역이었는데 그때의 나는 해녀실력이 아주 미천할 정도여서 거기까지 갈 수 있는 기회는 주어지지 않았어야 했는데 신청자가 아무도 없다 보니까 나까지 기회가 오게 되었고 그때 함께 간 친구의 말을 듣고 신청해서 뽑히게 되었다. 그래서 부산에 가서 수경을 사서 그곳에 가게 되었는데 당시에 나는 실력이 없었다. 게다가 여기처럼 바다 근처에서 하는 물질이 아니라 배를 타고 먼 바다까지 가서 해야 하는 물질이었다. 그런데 나는 실력이 없어서 제대로 하지 못해 다시 집에 가야 할 것 같다고 생각하고 인솔자에게 집에 가겠다고 얘기를 했다. 그러나 인솔자가 너무 나 좋은 사람이어서 지속적으로 연습하면 실력이 늘 것이라고 격려해 주었고, 또한 그 분은 물질한 사람들의 수익을 똑같이 배분까지 해 주었다. 고마운 마음과 미안한 마음에 내가 물을 길어오거나,

빨래나 밥 등을 하며 고마운 마음을 갚곤 했다. 그래서 그 당시에 5개월을 살면서 8만 원을 벌어오게 되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얼마 후에 다시 나를 데리러 와서 21살까지 그곳에서 물질을 하러 갔었다. 다음 갔던 장소는 비교적 물이 얕은 곳이어서 이번에는 물질을 잘 할 수 있었다. 그 후 3년 동안 더 거기서 물질을 하고 결혼을하게 되어 가지 않게 되었다. 그 당시에 물질도 하지 못해서 아쉬웠으나 그 동네 사람들이 너무나 좋은 사람들이었다.

Q. 그 당시에 사용하던 도구와 현재 사용하는 도구가 다른가요?

A. 요새 사용하는 도구랑 그 당시에 사용하는 도구는 달랐다. 그 당시에 쓰던 테왁은 박으로 만든 것이었다.

Q. 그 당시에 사용하시던 도구를 볼 수 있을까요?

A.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없다. 해녀박물관이 생기면서 그 곳에 모두 기증을 하였다.

Q. 그럼 그 당시에도 지금처럼 해녀회가 있었나요?

A. 내가 속한 상모리어촌계는 처음 해녀일을 하던 시절에도 있었다. 다만 건물이나 탈의실, 수도시설, 전기시설 같은 것은 전혀 없었다. 건물 같은 것을 지은 것은 내가 53살 되던 해에 탈의장이나 전기시설 등을 설치하게 되었다. 건축에 들어가는 돈은 나라에서 지원해 주었다. 원래 어촌계 건물과 탈의실이 있는 곳이 군사지역이어서 전기를 끌고 오거나 건물을 짓는 것이 힘들었다. 그래서 그 때 읍장에게 건의해서 읍장이 수산과에 건의를 했고, 이에 따라 건물들이 들어서게 되었다.

Q. 할머니께서 해녀하실 적에 겪었던 일을 더 말씀해 주세요.

A. 결혼한 후에 해녀일을 제대로 배워서 할 때에는 주변에 얘기를 볼 사람이 없으니 아기를 데리고 나가서 바다 근처에 앉히고는 물질을 했다. 오전에는 밭에 가서 일하고 낮에는 다시 해녀일을 하러 가면서 5남매를 다 길러냈다. 첫째 딸은 내가 몸을 해 오면 자전거에 싣고서 직접 팔려 다니고 했다. 직접 생활비도 벌어서 동생들에게 용돈까지 주곤 했다. 당시에는 바다에서 물질을 하고 돌아와도 마땅한 판로가 없어서 시장에 직접 나가서 판매를 하곤 했다. 그러다가 판로가 일본 쪽으로 생기게 되어서 판매를 하게 되었다. 그러면서 아침에는 밭에 가고, 다시 물질을 하고 다시 밭에 가곤 했다. 예전에는 물질을 하는 해녀에 대한 인식이 그다지 좋지는 않았다. 그래서 소문을 잘 내지 않았는데, 시간이 흐르고 해녀에 대한 인식이 좋아지고 일본의 엔화를 벌어다 주는 소득원이 되어서 자랑스럽게 여기게 되었다.

Q. 해녀일을 하시면서 가장 좋았던 일을 말씀해 주세요.

A. 해녀를 하면서 가장 좋았던 일은 이 일로 애들 5명을 다 키우고 대학에 보낸 것이다. 얼마 전에 좀 몸이 안 좋았던 일이 있었는데 자식들이 와서는 지금까지 어머니가 우리를 다 키웠으니 이제부터는 일하지 말고 그냥 쉬라고 할 정도였다. 그러나 요새도 혼자 가끔 물질을 가서 성게 같은 것을 해 와서 몰래 까기도 한다.

Q. 그럼 지금도 해녀일을 하고 계시는가요?

A. 지금도 가끔씩 물질을 하고 있다. 앞으로도 농사는 힘이 들어서 못 할 것 같으나 해녀일은 80세까지는 할 수 있을 것 같다.

Q. 그럼 이 대정 지역의 해녀 분들 중에서 가장 나이가 많으신 분과 가장 나이가 어리신 분은 몇 세이신가요?

A. 우리 동네에서 가장 연세가 많은 해녀는 79세이다. 옆 마을에는 86세이신 할머니 해녀도 있다. 그리고 가장 어린 사람은 이교동에 있는 51세 정도의 해녀다.

Q. 해녀일을 하면서 위험하다고 느끼거나 아프신 적은 없었나요?

A. 과거에는 해녀일을 하면서 물에서 다치거나 돌아가신 분이 많았다. 나 역시도 해녀일을 하다가 허리를 다쳐서 수술도 했었고, 심장도 안 좋아져서 약을 먹어야 했다. 또 문어를 잡다가 문어에게 귀를 다치기도 했다. 많은 사람들이 나처럼 해녀병을 앓고 있기 때문에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한다. 다행히 해녀와 관련한 해녀병의 치료에는 제주도에서 보조가 된다. 입원 관련해서는 보조를 받을 수 없으나 통원치료 같은 경우에는 보조가 되어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Q. 그럼 그 외에도 제주도에서 지원사업이 있나요?

A. 병원진료비 지급 외에도 고무옷이 2년에 한 번씩 제주도에서 지원되고 있다. 그러나 그 외의 수경이나 테왁 같은 장비는 본인이 구입해서 사용해야 한다. 지금에야 고무옷도 나라에서 입을 수 있게 하고, 예전엔 너무 어렵게 물질을 했으나 지금은 해녀증도 나오고 병원에서 의료보험도 해 주고 있다.

Q. 해녀일을 하시면서 다양한 경험을 하셨을 텐데 어떤 경험을 하셨나요?

A. 내가 해녀일을 하다 보니 53세에 해녀회 회장도 하게 되었고, 다시 재임명받기도 했다. 또한 해녀회 총무를 15년을 하고 수협 대의원을 2년 하다 보니 제주도 밖으로 여행 나갈 기회가 있었다. 지금도 물질을 하다가 이런 경험을 많이 하게 되어서 좋다고 생각한다.

Q. 그렇다면 현재의 해녀회에 대해 아쉬운 점이 있으신가요?

A. 과거의 해녀들은 물질을 잘 못하는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고 수익을 나누곤 했는데 요새의 해녀들은 그런 경향이 많이 사라지고 있어서 아쉽다. 또한 요새는 일본에서의 수익을 기대하기도 힘들어졌다. 과거에는 수확한 물건은 kg당 7,800원의 수익을 올릴 수 있었으나 요즘은 3,400원 받기도 힘들어졌다.

Q. 그럼 그러한 힘든 수익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요?

A. 과거에 내가 산이수동 근처에서 해녀들이 작업에 온 물건을 팔 수 있도록 한 적이 있다. 그때에 해녀들의 수입이 많이 늘어났었다. 그러나 내가 병원에 얼마간 입원해 있다가 돌아와보니 다른 해녀 반에 모두 팔아버렸다. 그러다 보니 현재 우리 마을 해녀들이 수익 사업을 낼 수 있는 부분이 사라졌다. 따라서 해녀들이 직접 물건을 팔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활성화되어야 수입을 낼 수 있다. 또한 주변 사업장과의 관계를 모색해야 한다. 실제 사례로 잠수함 관련하는 사람에게 잠수함 허가권을 우리 해녀일터에서 할 수 있도록 주었더니 매해 어촌계로 1,500만 원을 보내주고 있다. 이런 식으로 주변 상권이나 업체와의 협력을 모색하여 상생하는 관계로 발전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물질은 나의 삶

브랭섬홀 아시아 11학년 박지현



- 구술자 : 윤미자
- 나이 : 1945년생(72세)
- 고향 : 서귀포시 구좌읍 하도리
- 연담자 : 박지현
- 연담일시 및 장소 : 9월 29일, 자택



면수동 해녀, 물질을 시작하다

윤미자 씨는 1945년 하도리 면수동에서 태어났다. 9살의 어린 나이부터 바다를 일종의 놀이터라고 여기며 오고갔다. 어린 시절에는 바다에 들어가 모래를 잡아오곤 하는 ‘숨비닥질’을 하였는데 물 속에 들어가 손을 땅에 닿았다는 것을 “나 모래 잡아왔쪄”라며 친구들에게 증명해 보이는 놀이였다. 바다물질은 17세 때 나이 터울이 있는 동네 언니들에게 면수동 바닷가의 얕은 곳에서 배웠으며 18세 때부터 본격적으로 물질을 시작하였다.



윤미자 씨의 자택 너머로 보이는 바다

19세에 동네 언니들을 따라 육지로 출가물질을 나섰다. 경상남도 충무 한산도로 처음 물질을 갔는데, 당시 면수동의 해녀들은 대부분 오래 전부터 한산도로 함께 출가물질을 다녔다. 출가물질을 갈 때에는 방 하나를 빌려 다른 두 명의 언니들과 함께 지냈다. 아침을 먹고 8시나 9시에 배를 타서 전복을 ‘트고’, 소라와 성게를 잡는다. 소라와 전복을 잡지 않을 때에는 호미로 미역과 우미를 뜯어 왔다. 그렇게 잡은 미역을 양식장에 가서 나무로 길게 넣어 말리고 서른 개를 한 단으로 하여 충무시장에 팔았다. 미역은 그 당시에 돈이 되었는데, 이를 팔아 쌀과 양식을 샀다. 출가물질은 대부분 음력

2월에 가서 추석이 되기 전에 왔다. 출가물질을 가서 번 돈으로 친구들과 가족들에게 줄 선물도 사고 결혼을 하기 위한 자금도 마련하였다.

1969년에 면수동에서 결혼을 하여 그 해에 첫아들을 낳았다. 25세에 아이를 가진 상태에서도 물질을 하였다. 임신 중 물질은 힘들었지만 아이를 낳기 전까지는 계속 물질을 하였다. 면수동에서 삼남매를 낳고 길렀다. 아이를 기르며 물질 작업도 하려니 힘들었다.

윤 씨는 다양한 곳으로 출가물질을 다녔다. 한산도와 두미도, 그리고 울산 등과 같이 제주도와 가까운 남해 지역으로 물질을 다녔다. 24세까지 육지로 출가물질을 다니다가 26세에 첫아이를 낳은 후, 아이를 데리고 두미도로 출가물질을 다녀왔다. 그곳에서는 곤포(다시마)를 호미로 잘라 채취하였다. 곤포는 미역보다 더 깊은 곳에 있다. 물질을 하는 동안 배를 운전하는 선주가 아이를 돌보아주었다. 그렇게 두미도에서 3개월 동안 물질을 하다가 아이가 자꾸 울어서 예정보다 일찍 제주로 돌아왔다. 결혼하기 전까지는 출가물질을 많이 다녔지만 결혼을 한 후에는 전처럼 출가물질을 다니지 못했다. 그러나 최근 3년 전에는 서해안으로 해삼을 잡으러 3월에서 4월까지 한 달 간 안흥에 다녀왔다. 지금도 해녀들은 출가물질을 많이 다닌다. 출가물질이 돈이 되므로 김녕 지역의 많은 해녀들이 일본을 세 달 동안 다녀온다고 한다.

20세기 육지에서는 남성들이 밖에서 일을 하고 여성들은 가정살림을 도맡았다. 그러나 윤 씨와 같은 해녀들의 삶으로부터 제주여성들의 생활력을 엿볼 수 있다. 제주여성들은 집안일은 물론 물질과 밭일과 같은 생산활동을 하며 능동적으로 집안의 경제를 지탱하는 것에 기여하였다. 윤 씨는 임신 중에도 차가운 바닷물에 들

어가 물질을 하여 생계 유지를 하였다. 이러한 제주여성의 능동성 및 근면성은 현재 제주도를 키운 밑거름이라고 볼 수 있다.

상군해녀의 물질생활

보통 물질을 나가면 아침 8시에 물에 들어가서 12시에 나온다. 물질을 하며 성게를 잡은 경우, 물에서 나와 성게를 까는 작업을 하다보면 4시가 된다. 성게를 까면 조합에서 바로 와서 가져간다. kg 당 얼마의 돈을 받는다. 해산물을 반찬으로 직접 먹으려고 하더라도 일단 무게를 다 재고 난 후에 집에 가져가서 먹는다.

한 달에 물때는 두 번이 있다. 한재기, 한물, 두물, 서물, 너물, 다섯물, 여섯물까지 총 7일 동안 두 번의 물때로 한 달에 2주 동안 물질을 할 수 있다. 그러나 14일 모두 물질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물때가 오더라도 바람 방향에 따라서도 물질을 나갈지 말지가 결정된다. 바람이 불지 않을 때에는 물질을 최대한 많이 하지만 파도가 센 샛바람이 부는 날 같은 경우에는 물날이 캄캄하여 물때가 오더라도 일주일을 다 못한다. 물때가 아닌 나머지 날들은 밭일을 한다. 최근에는 당근을 재배한다. 그러나 비가 오는 날에는 밭에도 갈수가 없어 집에서 쉰다. 집에서 쉴 때는 주변에 사는 면수동 해녀들과 한 집에 모여 얘기도 하고 음식도 같이 먹으며 시간을 보낸다.

물소중이에서 고무옷까지

물질을 나갈 때 사용하는 것은 테왁, 납벨트, 그리고 오리발이다. 당시에는 물질을 나갈 때 입는 물소중이, 물적삼, 물수건 등의

의복을 모두 까만 원단을 사서 직접 만들었다. 예전과 달리 새로 나온 고무옷은 작업 시간을 늘려주었다. 고무옷이 나오기 전, 물소중 이를 입었을 때에는 추워서 30분도 못 있다 나왔지만 고무옷을 입으면 따뜻하다. 그래서 고무옷을 입기 시작한 후로부터 3시간 이상 들어가서 물질을 할 수 있게 되었다. 물안경도 바뀌었다. 예전에는 족쇄눈을 사용하였는데 고무옷을 입기 시작하면서 훨씬 커진 쇠로 된 왕눈이 나왔다.



윤미자 씨의 고무옷과 테왁

윤 씨와 같은 해녀들에겐 물질을 위한 옷이 있다. 물소중이는 입고 벗기가 편하며 옆트임이 있어 품을 조절할 수도 있다. 물적삼은 물소중이 위에 입는 흰 무명옷이며, 물수건은 바닷속에서 형클어지는 머리카락을 정돈해 주는 역할을 하였다. 해녀들은 고무옷이 등장하기 전까지 이러한 의복을 입었다.

이후 1970년대 초부터 해녀들은 일본에서 들여온 ‘고무옷’이라고 불리는 잠수복을 입었다. 개량된 잠수복은 해녀사회의 작업환경에 큰 변화를 불러일으켰다. 이 옷을 입게 됨으로써 장시간 작업이 가능해졌으며, 작업 능률도 크게 올랐다. 그러나 고무옷의 탄생이 안겨다 준 장시간 작업에 비례하여 해녀들의 건강 상태가 위험해지고 있다.

물질로 인한 건강상태

바다 밑이라는 환경에서 장시간 일하기 때문에 건강 상으로 어려운 점이 많다. 하루는 소라를 잡기 위해 물 밑으로 깊게 들어간 날, 귀에서 ‘똑’하고 소리가 났는데, 바다가 귀를 때려버렸다. 귀에서 고름과 진물이 나오며 계속되는 통증으로 인해 작년에 제주대학교병원에서 귀 수술을 받았다. 수술 후에 통증이 완화되기는 하였으나 그때 다친 귀로 인해 깊은 곳까지는 잠수하지 말라는 의사의 진단을 받았다. 지금도 약을 계속 복용하는 중이다.

고무끈에 연철을 많이 차서 허리가 너무 아프다. 물속에서 자유롭게 움직이기 위해 연철을 허리에 차고 물질을 하는데, 자신이 단련된 것에 따라 연철의 무게가 결정된다. 50kg가 덜 되는 몸무게에 3.5kg의 연철을 지는데, 물질 하는 동안 계속 연철을 차고 있어야 하므로 허리가 많이 아프다. 또한 바다 깊이 들어갈수록 산소부족과 수압의 영향으로 조업을 마친 뒤에는 만성두통에 시달린다. 바다에 갈 때마다 병원에서 쳐방받은 뇌선과 멀미약을 하나씩 가져와 물에 들어가기 전 복용한다. 50~60대에는 상군해녀가 될 정도로 물질을 잘 하였다. 그러나 나이가 드니 밭에 가는 것도 지치고 물질을 하면서도 특히 숨을 참을 때 체력적인 어려움이 따른다. 3년 전에는 기억하는 것도 잘 했는데 재작년부터 잊는 게 많다.

물속에 들어갈 때는 숨을 참고 들어가 해산물을 채취하기 위해 물 안을 돌아다닌다. 소라를 한 손으로 잡고 다른 쪽 손으로 크게 물살을 헤치며 빨리 물 위로 올라가려고 한다. 물 위로 올라가 ‘호이~ 호이~’하는 숨비소리를 내면 그 동안 참았던 턱까지 차오른 숨을 쉰다. 숨비소리를 내면 마음속이 매우 시원해진다.

특별한 잠수 장치 없이 숨을 참고 물속에 들어가는 해녀들은 나아에 따른 체력부족과 건강문제를 안고 있다. 우선 바다 밑에서 해산물을 채취하기 위해서는 바다 안에서의 수압을 견뎌야 한다. 이 과정에서 해녀들은 귀 질환에 노출되기 쉬우며 자연스레 두통이 따라오기 마련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해녀들이 자주 병원을 찾지 못해 이러한 증상이 악화되기 쉽다. 대부분 7m 이상 잠수를 하게 되면 고막에 무리가 오는데, 윤 씨도 바다 밑의 강한 수압으로 인해 귀에 이상이 생긴 것이다. 또한 물질에 따르는 통증을 줄이기 위해 보통 해녀들은 물질을 하기 전 뇌선을 필수적으로 복용한다. 이 약은 아세트아미노펜과 카페인으로 이루어진 가루 형태의 해열진통 소염제로 고된 물질을 하는 해녀들의 필수품이 되었다. 그러나 뇌신 복용에 따른 발진, 구토, 식욕부진, 현기증과 더불어 장기 복용으로 인한 중독 증세 등의 부작용은 늘 해녀들의 건강을 위협하기도 한다.



해녀들이 복용하는 약, 뇌선

1970년대 이후로 해녀들이 잠수복으로 입는 스펜지 형태의 고무옷은 부력이 있어 ‘연철’을 몸에 매달아야만 잠수할 수 있다. 허리에 두르는 무거운 연철은 허리에 큰 무리를 주어 해녀들은 허리 통증에 시달리기도 한다. 특히 해녀들의 평균 나이가 60~70대인 점을 고려해 본다면 많은 체력을 요구하는 물질 작업이 고될 수밖

에 없다. 고무옷이 작업시간을 연장시켜 주기는 하였지만 물질 시간이 늘어나며 과로 및 위장장애가 문제가 되었다. 뿐만 아니라 고무옷으로 인한 피부 알레르기 등의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다양한 물질 환경과 바다생물

현재는 큰덕여, 벌러진여, 숨은여, 조즌여, 망치통 등으로 물질을 다닌다. 큰덕여 바깥쪽으로 억산여까지가 물건이 제일 많이 나온다. 망치통, 조즌여, 숨은여와 같은 가까운 곳에서는 우미가 많이 나서, 요즘은 이 쪽으로 물질을 많이 다닌다. 샛바람이 부는 날에는 파도가 세기 때문에 물날이 캄캄하여 물질을 하지 못한다. 그러나 제주시 쪽에서 오는 하니바람이 불 때면 주의보가 해제되고 물 밑이 고와(밝아) 소라작업을 한다. 주로 소라, 성게, 밤생이, 우미, 오분자기 물질을 한다. 호미를 사용하여 돌구멍에서 물건을 따온다.

수심	바다생물
0~10m	미역, 갈래곰보
0~5m	굴, 붉은 잎, 우미(우뭇가사리)
2~15m	전복
2~5m	구쟁기(소라)
10m~	심해문어
0~20m	오분자기, 조개
0~10m	톳, 해삼
5~8m	참돔, 농어, 방어, 갈치
3~7m	오징어, 놀래기

바다의 수심에 따른 해양생물

최근 2~3년 동안 바다오염이 심해졌다. 예전에 비해 해녀들이 잡을 수 있는 해산물의 수가 많이 줄었다. 한때 소라와 밤생이(검은 성게)가 다 죽어버렸다. 예전에 소라의 수가 급격히 줄었던 적이 있었는데, 이제는 다시 소라가 조금씩 보인다. 성게도 그 전에는 많이 죽어버렸는데 금채기간인 올해 여름에는 또 성게가 많이 났다.

바다의 수심에 따라 분포하는 해양생물은 매우 다양하다. 해녀들은 보통 물속 20m 깊이까지 잠수할 수 있다. 사실 물속에 7m 이상 깊이 들어가면 수압의 영향을 크게 받아 귀의 고막이 아프기 마련이다. 그러나 해녀들은 이를 극복해낼 수 있다고 하는 자신감이 있으며 바다의 수심에 따라 달리 분포하는 다양한 해산물을 채취하기 위해 이를 감수하며 바닷속으로 깊게 잠수한다.

물질 도중 돌고래를 만나는 경우도 종종 있다. “돌고래를 만나면 우리가 무서워. ‘배알로, 배알로!(배 아래로, 배 아래로)’하면 돌고래가 물 밑으로 쑥 내려가. 그때는 우리가 돌고래에 놀라 테왁으로 가서 가만히 있지”

윤 씨가 동료 해녀들과 보았던 이 돌고래들은 남방큰돌고래로, 2013년 대한민국 남방큰돌고래 방사사건으로 인해 크게 화제가 된 제돌이, 삼팔이, 춘삼이와 같은 종이다. 이 종은 제주 연안에만 서식하는 고유종으로, 현재 백여 마리밖에 남지 않은 ‘보호대상 해양생물’이다. 이렇듯 해녀들은 물질을 하며 희귀한 해양생물들을 이따금씩 접한다.

해녀들은 마을 바닷속 지형, 시간에 따른 조류의 흐름과 더불어 해양생물의 서식처를 인지하고 있다. 계절에 따른 해양생물의 생육과정과 채취시기를 바탕으로 자연과 공존하는 물질을 하는 것이다. 변화무쌍한 바닷속을 오랜 경험으로 몸으로 체득해 얻은 지식

은 제주해녀들에게 전승되고 있다. 금채기간을 엄격히 지키며 물질에 임하는, 즉 자연을 정복하려는 태도가 아닌 자연과 공존하려는 해녀들의 태도는 존중받아야 마땅하다.

물질은 나의 삶

물질을 할 때 혼자만은 가지 못한다. 다른 해녀 친구들과 같이 가서 소라를 잡아온다. 혼자는 무섭기 때문에 매번 함께 한다. 물질을 준비하려 바다에 내려갈 때도 그렇고 물질을 끝내고 집으로 돌아올 때도 마찬가지다. 가끔 바다에 다니다 보면 방어가 보인다. 물바닥에 있는 방어를 호미로 ‘콕’하고 잡아, 탈의장에서 해녀 친구들이랑 김치찌개를 해 먹으면 맛있다.

현재 해녀 수는 많지 않다. 젊은 사람들이 물질을 한다고 하면 우리야 좋다. 해녀를 하기 위해서는 우선 어촌계에 가입을 해야 한다. 때로는 힘들지만 물질은 나의 낙이고 나의 삶이다. 특히 큰 소라를 잡을 때가 가장 기쁘다. 바다 밑에서 소라를 잡아, 두 손에 잡은 소라를 들고 물 위로 올라올 때 무척 기쁘다. 돌 아래 있는 큰 문어를 잡을 때도 기쁘다. 물질을 통해 잡은 해산물을 보면 성취감과 보람을 느낀다. 해녀를 그만두고 싶은 생각은 없다. 힘이 될 때까지 물질을 계속하고 싶다. 적어도 80살 때까지는 계속 물질을 하고 싶다. 해녀의 가치는 크다.

물질 자체는 개별적인 작업이지만 협동이 필요하다. 윤 씨가 말하였듯, 해녀들은 항상 무리를 지어 바다에 나간다. 서로에게 의지하며 바다에서 언제 발생할 지 모르는 위험에 더 잘 대처하기 위함이다. 또한 해녀회를 조직하여 공동작업, 어장 관리, 영등굿 등의

해녀생활에 관련해서도 공동으로 의사결정을 내린다. 해녀들의 강한 공동체 정신은 그녀들을 더욱 빛나게 해준다.

넓은 바다를 특별한 장치 없이 들어가 전복, 소라, 미역 등을 채취하는 물질을 직업으로 삼는 해녀들은 그들만의 바다에 대한 이해와 애정이 담겨있다. 윤 씨는 50년이 넘도록 해오던 해녀생활에 강한 애착이 있다. 바닷속에서 펼쳐지는 윤 씨를 포함한 해녀들의 여정은 아름답다.

<참고문헌 및 출처>

2015 제주해녀문화 국제학술심포지엄 자료집

공동체 의식으로 바다밭을 일구는 제주해녀, 좌혜경, 제주발전연구원 제주학센터(2012.10.15)

http://newsplus.chosun.com/site/data/html_dir/2012/10/15/2012101500799.html

해녀의 옷과 도구, 제주특별자치도해녀박물관(2014.10)

https://www.culturecontent.com/content/contentView.do?search_div=CP_THE&search_div_id=CP_THE001&cp_code=cp0420&index_id=cp0420_0077&content_id=cp042000770001&print=Y

해녀 vs. 놀신, 이한영 제주해녀문화보존회 대표(2012.05.02)

<https://www.jeju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293163>

<이미지>

‘내성’이라고 불리던 약(藥) - 큰 가방(2014.04.27)

<http://cfile207.uf.daum.net/image/273BBA3F535C98461753A2>

제주 평대 어멍의 삶

세화고등학교 1학년 고진현



- 주술자 : 부미숙
- 나이 : 1958년생(59세)
- 고등학교 : 제주시 주자읍 평대31
- 현거주지 : 제주시 주자읍 평대31
- 면담자 : 고진현
- 면담일시 및 장소 : 10월 16일, 자택

제주도에서 경남까지

부미숙 씨는 1958년 평대리 중동에서 2녀 중 둘째로 태어났다. 어릴 때 어머니가 자꾸 밭일을 시키곤 하셨는데 하기가 싫었다. 때마침 부 씨의 친구들이 자기는 물질 배우러 육지 올라간다 하니 밭 일을 하기 싫은 부 씨는 자기도 가겠다고 친구들과 함께 따라나서 겠다고 친구들에게 무작정 말했다. 그때 어머니께서 “너 한 번도 배워본 적 없는 물질을 가면 할 수 있겠느냐?”하고 물어보았다. 부 씨는 우렁차게 “할 수 있수다!”하고 며칠 후 육지로 떠날 즈음에 어머니가 처음 물질을 해서 돈을 벌지 못할 가능성이 높은 부 씨를 위해 좁쌀 서 말을 챙겨주었다. 그 나이가 19살이었다.

경남에서 5개월

부 씨는 19살 3월에 경남으로 갔다. 처음으로 바다에 배를 타고 가 물질을 하였는데 오리발을 신었지만 영 익숙지 않아 벗었다가 말았다가 오리발과 실랑이를 여러 번 한 끝에 해삼을 발견해 잡았다. 하지만 다른 해녀들과 달리 부 씨는 작은 것만 잡아왔다. 사공이 부 씨가 잡은 수확물을 장부에 적어주긴 하였지만 거의 모든 해삼들을 바다에 던졌다. 하지만 3일 동안 계속 그러니 사공이 “제주의 집에 가야 되겠네”라고 말하였다. 그때 부 씨는 화가 나 다음 날 현직 해녀들이 하는 것을 물 위에서 살펴보았다. 현직 해녀들은 큰 해삼들만 잡아오고 한 번에 손가락 사이사이에 끼어 10개, 많으면 12개씩 잡아오는 것이었다. 그것을 유심히 관찰한 부 씨는 현직 해녀들과 똑같이 따라하며 점차 잘해나갔다. 또한 부 씨를 집에 가라

고 했던 사공도 칭찬을 하며 “제주의 집에 안 가도 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렇게 부 씨는 경남에서 5개월 동안 40만 원을 벌었다.

다시 제주도로

8월 달에는 해삼이 추워서 돌 틈에 들어가 나오지 않는다. 해삼도 잡히지 않다보니 돈을 벌 수 없었다. 그래서 부 씨는 추석 겸 어머니를 뵈러 다시 제주도로 돌아왔다. 40만 원을 벌고 온 부 씨는 어머니께 10만 원짜리 흑백 텔레비전을 하나 장만해 드렸다. 흑백 텔레비전은 동네에 하나밖에 없었지만 부 씨가 하나 장만해 드린 후로 동네의 텔레비전은 2대가 되었다. 텔레비전을 사고 남은 돈은 어머니가 모아주었다. 부 씨 어머니는 부 씨한테 “또 갈탸?”라고 물어보았다. 부 씨는 “예”라고 대답하고 속으로는 ‘어차피 여기 있으면 밭에서 일만 할 테니 가부려야지!’라는 생각을 하였다. 부 씨는 5년 동안 그렇게 경남에서 제주도로 오기를 반복하였다.

25살 결혼

부 씨는 25살에 결혼을 하였다. 하지만 남편은 살림에 전혀 힘을 보태지 못했다. 돈을 벌어야 하기 때문에 부 씨는 뱃속에 아이가 있는 상태에서도 물질을 하였다. 첫째와 셋째가 뱃속에서 제일 고생을 많이 했는데, 셋째의 경우는 낳기 전날까지 물질을 하였다. 셋째는 낳고 나서도 추워서 그런지 일주일 동안 눈을 뜨지 못했다고 한다. 첫째는 당근밭에서 일을 하다가 신호가 와서 집으로 가 낳았다고 한다.

첫째, 둘째, 셋째를 혼자 돌보기에 경제적으로 힘든 부 씨는 아 이들에게 쌀밥을 못해주고 당근밥을 해 주었다고 한다. 둘째는 아 침에 반찬이 없어 밥을 물에 말아 집에서 직접 담근 된장을 밥에 얹 어서 먹어 학교에 등교했다고 한다. 첫째는 거의 독립을 하고, 거 의 둘째와 셋째랑 같이 살았는데 가끔 성게를 까주러 해녀 탈의장 에 오곤 하였다. 둘째는 심성이 착해 잘 도와주긴 하였지만 사춘기 아들 셋째는 남의 시선을 부끄러워 해 부 씨의 속을 썩이곤 하였다. 그렇게 고생하던 부 씨는 42살에 막둥이 넷째도 낳았다. 넷째는 다 른 형제들보다 유독 잘 먹고 잘 큰 편이였다. 둘째는 학교에서 남는 우유들을 가져와 넷째를 먹이기도 하였다.



손녀를 보다

둘째가 결혼을 하고 어느 저녁에 사위에게 전화가 왔다. 둘째가 아이를 출산했다는 소식이었다. 부 씨는 아이를 출산했다는 말에 기뻤다. 가끔 둘째와 사위, 손녀가 제주도에 내려오면 성게, 소라,

문어를 가지고 요리를 해주곤 했다. 손녀는 성게국을 매우 좋아해 냉장고 한켠에는 언제 올 지 모르는 손녀를 위해 성게 알이 있다.

식지 않은 열정, 여전히 물질을 하다

저번 물질 때 파도에 휩쓸려 돌에 부딪혔는데도 병원에 가지 않았다. 막둥이 넷째가 아직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고, 아픈 첫째를 위해 돈을 벌어야 했다. 저번에는 팔이 저려 새벽에 일어나기도 했다. 특히 천초(우뭇가사리) 작업이나 감태를 할 때 더욱 더 팔이 아팠다. 아무리 몸이 아프더라도 돈을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벌어야 하기 때문에 계속 물질을 한다. 넷째가 어느 날 부 씨한테 물어봤다. “엄마! 엄마는 물질 언제까지 할 생각이야?” 부 씨는 “너 대학 보낼 때 까지 할 생각이여”라고 말했다. 넷째가 물어보았다. “엄마 바다가 좋아, 밭이 좋아?” 부 씨는 “당연히 바다가 좋쥬”라고 했다.



제주도의 해녀는 제주도의 역사이다

세화고등학교 2학년 정현비



- 주술자 : 오순자
- 나이 : 1944년생(73세)
- 고향 : 서귀포시 성산읍 신양정
- 현거주지 : 서귀포시 성산읍 신양정
- 면담자 : 정현비
- 면담일시 및 장소 : 9월~10월, 자택

“그때는 공부를 안 하니까 열다섯에 처음 물질을 배웠 바당에 들어갔주”

우리 할머니는 나이 15살에 처음으로 ‘망아리’를 달았다. 해녀가 된 것이다. 수심이 얕은 바다에서는 미역이 많이 보였지만 물질을 하는 게 처음이여서 미역을 따지 못했다. 그때는 지금 해녀들이 입고 있는 ‘고무옷’이 아니라 ‘물옷’이라고 하는, 보통 하얀 천으로 된 옷을 입고 하얀 수건을 머리에 쓰고 물질을 했다. 그 옷을 입으면 고무옷과 달리 물이 맨살에 닿아 매우 추워 가뜩이나 미역을 잡지 못하는데 더 잡지 못했다. 따뜻한 평상복과 고무옷이 없었기 때문에 음력으로 2~3월에도 겨울이나 마찬가지로 추웠다.

해녀들의 추위를 달래주기 위한 시설은 하나였다. ‘불턱’이라고 돌로 높게 둘러쌓아 가운데에 태울 만한 것들을 모아 불을 쬐는 곳이었다. 젖은 물옷 때문에 너무 추워 불턱에 다 같이 도란도란 모여 앉아 몸을 녹이다가 따뜻할 만하면 다시 물속에 들어가고, 추우면 다시 또 불턱에 모였다가 다시 물속에 들어가고… 이를 2~3번 반복했지만(바다 먼 곳까지 배를 타고 가서 왔다가 갔다가 하면 날이 저물어 있었다) 여전히 미역은 손에 잡히지 않았다. 겨울에도 마찬가지였다. 추워도 덜덜덜 떨면서 물질을 계속했다.

이러한 생활이 몇 개월 동안 계속 되고 이제 미역을 딸 줄 알게 됐다. 그때 이후로 3년이 지나 이제 능숙한 해녀가 되어 있었다. 미역도 많이 따고 그 미역으로 돈도 벌었다.

할머니의 가족은 어머니, 아버지, 동생 4명, 오빠 2명, 총 8명이었다. 형편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오빠 한 명은 공부를 하니까 아버지는 이를 받쳐주기 위해 제주도에서는 돈벌이가 잘 안 됐던 밭농사라도 하셨다.

“우리 어명은 막 잘해. 물질도 잘하고 고기도 막 많이 잡아오고
작살로 쏘아가지고 제사 때 하기도 하고 팔기도 좀 하고”

그때 당시 제주도에서는 여자가 가장이었다. 농사를 할 만한
환경이 아니었기 때문에 거의 유일한 경제활동은 물질이었다. 우
리 할머니의 어머니도 물질 잘하는 해녀 중의 한 분이셨다. 바구
니에 소라나 전복을 한가득 잡아와도 지금은 비싸지만 그때는
1,000~2,000원밖에 안 했다. 할머니는 이러한 경제형편을 도와주
기 위해 계속해서 물질을 했다.

19~20살 되는 해에 처음 육지로 가게 되었다(그때도 고무옷이 나오
지 않았다). 육지에 있는 섬에 배를 타고 다니면서 물질을 하고 전복
도 따고 우뭇가사리도 따고 톨도 땄다. 전복도 많았지만 1kg를 줘도
2,000~3,000원 밖에 못 받았다. 그래서 육지에 가서도 돈을 많이
받지 못했다. 육지에서 번 돈이 20~30만 원이라고 하면 많이 번 셈
이었다(지금 돈으로 100만 원 정도라고 한다). 그렇게 3~4개월 동안 물질을
하면 경양호라는 배를 타고 성산항으로 도착한다. 하지만 얼마 안
있어 또 경양호를 타고 돈벌이를 하러 육지로 올라간다.

22살 때부터 인솔자가 되어 육지로 가는 해녀를 12명쯤 모집해
서 전주(배의 주인)에게 소개도 시켜주었다. 인솔자였기 때문에 돈을
꽤 많이 벌었다고 하셨다.

그렇게 쭉 살다가 23살에 경찰관이었던 할아버지와 결혼을 하
게 되었다. 그때부터는 육지로 가지 않고 인솔하는 것도 그만두었
다. 하지만 4년이 지나고 할아버지가 경찰을 그만두게 된 이후부터
또 할머니는 바다에 발을 담그게 되었다. 하지만 여전히 소라나 전
복의 값이 좋지 않아 돈벌이가 마땅치 않았다. 그래서 많은 소라를
지고 성산포에 있는 성산항 근처에 위치한 큰 간스미(통조림) 공장에

걸어가서 팔기도 했다.

30세가 되어가면서 해산물의 값이 조금씩 오르기 시작했다. 부산항에서 성산항으로 가끔씩 오는(할머니는 ‘야매로 다니는’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셨다) 배에 소라를 싣고 육지로 나가 조금씩 팔았다.

그러다가 35세 되는 해에 큰 객선을 마련해서 그 배로 장사를 다니기 시작했다. 하룻밤은 바다 위에서 지내고 다음 날 아침에 팔고 또 다시 바다 위에서 자고 제주도에 돌아왔다. 그 해에 육지에서는 미역값도 제주도에서보다 더 비싸게 팔 수 있게 되었다. 비행기도 한번씩 등장했었다. 하지만 할머니는 “우리 같은 사람들은 뭐 비행기는 가망도 없었지. 돈이 없으난 그런 거 탈 가망이 없어”라고 하셨다. 지금이니까 너도 나도 비행기를 타고 다니지만 그때 그 시절에는 부유한 집에서만 탈 수 있는 것이었다. 그래서 할머니는 배를 타고 오고가며 해산물을 팔았다. 어떤 사람들은 자그만 배를 타고 다녔다.

이후에 부산에서 성계를 받는 사람이 와서 팔고 그중에 솜(말뚱성계)도 많이 팔렸다. 지금은 1kg에 얼마씩 하지만 그 시절에는 1관(3.75kg)에 얼마씩 해서 팔았다.

40살이 되니까 일본사람들이 성계를 많이 먹어 수출을 해서 점점 비싸져가고 소라 등 다른 해산물들도 함께 비싸져갔다. 일본에 가는 해산물들은 무조건 비쌌다(물론 일본에도 해녀가 있었다). 제주도 해녀들은 대마도에 가서도 물질을 했다.

할머니는 자식들이 커 가니까 물질을 더 열심히 했다. 그때도 여전히 물질을 하다 추우면 앞에 말했던 불턱에 모여 몸을 녹였는데 중심에 있는 화덕에 숨비기(바다 옆에 있는 나무)를 꺾어다가 장작을 대신해 태웠다. 따뜻했지만 연기가 많이 나서 얼굴이 새까맣게 변

했다. 지금은 화장품이 있어서 팬찮지만 예전에는 화장품이 없었다. 화장은 시집 갈 때나 할 수 있었다. 머리도 매일 감을 수 없었다. 갑자딱비누라고 1000원에 3개씩 받았다. 그 시절에는 비쌌다. 그래서 깻잎으로도 머리를 감았다. 이렇게 제대로 씻을 수가 없어서 머리랑 옷에 이가 버글버글했다. 하지만 바다에 물질하러 다니는 사람은 이가 없었다. 할머니 말로는 바다가 짜서 이가 몸에 못 살았다고 한다. 하지만 어린애들은 이가 많아서 챙빗으로 관리를 했다. “그때 사는 거는 참 삶도 아니다”

갈옷도 그때 생겼다. 제주에는 감나무가 많이 있었는데 제주감은 작고 씨가 많아 식용보다는 염색에 많이 쓰여 갈옷을 감으로 색을 입혔다. 그래서 ‘감옷’이라고도 불린다. 지금은 감은 적게 쓰고 색소로 색을 입히겠지만 그 당시에는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처음 만들었을 때는 색깔이 노래서 예뻤지만 계속 바닷물로 빨다 보면 검은색으로 변했다. 그래서 흙이 묻어도 세탁하지 않았고 땀나면 조금씩 헹궜다. 물도 안 좋아서 잘 못 씻는 제주도 사람은 육지에 가면 사람 취급을 못 받았다. 그래서 “제주 독(닭) 새끼 독 새끼”라고 불렸다. 하지만 할머니는 “지금은 제주도 사람이라고 하면 막 달라붙어서 따라오고 왕대우를 해줘”라고 하셨다. 그만큼 제주도 사람의 인식이 많이 좋아졌다는 것 같다.

한편 제주도에서는 속된 말로 여자는 일하고 남자는 놀았다. 여자는 부끄러운 것도 모르고 가족들을 먹여 살리는 데 바빴다. 할머니보다 더 일찍 물질을 시작하신 분들은 눈(물안경)도 쓰지 않고 바다에 들어가 손을 더듬으며 전복이나 소라가 잡히는 대로 잡았다.

한 일화가 있다면 4·3사건이 일어났을 때 남자들을 잡아가는 사람들이 할머니 집을 찾아 할머니의 아버지를 데려가려고 했었

다. 근데 제주도에는 화장실 밑에 똥돼지라고 제주 재래 흙돼지가 사는 우리가 있었다. 그 돼지는 화장실 밑에서 똥을 먹으며 살았다. 그래서 돼지우리 안은 똥으로 가득 찼고 냄새가 지독했다. 할머니의 아버지는 살아야겠다는 의지로 돼지우리에 들어가 돼지 사 이에서 숨을 죽이고 숨어있었고, 잡으러 온 사람들은 그곳에 있으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고 돌아가 할머니의 아버지는 살아나셨다. 6·25전쟁 때도 갖가지 방법으로 살아 남으셨다고 한다.

이제는 제주도에 관광객도 많아지고 해산물도 일본에 수출하면서 값이 오르고 ‘해녀의 집’이 생기면서 관광객들이 찾아와 적당한 경제활동이 가능해졌다. 고무옷도 생기면서 어촌계에서 해녀들에게 고무옷을 무료로 제공해주고, 병원에 가도 해녀는 진찰이나 주사를 맞을 때 돈을 받지 않고 큰 병원도 웬만하면 돈을 받지 않고 있다. 하지만 해녀는 점점 줄어드는 추세이다.

한국 해녀는 일본 아마와 여러 면에서 다르다. 일본 아마는 봄과 여름에만 잠수할 수 있지만 한국 해녀는 찬 물에 잘 적응해 겨울에도 물질을 한다. 한국 해녀의 한랭 적응 능력이 얼마나 뛰어난지는 미군이 먼저 인정을 했다. 미 공군은 저체온증 극복비결을 찾기 위해 한국 해녀를 연구했다고 한다. 자력 잠수도 다른 점이다. 한국 해녀는 맨몸으로 물안경, 테왁, 그물주머니 등 단출한 물질도구만으로 해산물을 채취하는 전통방식을 고집한다. 까만 고무 잠수복을 입기 시작한 것도 얼마 되지 않았다. 1970년대 이전까지는 하얀 무명 저고리와 까만 물소중이만 입고 바닷속으로 뛰어들었다. 뛰어난 물질 기술 뒤에는 질긴 생명력과 모성애가 숨어있다. 우리나라는 이런 해녀를, 우리 할머니들을 지켜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물의 아이

제주사범대학부속고등학교 2학년 고준혁



- 구출자 : 차지아
- 나이 : 1983년생(만34세)
- 고향 : 서귀포시 성산읍 삼달항동
- 현거주지 : 서귀포시 성산읍 삼달항동
- 연락자 : 고준혁
- 연락일시 및 장소 : 8월 13일,
김영갑(가톨릭) 1호 가게로

도시는 삭막하다. 맞다. 삭막하다. 그 삭막함 속에서 사람들은 꾸역꾸역 어떻게든 하루를 버티며 살아간다. 도시는 우리를 속박하고 우리는 아랑곳 않고 살아간다. 뉴스에서 여러 도시 사건들이 들려올 때 웬지 모르게 쓸쓸한 마음이 든다. 이렇게 우리는 아무리 환경이 삭막해도 어떻게든 살아간다. 하지만 그것도 어느 정도여야지 이게 일정 한계수치를 넘게 되면 deep blue 상태에 빠지게 된다. 내 이야기를 조금 해 보자면 나는 슬럼프라면 슬럼프라고 칭할 수 있을 수 있는 기간을 보냈다(훗 끝장시마). 그때는 정말 쓸 데 없는 것에 많은 상처를 받았다. 정말 평범함이라는 단어는 지독한 단어다. 그때는 나의 평범함에 몇 날 며칠을 우울한 상태로 지냈다. 난 이 정도에서 더 성장할 수는 없는 걸까? 정확히 책 ‘언제 들어도 좋은 말’을 읽은 직후에 이 증상은 발발하였다. 정말 고통스러웠다. 이석원 아저씨가 쓴 산문집 ‘보통의 존재’에서 나오는 “이 이야기는 어느 날 자신이 한낱 보통의 존재에 불과하다는 섬뜩한 자각에서 비롯되었다”라는 문구에 진심으로 공감이 갔다.

그때는 정말 별짓을 다했다. 다시 생각해보니 부끄러운 고백이었지만 바꿔서 생각해 보면 이게 다 현대 modern city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이처럼 도시는 우리에게 삭막한 감정을 주는 존재이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도시를 떠나고 싶은 충동을 느끼게 된다. 필자가 인터뷰를 한 채지애 해녀님도 마찬가지였다. 도시에서의 삶이 너무 생각 이상으로 각박하다보니 다시 제주도로 내려와 해녀라는 직업을 선택하셨다. 여기서 잠깐 필자가 인터뷰 대상자로 왜 채지애 해녀님을 선택하였는지 그 이유를 밝혀보자면, 조금은 색다른 구술 채록을 해 보고 싶었다. 다른 학생들이 더 멋들어지게 해녀 분들의 연륜이 담긴 구술채록을 할 텐데 내가 굳이 비교

되게 똑같이 채록하는 것은 조금은 아닌 것 같았다. 그래서 필자는 조금은 젊은 느낌을 살려보려고 채지애 해녀님을 인터뷰 대상자로 선정한 것이다. 그렇게 채지애 해녀님으로 인터뷰 대상자를 선정하고 본격적인 구조를 잡아나갈 게 의외로(!) 손쉽게 만들어져서 내심 놀랐다. 웬지 이번 구술채록이 잘될 것만 같은 예감이 들었다.

인터뷰는 7월 즈음에 채지애 해녀님이 계시는 삼달리의 한 카페에서 진행하였다. 채지애 해녀님의 얘기를 들어보니 인터뷰하길 잘 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채지애 해녀님이야말로 현대 도시적인 여성의 표본이었다. 하지만 젊은 도시 여자로서의 삶이 순탄치만은 않았다. 그래서 과감히 모든 것을 내던지고 제주도로 내려와 해녀로 직업을 바꾸셨다. 이 전체적인 이야기 패턴을 들었을 때 많이 공감이 되었고 또한 존경스러웠다. 먼저, 그렇게 모든 것을 과감하게 내던지는 용기가 정말 인상깊었다. 내가 2년 전부터 꿈꿔 왔던 Begin again 정신의 표본이었기 때문이다. 나도 채지애 해녀님처럼 과감한 용기를 발휘할 수 있을까? 나도 언젠가 인생의 슬럼프가 왔을 때 과감한 reset 정신을 꺼낼 수 있을까? 지금 현재 상태로는….

하지만 채지애 해녀님은 달랐다. 그녀는 그런 정신을 꺼냈고, 지금은 당당한 해녀로서 멋있게 살아가고 계신다. 앞에서 언급했듯 도시는 우리에게 많은 도전과제를 주는 것 같다. 채지애 해녀님에게도 그 과제가 주어졌다. 대다수 우리들은 또 과제인가, 하고 체념하고는 마치 기계처럼 그것을 수행한다. 하지만 채지애 해녀님은 일단 한발짝 뒤로 물러났다(별로 도망을 찾다는 뜻이 아니다!). 그리고 조금 다른 각도로 그 과제를 수행하셨다. 이 때 필자는 인생이라는 문제의 풀이비법은 정형화되지 않았구나, 하고 깨달음을 얻었다.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그 진리를 잊고 살았다. 그래, 우리는 인생 문제

풀이를 마치 누가 시킨 듯이 같은 패턴으로만 해결하고 있었다. 한 템포 휴식 없이 우리는 불필요한 노력을 들였다. 인생이라는 재료를 다양하게 조리하는 것이 우리는 없다.

각설하고, 어쨌든 채지애 해녀님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인생에 대한 생각까지 얻을 줄은 꿈에도 몰랐다. 사실 필자는 인터뷰를 통한 구술의 목적을 도시의 화려한 여성에서 제주도의 해녀로 변모하는 과정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 하지만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그 방향이 바뀌었다. 물론 이 채록을 읽는 많은 독자 여러분들이 해녀라는 직업을 택할 확률은 필자가 생각하기에 그렇게 많지는 않다. 하지만 이 채록을 읽은 많은 여러분들이 그 정신을 얻었으면 좋겠다. Begin again, Reset, 과감한 시도들. 여담으로 채지애 해녀님은 강연을 하셨으면 좋을 정도로 훌륭한 인생을 살아오셨다. 필자가 존경하는 강연가이신 유수연, 김미경 강사님 못지 않게 훌륭한 강연을 하실 수 있다. 이번 채록을 하면서 느꼈던 가장 큰 내용이다. 끝으로 이 글을 쓰면서 지치지 않게 위로를 해준 빠공시대 강의와 나의 정신적 지주 유희열 님에게 감사의 뜻을 보낸다.

유의사항; 이제부터 본문의 내용에서 채지애 해녀님의 입장으로 글이 전개된다. 그래서 채지애 해녀님의 입장에서 글을 쓰므로 유의 바란다.

제1장 돌담길

나의 어린 시절을 회상해 보면 그렇게 순탄치만은 않았던 것 같다. 제주도의 한 바닷가 동네에서 태어났다. 하지만 아버지의 부재로 인해 집안은 그렇게 부유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어머

니가 거의 모든 일을 도맡아 하셨다(아니 그렇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나는 어머니가 성계를 까시거나 과수원에서 일을 하실 때면 나도 기꺼이 나서서 일손을 돋곤 하였다. 그 당시에는 굉장히 힘들었던 것 같았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생각해 보면 유년시절에 있었던 많은 경험들이 지금의 나의 밑거름이 되어준 고마운 시절이다. 그렇게 유년기 시절을 보내고 비슷한 패턴으로 학창시절을 보냈다.

특히 고등학생 시절에는 여느 고등학생들처럼 나의 진로에 대한 고민으로 시간을 보냈다. 도대체 나는 무엇을 하면 나다운 면을 살릴 수 있을까? 나만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 있을까? 이런 궁금투성이 속에서 나는 문득 피부미용 전공을 선택하게 되었고(그것은 저 말 한동안은었다), 대학도 제주도에서 피부미용 전공을 택하여 진학하게 되었다. 여담으로 지금 꿈이 없는 친구들이 있다면 괜찮다고 말해주고 싶다. 고등학생 때도 그렇게 특별한 꿈은 나에겐 존재하지 않았다. 하지만 거듭된 나 자신과의 대화를 통해서 그런 전공을 선택하게 된 것이다. 그러니 지금 꿈이 없다고 많이 속상해하지 말라고 말이다.

제2장 남산타워

대학생활 중인 21살 때 엄청난 기회가 내게 주어졌다. 바로 서울에 가서 실습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내게 주어진 것이다. 드디어 내가 서울로 올라가게 되는 것인가? 말로만 듣던 modern city의 표본인 서울로 가서 그 실체를 보게 된 것이다. 그렇게 부푼 마음을 품고서 서울로 가서 실습을 하였는데 그곳에서 ‘미용이다!’라는 마음을 품게 되었다. 서울의 헤어디자이너가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을

수 없었다. 자기 자신만의 개성이 담긴 미용실에서 성공한 디자이너의 삶이란! 정말 그땐 그렇게 낭만적이지 않을 수 없었다. 그래서 곧바로 유명 미용실의 직원으로 들어갔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다. 말단 직원으로 들어가서 흔히 말하는 진상손님이나 대하는 삶이라니(에다가 월급도 썼다).

그렇게 나의 낭만이 깨지는 순간이었다. 이게 미용실의 실체였던가. 그럼 내가 본 것은 무엇이지? 마치 트루먼쇼와 같은 허상의 존재였나? 심적으로 많이 힘들었다. 하지만 나는 포기하진 않았다. 내가 그토록 원하던 일인데 이렇게 한순간에 포기할 수 있을까? 포기하는 것은 프로답지 못한 자세이다. 그래서 오히려 더 이를 악물고 더욱 열심히 일에 집중하였다. 내가 좋아하던 것의 실체를 알게 되는 순간만큼은 잔혹하고 슬픈 경우는 없을 것이다. 그래서 많은 청춘들이 좌절을 하고 이 길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 사로잡히게 된다. 그리고 대다수의 경우에는 그렇게 간절한 꿈을 포기해 버리는 가장 슬픈 경우에 도달하게 된다. 하지만 이것만 명심하자. 꾹 참고 버티다 보면 낭만은 마치 이동하는 축제처럼 항상 힘들 때마다 그 대를 위로할 것이라.

그렇게 열심히 이를 악물고 달려든 결과 24살 때 드디어 정식 헤어 디자이너가 되었다. 정말 기뻤다. 역시 인생은 어떻게든 보상을 해주는구나. 하지만 영원한 기쁨만 찾아올 것만 같은 순간이 또 불행하게도 깨져버렸다. 인턴시절에는 고되긴 했지만 이렇게까지 심적으로 부담을 느낀 적은 없었다. 그 당시에는 아무리 진상손님이 난리부르스를 쳐도 화가 날 뿐 우울한 느낌까지는 그렇게 깊게 들어가진 않았었는데 정식 디자이너가 되니 갑자기 심적인 부담감이 깊게 들어왔다(스트레스는 당연히 있었다). 갑자기 왜 이러한 느낌이 들

까? 모든 일상이 무료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이 죄다 부질없는 존재처럼 느껴졌다.

이게 슬럼프라는 것일까? 차라리 진상손님을 상대하는 게 오히려 더 낫겠다는 생각도 심지어 들었다. 생각보다 슬럼프는 오래 갔다. 도시의 기운이 나를 축 처지게 만든 것이다. 이게 소시민적인 자세인가. 슬럼프가 지속되다 보니 나의 자존감도 하락세를 타게 되었다. 제발 누군가가 나타나서 나를 구원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무의미하게 보내면서 어느 순간 결혼을 하게 되었고, 아이까지 낳게 되면서 처음으로 헤어 디자이너가 내 길이 아닌가 하는 물음에 휩싸이게 되었다. 즉, 다시 말해서 현재 디자이너라는 직업이 고되다는 생각이 점점 더 심해지게 되었다. 그리고 둘째를 낳으면서 본격적으로 다른 직업을 생각하게 되었다.

생각해보면 나는 디자이너가 된 이후 너무 워커홀릭으로 살ا왔다. 무엇에 홀린 듯 미친 듯이 디자이너라는 일에만 몰두해 살아온 것이다. 하지만 어느 순간 문득 뒤를 돌아보니 느껴진 허무함이란, 너무 고독했다. 나만 열심히 달려온 기분이 들었다. 더 나아가 이제 이 도시의 삶이 만족스럽지 않다. 이 도시의 빌딩숲에 둘러싸여 살다보니 나를 기쁘게 만들기는커녕 오히려 나를 우울하게 만들었다. 왜 도시는 나에게 그렇게 열심히 살아야 한다고 강요하는 것일까? 나는 그런 도시에 반항하듯 편안한 삶을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제 이 도시를 떠나야겠다는 확신이 들었고 어떻게 할까 고민에 빠졌다. 그렇게 얻은 결론은 제주도였다. 역시 나의 고향 제주도로 내려가 편안한 삶을 살아야겠다. 그래서 과감하게 제주도로 내려가기로 결정을 내렸다.

이렇게 얘기하니 도시가 너무 안 좋다고 여기는 독자 여러분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간간이 위로가 되어 주었던 순간도 있었다. 언젠가 한 손님이 이것 좀 먹어보라며 김치를 선물해 주셨던 적이 있었다. 그 선물을 받은 순간 내가 여기에 이민 온 것도 아니지만 웬지 고향 생각이 많이 났다. 역시 한국의 김치는 대단하다. 많은 위로가 되어 주었다. 하지만 그런 위로의 순간이 있었음에도 이 도시를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방이 도시에서 상서가 심했던 때뿐) 좀 편안하게 살고 싶다는 생각이 새록새록 피어나 제주도로 다시 귀향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살면서 또 이런 순간이 있다. 내 길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나에게 도리어 고통만을 안겨줄 때, 더 나아가 꾹 참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상태로 나아가다가는 못살겠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 그럴 때는 내 마음의 소리에 따르라. 내가 그렇게까지 열심히 했는데도 그런 신호를 보내오는 것은 분명 마지막 경고이고 이를 따라라 한다. 꿈은 그렇게 고통스럽게도 바뀔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 청춘들이여, 과감한 시도를 두려워하지 말고 내 마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따라주기를 바란다. 여기까지가 나의 도시의 젊은 여성으로서의 삶이었다. 기쁜 순간도 있었고 상처를 입은 순간도 있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유년시절 못지않게, 아니 더 깊게 내 내면에 들어와 해녀가 된 지금 이 순간에도 힘들 때마다 그때도 그랬지 하고 위로를 하고 더 동기부여를 하여 더더욱 해녀일에 집중을 하게 된다.

감사했어 서울, 아니 modern city. 너는 나에게 상처를 많이 주었지만 동시에 너는 나에게 과감히 도전할 수 있는 용기도 주었어. 영원히 너를 잊지 않을게.

제3장 바당할망

그렇게 도시에서의 삶을 정리하고 본격적으로 짐을 싸기 시작했다. 과연 이런 선택이 옳은 것일까? 반신반의의 마음은 들지만 후회는 없다. 웬지 지금 벗어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다는 예감이 들었다. 그래서 떠나는 것이다. 그렇게 시간이 지난 후 드디어 제주도로 내려가는 날이 되었다. 부푼 마음을 안고서 제주도로 내려간다. 다시 돌아가는 나의 고향 제주도, 얼마나 다른 느낌일까? 정말 제주도는 나를 따스하게 보듬어줄까? 해답은 제주도로 내려가면 알 수 있을 것이다.

제주도에 도착하니 제주도의 따스한 햇살이 나를 보듬어주고 반갑게 맞이해 주었다. 웬지 좋은 일이 일어날 것만 같은 예감이 들었다. 이런 무조건적인 예감이 의심스러웠지만 괜찮다. 기분이 좋으니 장땡이지 뭐. 그렇게 들뜬 마음으로 제주도 고향의 어머니를 뵈었다. 어머니는 “뭣하러 다시 고향에 내려왔느냐?”라고 다그치셨지만 괜찮다. 나는 다시 그런 도시의 삶을 살라고 해도 자신이 없었으니까. 제주도에 다시 정착해서 살아가니 정말 이만큼 편안할 수가 없다! 너무 여유롭다. 도시에서는 절대로 느끼지 못했던 여유로움이다. 정말 좋았다. 이러한 여유로움이 지속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였다.

하지만 그것도 그렇게 오래가진 않았다. 인생이란 그런 것일까? 왜 이렇게 싫증이 많이 나는 것이냐? 사실 싫증은 아니다. 약간의 우울함이라고 정의내릴 수가 있다. 하지만 도시의 것과는 조금은 다른 우울함이었다. 이런 기분은 정말 처음이었다. 정말 뭐지? 너무 무료하다. 어쩌면 디자이너로서의 삶이 나았던 것은 아닐까? 내가

여기 온 것은 정말 잘한 선택일까? 나 아이도 있는데 이렇게 여유롭게 살아도 되는 것일까? 이런 딜레마들이 나를 사로잡았다. 제주도로 내려와도 딜레마는 여전했다(다른 종류의). 하지만 도시 때와는 다르다! 어떻게든 이것을 빨리 해결지어야만 한다. 내가 어떻게 고심 끝에 결정을 내린 제주도 행인де 이렇게 허무하게 끝낼 수는 없다. 하지만 딜레마는 나아지기는커녕 오히려 더 나를 붙잡았다. 그러면 서 딜레마는 나에게 이건 ‘잘못된 선택이야’라고 다그치기까지 하였다. 정말 싫었다. 내가 왜 제주도까지 와서 이런 딜레마를 겪여야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다.

그렇게 며칠 동안 이런 잡념들에 의해 헤어나오지 못하였다. 그러던 어느 날 정말 우연히 어머니와 다른 동료 해녀 분들이 물질하시는 모습을 지켜보게 되었다. 어떻게든 이 딜레마에서 조금은 잊고 싶었기 때문이었다. 아무런 생각없이 해녀 분들이 물질하는 모습을 바라보니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해녀 분들은 정말 자유롭다. 자유롭게 바닷속 모험을 하신다. 또 그러면서 엄격한 공동체 생활을 꾸준히 지키신다. 하지만 오해하지 말 것이 그러한 공동체 생활이 이상한 계급제도는 절대로 아니다(ex. 카스트 제도). 그렇게 엄격한 공동체 생활을 유지하는 이유는 개인행동을 하면 바다 생태계에 안 좋은 영향이 미치고 공동체에게도 큰 안 좋은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당사자 본인에게도 안 좋은 영향이 끼치기 때문에 해녀 분들은 철저한 공동체 생활을 유지하신다.

하지만 공동체 생활 내에서는 그렇게 자유롭고 여유로워 보일 수 없다. 해녀 분들은 정말 우아하게 바닷속을 헤엄쳐 다니셨다. 그 때 내게 갑자기 마음의 소리로 이런 이야기가 들려왔다. ‘해녀를 해라!’ 갑자기 이런 마음의 소리를 들었을 때 조금 당황하였지만 금세

마음을 굳혔다. 그래, 해녀를 해야 되겠다! 해녀가 돼서 나도 저 해녀 분들처럼 멋지게 바닷속을 모험하고 싶다! 그래서 그날 저녁 나는 어머니께 다짜고짜 해녀가 되겠다고 선포를 하였다. 물론 어머니께서는 큰 반대를 하셨다. ‘너무 힘들다’ ‘해녀들의 자존감이 의외로 낮은 수준이다’ 등등 많은 이유들로 해녀가 되려는 나를 적극 만류하셨지만 나의 다짐을 꺾을 수는 없었다. 이미 나는 도시에서 수많은 고난들을 겪었으니 괜찮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렇게 한 소녀의 거침없는 해녀 라이프가 시작되려고 하는 순간이었다.

조금은 두려웠지만 그래도 가슴이 뛰었다. 이렇게까지 가슴이 뛰었던 적이 있었던 적은 없었다. 아마 이것은 좋은 신호이겠지? 사실 내가 해녀가 되겠다고 마음먹은 배경에는 경제적인 이유가 없지는 않았다. 웬지 해녀 분들의 수입이 좋을 거라는 기대를 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가장 큰 이유는 역시 육아 부담이다. 이 아이들을 먹여 살리려면 이렇게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렇게 해녀라는 직업을 택하기로 마음먹은 직후 ‘어떻게 물질을 배울까?’라는 고민에 빠지게 되었다. 듣기로는 한수풀해녀학교나 법환해녀학교라는 학교가 있어 쉽게 배울 수 있다고 들었는데 웬지 나는 학교에서 배우는 게 조금은 싫었다.

왜냐하면 웬지 학교에서 배우고 난 후로는 해녀 분들과의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느꼈기 때문이다. 물론 해녀학교에서 배운 게 절대로 헛된 기술들이 아니다. 하지만 그것은 실천적인 내용이 조금은 부족하다고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나는 해녀 분들과의 소통을 위해서라고 독학으로 배우겠다고 다짐을 하고 무작정 해녀 분들이 가는데 나도 따라나섰다. 뭐 어렸을 때에도 곧잘 수영을 잘해냈으니 괜찮을 거라는 생각으로 뛰어들었다.

하지만 그것은 엄청난 착각이었다. 해녀들은 수압으로 인한 잠수병과 멀미 등으로 인해 진통제를 먹는 경우가 많다. 해녀마다 다르지만 많은 분들이 멀미를 앓을 때가 있다. 바다에 오랜만에 나갈 때는 멀미가 심해지기도 한다. 먼 바다에 나갈 때는 미리 약을 먹고 나가기도 한다. 이런 내용들을 전혀 모른 채 무작정 바다에 뛰어든 나는 엄청난 고통에 시달렸다. 머리가 어지럽고 멀미를 심하게 하였으며 심한 경우 구토를 하는 경우도 있었다. 완전 나의 착각이었다. 순간 나는 ‘포기할까’라는 생각도 들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웬지 지금 이렇게 허무하게 포기해 버린다면 다시 도시의 삶을 되풀이 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아니 어쩌면 더 심각한 상황에 놓일 수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도 들었다.

그래서 나는 오히려 더 이를 악물고 더더욱 열심히 물질을 익혀 나갔다. 조금만 더 노력해서 어느 일정 수준에 도달하면 다 괜찮아 질 것이라는 생각에 도시에서의 생활보다도 더 열심히 물질을 하였다. 그렇게 1년이 지난 후 지금은 물론 많이 미숙하지만 그래도 1년 전보다 장족의 발전을 이루게 되었다. 이게 일명 인간 승리의 현장이라는 것인가? 정말 뿌듯하다. 역시 인생은 이럴 때 도와준다. 내가 많은 청춘들을 바라보면 그들은 쉽게 포기해 버린다. 특히 그들은 자기가 좋아했던 것이 실은 가장 싫은 것이라고 판단해 버리고 포기해 버린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라! 인생은 절대로 그런 사람들에게 좋은 행운을 주는 것이 아니다. 포기하지 않고 어느 정도 일정 한계선까지 노력하고 그 선을 넘으면 그런 감정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다시 순수한 초기의 마음을 되찾아 더욱 열심히 그 일을 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 청춘들이여. 포기하지 마라. 언젠가 인생이 보답해줄 것

이다. 해녀가 되고난 뒤 제주도에 재정착해서 생긴 딜레마가 사라졌다. 그래 이거였다. 역시 나의 선택은 틀리지 않았다. 해녀생활을 하면서 경험한 많은 에피소드들이 생각난다. 상군해녀 분들이 얘기 해녀인 나를 정말 아껴주시며 먼 바다에 갈 때마다 늘 에스코트를 해주시는 일부터 돌고래를 직접 바다에서 만난 일까지, 정말 짜릿했다. 어머니께서 해녀는 힘든 직업이고 사람들의 인식에 의해 조금 자존감이 낮은 직업이라고 하셨는데 전혀 아니었다! 오히려 나는 도시에서 살았을 때보다 자존감이 더 높아졌고 힘들기는 하지만 바닷속 모험을 떠나는 낭만에 비하면 아무 것도 아니었다. 도시에서는 느끼지 못했던 자유와 여유를 마음껏 누리게 되었다. 정말 행복하다! 아직도 나는 해녀를 직업으로 선택한 것에 대하여 단 한 번도 후회를 한 적이 없다! 해녀는 힘들 거라는 많은 사람들의 만류들이 아직까지도 생각이 난다.

하지만 이제 그런 만류를 하는 친구들에게 당당히 말한다! 너도 해녀가 되어 봐! 얼마나 재미있는데! 도시에서는 절대로 느끼지 못하는 낭만을 마음껏 누릴 수 있다구! 이 글을 읽고 있는 독자 여러분들도 혹시 해녀가 되고 싶은 마음은 없나요?

제4장 행운을 빌어요

그렇게 해녀로서의 생활을 살아가다 보니 한 사건을 마주치게 되었다. 바로 다이버와 해녀와의 마찰문제. 이런 일이 생길 때마다 해녀에 대한 이미지가 나빠지는 것 같아 속상하다. 인터넷을 보면 사람들이 자랑삼아 채취한 해산물 사진을 올리는 걸 많이 볼 수 있을 것이다. 채취해서는 안 되는 시기에 채취해서 올리는 소라 사진

도 많이 보인다. 톳의 경우는 칼로 잘라서 채취한 것이 아니라, 아예 뜯어서 온 경우도 있다. 그러면 그 자리에는 톳이 자라지 않는다. 해녀들의 경우는 바다에 들어가서 아직 자라야 할 때인 물건들은 두고 나온다. 좀 더 키워서 잡아야 팔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취미로 바다에 들어가는 사람들의 경우를 보면 그런 인식이 많이 부족한 것 같다.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바다에 자원이 정말 부족하다. 어떤 해녀들은 물질하려 나갔다가 돈을 벌기는커녕 뱃삯으로 7,000원만 내고 오는 경우도 있다. 수익이 -7,000원인 셈이다. 해녀에게 있어서 물질은 취미가 아닌 생업이며 수산자원을 채취하는 이유 역시 재미가 아닌 생계를 꾸려나가기 위해서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길 바란다. 바닷가 어장을 안내하는 팻말에 해녀들에 대한 설명이 들어가 있으면 좋겠다. 지금은 그냥 법적 규정만 들이대며 바다에 들어가지 말라고 경고하니 거부감이 큰 것 같다. 해녀들이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 곳인지 등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면 일반인들이 좀 더 이해해 주지 않을까.

또 이뿐만이 아니라 사람들의 편견도 생각보다 심각한 편이었다. 잘 모르는 사람들은 해녀들이 웬만해선 신규 해녀를 받아들이지 않는 폐쇄적인 조직이라고 떠들지만, 물속에는 채취할 자원 자체가 많지 않다. 무작정 해녀를 받기는 했는데 먹고 살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면 누가 책임질 것인가. 해녀가 어떻게 바다를 일궈나가는지를 알려줘야 하는데 방송 쪽에서는 수입 등에 초점을 맞추고 과장하기 일쑤다. 그런 점들이 부각되어 나가다보니까 일반인들은 해녀가 돈을 많이 버는 줄 알고 있다.

내 경우에는 하루 몇 천원 번 적도 있었다. 간신히 애들 과자값을 번 거다. 최근 이런 상황들을 맞이하다 보니 뭔가 가슴이 아팠다. 해녀 분들이 자존감이 떨어진다고 말씀하시는 이유도 이해가 되었다. 그래서 나는 최근 새로운 꿈이 생겼다. 사람들의 해녀에 대한 편견이 사라졌으면 좋겠다는 꿈. 그걸 위해 더 열심히 해녀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공부하고 동시에 물질도 병행하면서 경험적인 측면의 접근으로 많은 대중들의 생각을 바꾸어 놓았으면 하는 꿈. 그래서 요즘은 강의에 대한 생각도 종종 해 보는 편이다. 강의를 통해서 대중들과 소통하면서 동시에 그들이 왜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었는지 하는 이유도 파악하고 ‘그 이유가 사실은 잘못된 것이다’라고 당당히 그 오류를 고쳐 해녀의 인식이 조금이라도 개선이 된다면 아마 지금의 해녀 분들은 좀 더 좋은 대접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먼 훗날, 한 20년쯤 후에는 물질을 병행해 강의를 다니면서 대중들과 소통하고 또 물질을 배우기를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물질을 가르치는 해녀가 되어 있을 것이다.

해녀의 편견이 없어지는 것, 이것이 지금 나의 인생의 목표이기도 하다. 이 글을 읽는 독자 여러분은 해녀에 대한 편견을 어느 정도 갖고 있는가? 이러한 편견을 잠시 잊고 한발짝 뒤로 물러서서 해녀 분들을 바라보자! 그러면 해녀 분들을 더 잘 이해하고 해녀 분들과 더 잘 소통할 수도 있을 것이다. 부디 독자 여러분들만큼은 이러한 점을 잘 인지하고 주위 사람들에게도 ‘해녀는 그런 직업이 아니야’라고 당당히 밝혀줬으면 좋겠다. 또 내가 청춘들을 바라보면 큰 꿈을 이루고 난 뒤 그저 그것에 안주해 버리는 경우가 더러 있다. 하지만 그래서는 안 된다! 결국 언젠가 또 슬럼프에 빠지게 되어서 다시 평범해져 버리고 결국 더욱 불행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큰 꿈이 이루어지면 우리 마음의 소리는 반드시 더 큰 꿈을 우리에게 제시해 준다! 그 더 큰 꿈을 인지하고 더 큰 꿈을 위해 노력한다면 더욱 다이내믹한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한 번뿐인 인생을 그렇게 무미건조하게 살 수는 없으니 말이다! 지금까지 나의 짧은 인생 이야기를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글로 써 보았다. 이렇게 쓰고 보니 뿌듯하다. 내가 그렇게 헛된 인생을 살아온 것은 아니었구나. 그것만으로도 정말 행복하다. 앞으로의 인생 모험은 또 어떻게 펼쳐질까? 물의 아이가 어른이 되는 순간 나는 어떻게 살아갈까? 아직은 모르지만 열심히 살다보면 답이 나올 것이다! 정말 재밌었다! 물의 아이.



에필로그 우리

분명 2016년 초반까지만 해도 내가 테왁이 등등이라는 동아리에서 활동하리라고는 정말 꿈에도 생각을 못하였다. 하지만 허성희 선생님의 적극 권유로 참여하게 된 이번 동아리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가입한 것에 대해 후회해 본 적이 없었다(설대 가시아 아니나)! 테왁이 등등 동아리 활동을 진행하면서 전에는 그렇게 크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던 해녀에 대해서 부족하지만 나름 깊은 수준의 이해를 하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 동아리는 이를 홍보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교내 홍보활동에서부터 한민족 네트워크 특별공연까지 정말 열심히 달려왔다. 힘들었지만 그래도 나름 재밌었다.

특히 이번 해녀이야기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굉장히 재밌었다. 사실 나는 그렇게 일대일 대면 인터뷰를 좋아하는 스타일은 아니다. 그래서 나에게는 이번 해녀이야기 자체가 모험이었다. 하지만 막상 인터뷰를 해 보니 채지애 해녀님의 깊이있는 가치관에 놀라 해녀 이야기를 하기를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또 이번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프롤로그에서도 잠시 언급했듯이 글의 형식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였다. 너무 딱딱하지 않고 도시적인 느낌과 젊은 느낌, 제주도 특유의 자연적인 느낌까지 다 담아보고 싶었다. 그래서 중간에 진행했던 글들을 다 처음부터 뒤엎고 다시 쓰기도 하였다. 처음에는 그런 판단이 정말 올바른 선택이였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다.

하지만 글을 완성하고나기 정말 만족스러웠다. 사실 나의 글의 목표는 어차피 다른 아이들이 더 멋들어지게 구술 채록문을 작성해 줄 것이기 때문에 나는 중간에 잠시 쉬어가는 느낌과 신선한 느낌을 동시에 주고 싶었다. 그래서 진행한 글이니 뭐 후회는 없다. 채지애 해녀님과의 인터뷰를 진행하고 또 글을 쓰면서 채지애 해녀님의 가치관이 유희열 아저씨의 노래 ‘우리’ ‘여름날’과 많이 닮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채지애 해녀님은 물의 아이로 어른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순수한 어린 아이이다. 또 채지애 해녀님

은 레일 위를 벗어나 멋지게 비상하기를 간절히 바라신다. 이러한 채지애 해녀님의 사고방식이 지금의 채지애 해녀님를 만드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듈다.

또 역시 유희열은 천재였다. ‘우리’와 ‘여름날’이 없었다면 이 정도 퀄리티의 글이 나오지도 않았을 것이다. 글을 쓰면서 많은 위로가 되었다. 채지애 해녀님이나 유희열 아저씨나 두 분 다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준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그들을 따른다. 나도 그런 긍정적인 에너지를 닮고 싶다. 후에 나도 강연을 하게 될 텐데 그때 많은 대중들에게 그런 긍정 에너지를 나누어 주고 싶다. 이번 글은 나의 인생 모험의 일부분이다. 다음에는 어떤 모험이 기다리고 있을까? 또 테왁이 등등의 활동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가장 고생하신 채지애 해녀님께 감사의 인사를 보내며 내게 글을 작성하면서 긍정 에너지를 준 유희열, 폐퍼톤스 등 많은 가수 분들의 공로에 감사를 보낸다.

ps. 이 글을 쓰게 해준 사대부고 테왁이 등등 동아리 정말 고마워요! 여러분과의 만남은 절대로 잊지 못할 거예요! 여러분도 저도 언젠가 멋진 어른이 되었을 때 다시 멋지게 만나요! 그럼 안녕~!

해녀 삼춘 뭐 햄수꽈?

제주사범대학부속고등학교 2학년 김은희



- 구술자 : 성경렬
- 나이 : 1946년생(91세)
- 고향 : 제주도 서귀포시 예래내동
- 현거주지 : 서귀포시 안덕면
- 면담자 : 김은희
- 면담일시 및 장소 :
1차 - 7월 26일, 열장
2차 - 9월 10일, 자택

해녀 삼춘의 짧은 시절 이야기

성정렬 씨의 어머니와 언니는 성정렬 씨가 물질을 하기 전부터 중문동에서 물질을 했다. 그래서 그 당시의 성 씨는 평범한 제주해녀처럼 15살 때부터 물질을 시작했다. 성정렬 씨의 어린 시절은 먹고 살기가 많이 어려웠다. 사는 것이 어려웠기 때문에 돈을 벌기 위해 우뭇가사리를 채취해다가 판 것이 시작이었다.

처음에는 물 깊은 곳에 들어갈 때 고막이 울려서 귀가 아팠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처녀들이 돈을 벌기 위해 물질하러 다녔던 것이 평범한 일이었기에 힘들어도 물질하러 다녔다.

해녀 삼춘의 출가물질 이야기

17살쯤 육지에 돈벌이를 할 기회(출가물질)가 있었다. 통영에서 하는 뱃물질이었다. 그런데 같이 물질 간 사람들이 성정렬 씨를 포함해 세 명이 제대로 못할 것 같다면서 같이 뱃물질을 가지 못하게 했다. 성정렬 씨는 그 당시에 17살이었고 나머지 두 사람은 18살이었다. 뱃물질에 같이 가주지 않겠다고 하자, 세 사람은 엎드려 콧물을 눈물을 흘리면서 막 울었다. 그러다가 성 씨도 모르게 잠이 들었다. 그 동네 근처에 사는 해녀들이 있었다. 배 타고 들어오면서 잠이 든 성 씨를 발견했다. 동네 해녀들이 어떻게 하다가 성 씨 일행이 콧물을 눈물로 얼굴이 범벅졌는가 물었고, 대답을 듣고는 해녀들이 자신들의 배에 오르라고 했다. 그 다음날부터 동네 해녀들의 배에 올라타 물질을 하기 시작했다.

그것이 계기가 되어 출가물질을 17살에서 25살까지 했다. 약 8

년 동안 했다. 먼 강원도까지 다녔다. 출가물질을 했던 곳과 시기는 성 씨가 통영에서 18~19살 때, 포항 대보(호미곶)로 미역물질을 갔다 오고, 에밀레종이 있는 경상북도 경주시 감포읍, 강원도 사천 동쪽에서 대부분의 출가물질을 하였다. 그곳에서 성 씨가 10,000원을 벌면 성 씨가 실제로 받는 뜻은 5,000원밖에 되지 않았다. 성 씨가 강원도 북부지방에서 물질을 할 때도 그 정도밖에 벌지를 못했다.

포항 감포에서 5년 정도 일을 할 때에는 중간에 떼먹는 돈이 얼마 되지 않았다. 포항 감포의 미역의 질도 좋았고 성 씨가 머물렀던 주인 분의 인심이 좋았다. 보통 그 당시에 출가물질을 가면 김치 같은 음식들은 번 돈으로 직접 사먹었어야 했다. 하지만 성 씨의 주인 댁은 김치를 나눠주었고 사먹을 필요가 없었다. 또한 물질을 하고 돌아와서 버스에서 내리면, 주인집 할머니가 와서 성 씨의 물건들을 직접 옮겨주셨다. 그래서 성 씨는 타지에서 버티며 물질을 할 수 있었다.

성 씨가 강원도 쪽에서 물질을 할 때, 주인이 어느 날 성 씨를 부르고는 이 동네에 좋은 사람이 있으면 시집 가라고 했다. 하지만 성 씨는 육지 사람에게는 절대로 시집을 가지 않겠다고 했다. 그 이유는 제주도에서 어머니가 혼자 살고 계셨기 때문이다. 성 씨가 육지로 시집을 하게 되면 성 씨는 혼자 살게 될 어머니가 너무 안타까웠다. 그때 어머니께서 “너의 인생은 너가 사는 거다”라고 말했지만 성 씨는 그 당시 돈이 풍족하지 못한 시절이었기에 성 씨 자신의 인생이라는 말의 의미를 깨닫지 못했다. 오로지 어머니만 안타깝다고 생각했다. 돈을 벌어도 어머니께만 돈을 보내주려고 했다. ‘육지에 살면 좋은 것이다’라고는 생각도 못했다. 살면서 가만히 생각해보면 ‘자신의 인생은 자신이 살아야 한다’라는 어머니의 말씀이 어머

니가 돌아가시게 된 후에야 깨닫게 되었다.

보통 출가물질은 정월(1월)에 가면 10월이 되어야 제주도로 내려온다. 미역까지 다 캐서 내려온다. 미역을 한 우리 정도를 주고 돈은 다음 해에 다시 가서 받는다. 결혼을 해도 그렇게 왔다 갔다하면서 출가물질을 했다.

가장 큰 차이점은 받는 돈이 많이 다르다는 점이다. 그 당시에 제주도에서는 미역 정도만 채취하고 소라는 중간(해녀라는 직업을 가진 중간기쯤)에서야 했다. 육지 가면 그것들의 값이 많이 나갔다.

제주도 해산물이 맛도 있고 질도 좋다. 소라를 예로 들자면 제주도는 씹을수록 맛이 난다. 하지만 육지 소라는 물컹물컹해 제주도 소라보다는 별로이다. 전복 또한 그러하다.



해녀 삼춘의 결혼 후 이야기

성 씨는 옛날에는 ‘사는 것이 사는 것이 아니었다’라고 한다. 예전에 아기 키웠던 얘기하자면 옛날에는 고구마를 많이 심었다. 고

구마밭에 가면 아기를 밭에 아무렇게나 놔뒀다. 성 씨의 아이는 어렸을 때 밭에 막 기어 다니면서 땅에 있는 지렁이를 막 빨아먹었다. 성 씨는 지렁이가 달달하고 담백하니 빨아먹었다고 생각한다. 성 씨는 아기를 스스로 크게 내뒀다. 성 씨는 일을 하고, 아이는 아이대로 컸다. 성 씨는 돈 벌기 위해 좁쌀을 팔려고 하면 아기들 잘 때 밤에 밖에 널어놔서 도리깨질(도깨질)을 하거나 밭로 고르게 했다. 그렇게 힘들게 살았다. 옛 시절을 회상하며, 성 씨는 제일 안타까운 점이 먹을 것 제대로 못 먹었는데, 지금 좋은 세상 누리지 못하고 옛날 사람들이 돌아가신 것이다.

변화하는 제주의 물질환경

작년쯤인가 올해 봄쯤 화순에 몇 학생들이 해녀를 하겠다고 온 적이 있었다. 그래서 화순 해녀들도 같이 물질을 가르쳤던 적이 있었다. 성 씨는 학생들이 물질하는 모습을 보면서 학생들이 해녀를 계속할 것 같다고 생각했지만 그 이후에는 오지 않았다.

최근에 화순은 한전 때문에 따뜻한 물이 데워져서 바다로 흘러 가기 때문에 소라도 다 죽고 톱도 나지 않고 있다. 또한 천초도 자라지 않고 있다. 돌멩이가 석회같이 되고 있다(백화현상). 따뜻한 물이 벌레를 더 많이 번식하게 해서 보말 안에 들어가 버리는 탓에 잡을 것이 많이 없다. 가끔 스쿠버다이버들이 바다에 들어가려고 할 때가 있다. 그럴 때, 스쿠버다이빙하는 사람과 해녀들과 다툼 적은 없는데 바다에 들어오려고 하면 해녀가 막기도 한다. 많이 따가지는 않는다. 스쿠버다이버가 자신들이 바다에서 스쿠버다이빙을 하는 것을 배우러 왔다고는 하지만 그 사람들도 해산물을 채취해 간다.

해녀 삼춘의 해녀옷 이야기

성 씨는 물소중이를 입던 시절부터 시작했다. 처음에는 물소중이에다가 하얀 적삼을 입었다. 중간 때쯤 가니 고무옷을 입기 시작했다. 물소중이와 고무옷에는 장단점이 있다. 먼저 물소중이는 외부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2시간 이하로 물질을 했어야 했다. 추위를 느끼면 나와야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고무옷은 겨울에 춥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물에서 오랫동안 물질을 해야 해서 몸은 더 피곤하다. 아무래도 다른 사람과 같은 양을 채취하려고 하려면 다른 사람들이 나오는 때에 같이 나와야 하기 때문에 물에 더 오래 있게 된다. 성 씨는 3시간만 하고 나오면 좋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4시간 정도 물질을 한다.

성정렬 씨가 해녀를 하던 초기에는 바닷가 주변에 돌로 둘러싸여져 있는 불턱을 사용했었다. 하지만 지금은 목욕탕이 있는 탈의장이 마련되어 있어서 해녀 탈의장이 예전의 불턱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그곳은 해녀들의 물질도구를 보관해 놓는 보관 장소로도 쓰인다.

물질을 준비하는 과정은 약 30분 정도 걸린다. 고무옷을 입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고무옷을 뒤집어 입는 것이다. 또 다른 방법은 안에는 얇은 스타킹을 입고 그 위에 고무옷을 입는 방법이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고무옷이 몸에 붙어 벼린다. 어떤 사람들은 그냥 입는 사람도 있다. 빗창과 눈과 테왁 등을 준비하고 납을 허리에 차면 준비가 완료된다. 옛날부터 쓰던 도구지만 몇십 년 동안 사용하다보니 익숙해져 불편한 점은 전혀 없다.



1. 오리발
2. 고무옷 안에 입는 옷
3. 물질용 장갑
4. 고무옷 보관
5. 테왁망사리

해녀의 전통

최근에는 해녀가 많이 없고 시들어가는 탓에 과거의 전통들이 많이 없어지고 있다. 3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3년마다 굿을 했었지

만 이제는 하지 않는다. 이 굿은 화순 바닷가에 있는 해녀 탈의장에 심방이 오고 해녀들과 어촌계 사람들이 음식을 올리는 방식으로 했었다. 언제부터 했는지는 잘 모르지만, 내가 화순에 오니 이미 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어도 사냐’를 부르면서 물질을 했었지만, 그 외의 노래는 부르지 않는다. 그리고 해녀 전설들도 전승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 대는 해녀의 전설을 잘 모른다. 아는 사람들은 알지만 모르는 사람이 많다. 옛날 전설을 많이 알고 계시던 해녀 분들이 돌아가셔서 거의 아는 사람이 없다.

해녀활동 지원시스템 이야기

옛날에는 고무옷이 터져도 입었지만 이제는 터진 옷을 잘 입지 않는다. 제주도에서 새 고무옷을 지어준다. 올해 고무옷을 만들면 다음 해에는 만들지 않은 사람에게 기회를 주어 고무옷을 만들게 한다. 2년에 한번 격으로 고무옷을 만든다. 나는 해선물질(뱃물질)을 자주 다니기 때문에 옷이 자주 헉다. 삼발이 속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 옷이 헐 수밖에 없다. 두 해에 한 번 해도 옷이 헐어버린다. 조금만 구멍(바늘구멍크기)이 나도 고무옷에 물이 들어온다. 여름에는 괜찮은데 겨울에는 물이 들어오면 춥다.

과거에도 단체생활(해녀회)을 했지만 가고 싶은 사람만 했다. 옛날에는 자주 다니지도 않았다. 옛날과 달리 조합(수협)에 출자로 이름이 올려져 있다. 이러한 점을 잘 모르는 사람은 화순 바다에서 해녀가 바다에서 채취하는 것을 제한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한다. 조합원으로 출자하기 때문에 만약 사람이 사고 나도 조합에서 1년에 보험처럼 5만 원 짜리 10만 원 짜리 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통해 조금 보상을 해 준다. 바다에서 일어난 일들만 보상해 준다. 조합에서 이러한 안전문제에 대해서도 신경써 준다.

해산물 판매한 돈은 그냥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일단 회장과 계장이 있다. 사무를 보는 사람이 있는데 조합에서 온다. 옛날 저울식이 아니라 앓는 저울을 사용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30kg을 따면 그 kg에 대한 전표(채취한 해산물 품목, 수량, 무게를 측정하여 기록한 종이)를 작성해서 준다. 그것을 가져와서 기록해 두고, 그렇게 하면 다음 물질할 때 수협에서 통장으로 보내준다.

화순에 할망바당이라고 있는데 그건 여름에 만든다. 매일매일 물질할 때마다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시기별로 만드는 것이다. 물때에 맞춰서 며칠날까지 할망바당을 유지한다는 식으로 한다. 할망바당이라고 따로 차별을 두는 게 아니라 우리 바당이니깐 모두 들어간다.

금채기간이나 물때일 때 도청에서 가끔 청소하고 씨를 뿐리라고 하면, 그때 물에 들어가서 청소하고 씨도 뿐린다.

해녀에 대한 인식 이야기

많은 사람들이 해녀가 돈을 많이 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잘못된 이야기이다. 운이 좋으면 많이 잡고 그렇지 않으면 못 잡는 것이다. 상군이 하루에 정말 열심히 해 운이 좋아도 50만 원도 벌지 못 한다, 그 정도 벼는 것은 아주 드문 경우이다. 하루에 타인보다 많이 번다고 한들 일주일에 3일 정도 다닌다. 옛날에는 매일매일 물질 다니고 시간만 나면 바닷가에 가서 물질하고 했다. 물때에 맞춰 가지 않았다. 지금은 단체생활이기 때문에 3일 하자고 하면 3일만

해야 한다. 요즘 많은 해녀가 나이가 있다 보니 바다가 세면 못한다. 과거에 비하면 돈을 많이 못 버는 것이다.

해녀하면 자신이 채취한 것을 마음껏 가져갈 수 있다는 인식이 있는 것 같다.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 지금은 어촌계가 있기 때문에 해산물을 팔고 싶으면 그곳에서 돈을 주고 가져와서 팔아야 한다. 이제는 마음대로 하지 못한다. 만약에 자기가 반찬으로 먹을 것이라도 몇kg 가져가겠다 언급을 하고 가져와야 한다.

***백화현상**; 한국의 연근해에서 이 현상이 처음 발견된 것은 1970년대 말이었는데, 이후 발생 범도가 높아지다가 1990년대 말에는 경상북도 영덕군과 포항·영일만 일대의 동해안으로까지 확산 됐다. 이로 인해 갯바위에 분홍색과 흰색을 띤 다양한 무늬의 흰색 물질이 달라붙어 전복·성게류 등 각종 어패류와 해조가 죽어가는 현상이 발생하는 등 동해 연안 저층의 해양 황폐화를 가속시켰다.

전문가들은 이 현상이 자연현상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억제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전세계적인 이상기온과 수온상승, 인공구조물에 의한 조류 소통 방해, 육지의 오염물질 유입 등 지구 환경오염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 네이버지식백과(두산백과)

***해녀와 백화현상**; 백화현상 등으로 자원은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는데, 나잡어업의 형태로 이뤄지는 조업은 고된 노동이면서도 수입은 줄어드는 상황이다. 해군기지 매립, 한전, 양식장으로 인해 바다의 백화현상이 일어나면서 점점 바다에 채취 가능한 해산물이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다. - 고창훈 제주대 교수(제주도민일보)

해녀 이야기를 쓰면서

나의 엄마의 고향은 해녀들이 많이 사는 바닷가 근처의 화순이다. 옆집도 해녀였지만, 나의 할머니는 해녀가 아니다. 그래서 엄마도 나도 해녀에 대해 잘 알지 못했고, 간간이 몇 개의 해산물만 알 뿐이었다. 테왁이 등등이라는 해녀 진로학술동아리에 들어가고 해녀에 대해서 글로 배우고, 해녀와의 만남에서도 공식적인 자리이다 보니 궁금증을 완전히 해소하기는 힘들었다. 하지만 이번 기회로, 할머니 옆집의 해녀 할머니(60년 경력)와 일대일로 대화할 수 있어서 단순히 논문을 읽고 다큐멘터리를 읽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고 볼 수 있었다.

처음에 글을 쓸 때 고민은 ‘어떻게 글을 써야할까’였다. 누군가의 삶을 기록하는 일이기에 어떤 식으로 작성해야 할까, 어떤 어투로 써야할까. 하지만 내가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해녀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의 삶을 타인에게 잘 전달해 주는 것이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해녀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 책을 통해서 해녀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해결할 수 있을까, 라는 고민을 했다. 그 고민에 대한 대답은 주변 친구들을 불잡아 놓고 해녀에 대해 이야기한 뒤에 궁금한 점을 물어보게 하는 것이었다.

그 과정에서 대다수의 학생들이 해녀의 소득 등 단순히 해녀의 자극적인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다큐멘터리 등 프로그램에서 많이 행해지는 악마의 편집이 된 부분을 단편적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이 조사는 작자가 속하지 않은 학교의 학생을 대상으로 하였음). 그 사실 때문에, 내가 평소에 해녀에 대해 궁금한 점을 해결하기 위한 질문들도 했지만, 해녀라는 직업을 거의 접해보지 못한 사람들(학생들)

에게 해 주는 재미있는 할머니의 해녀 이야기처럼 봐 주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문하고, 이 글을 작성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많은 학생들이 해녀에 대해 많이 관심을 가져 주었으면 한다. 이번 기회가 단순히 글을 쓰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이 직접 해녀의 삶에 간접적으로 경험한 것을 바탕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흥미를 이끌어 내는 것이 이 학생들이 쓰는 해녀 이야기의 주목표라고 생각한다.

제주바다의 별, 그리고 눈물

제주사범대학부속고등학교 1학년 황사빈



- 구술자 : 한기옥
- 나이 : 1940년생(77세)
- 고향 : 서귀포시 보목동
- 현거주지 : 서귀포시 보목동
- 연락처 : 황사빈
- 면담일시 및 장소 : 7월 30일, 자택

바다를 사랑한 제주해녀 한기옥 할머니

“바다가 좋았지, 뭐 다른 이유가 있겠나. 엄마를 따라 바다에 나가면 그 바다의 품이 얼마나 따뜻한 지 몰라. 한 겨울이어도 추운 줄 몰랐지”

바다를 사랑한 한기옥 할머니는 2남 2녀 중 장녀로 태어났다. 제주의 해녀가 그렇듯 할머니 또한 어머니를 따라 15살부터 물질을 시작했다. 거친 파도에 몸을 던지면 바다는 그렇게 할머니를 안아 주었다. 바다는 친구이자 삶이었다. 돌고래를 만난 적이 있었고 바다거북을 만난 적도 있었다. 때론 놀라기도 했지만 그들 또한 바다의 친구였다. 학교보다, 공부보다 바다 놀이터가 더 재미있었다. 그 때문에 할머니는 바다에 나오는 날이 더 많아졌다. 바다에서 놀다보면 시간 가는 줄 몰랐다. 배가 고프면 손 닿을 곳에 먹을거리가 널려있었다. 그 먹을거리가 동생들의 옷이 되고 밥이 되고 학비가 되었다. 이렇게 많은 것을 내어주지만 욕심은 큰 화가 되어 돌아온다고 했다. 욕심을 내는 순간 바닷속에서 숨을 참지 못하게 되고 그렇게 바다는 삶의 공간이 아닌 죽음의 공간이 된다는 것을 할머니는 귀에 못이 박히게 들어왔다고 하셨다. 어머니를 따라 놀던 놀이터가 어느덧 삶의 터전이 되었을 땐 할머니도 그때의 어머니만큼 자란 후였다.

출가해녀

“출가해녀는 일제강점기 때부터 있었지, 그놈들이 제주바다를 짹 쓸어갔거든. 살아야 하니 우리 어머니 때부터 일본으로 러시아

로 그렇게 출가물질을 갔지. 나는 60세 넘어서 그때서야 일본으로 출가물질을 갔던 거야”

출가해녀, 출가물질. 일본으로 건너가 감태와 우뭇가사리를 캐오는 것을 시작으로 할머니의 나이 60이 될 때까지 출가해녀는 여전했다. 몰래 배를 타고 먼 바다로 나가 물질을 하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이었다. 일본의 무분별한 남획 때문에 내 바다가 아닌 남의 바다에서 물질하는 것이 이해되지 않았던 한기옥 할머니는 이 상황을 바꾸고 싶었다. 직접 도지사를 만나 일본과 협약을 통해 바다를 지키고 해녀를 지키자고 이야기했다. 하지만 도지사는 어떠한 행동도 취하지 않았다. 결국 할머니는 삶을 위해 밀항을 택하셨다. 주머니는 채워졌지만 마음의 외로움과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채울 수 없었다. 할머니는 그렇게 6년 만에 다시 따뜻한 어머니의 품과 같은 제주바다로 돌아오셨다.



한기옥 할머니의 테왁

제주바다를 지켜라

“비가 온 날이면 바다에서 냄새가 났어. 물색도 달랐지. 바다 위에서만 냄새가 나는 것이 아니라 바닷속에서도 냄새가 났어. 한평

생 이런 일이 없었는데 무엇인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했지. 우리의 밭이잖아, 이 바다는. 그러니 우리가 지켜야지, 우리 바다인데”

비가 온 다음 날이면 유독 바다에서 냄새가 났다고 했다. 음식물 쓰레기 냄새 같기도 했고, 화장실 냄새 같기도 했다. 전에 없이 유독 냄새가 나서 바다에 들어가기조차 힘들었다. 우리 바다가 병들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할머니는 다른 해녀 할머님들과 함께 원인을 찾았다. 원인은 하수종말처리장이었다. 이곳에서 나온 폐수가 바다를 병들게 하고 있었다. 바다에 나가는 것보다 바다를 지키는 것이 더 중요했다.

마당에 풀이 무릎까지 올라오고 냉장고 속 음식들은 형체를 알 아볼 수 없게 변해갔다. 밥 먹는 시간 또한 아까웠다. 할머니에게는 바다를 지키는 일이 최우선이었다. 보목리 해녀회장이라는 직책 때문만이 아니었다. 이 바다는 우리의 삶이고 후손의 삶이었다. 자식 같고 손자 같은 경찰들과 악을 쓰며 싸워야 했다. 젊은 저 아이들과 싸워야 한다는 사실이 마음 아팠지만 지켜내지 않으면 다 잃을 것이라는 생각에 앞장서 싸울 수밖에 없었다. 최루탄의 매운 연기에 쓰러지기도 했다. 지금 생각해 봐도 그때 일은 몸서리치게 두려운 일이다. 하지만 할머니와 마을 해녀들의 노력 덕분에 이 바다는 지킬 수 있었다.

끝인 줄 알았던 싸움은 아파트 오수물 사건으로 이어졌다. 또 한 번의 오염. 사람의 이기심 때문에 또 다시 바다는 신음했다. 한번 싸워 봤으니 두 번 못 싸우겠냐는 마음으로 또 다시 앞장을 섰다. 비난하는 사람들도 많았다. 이기적이라고 했다. 할머니 또한 말했다. 내 바다가 아니니 지키는 것이라고, 선조에게 받았고 후손에게 물려주어야 하는 바다이기 때문에, 잠시 빌린 것이기 때문에 더

더욱 지켜야 하는 곳이라고. 결국 두 번째 싸움에서도 할머니와 마을 해녀들은 바다를 지켜냈다.

잠수병, 그리고 진통제

“물이 항상 들어가 있으니까 고막이 상해. 그래서 해녀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 사람들이 싸우는 줄 알아. 보통 목소리로 얘기하면 잘 안 들려.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이야기를 나누니까. 그래서 해녀를 억세다고 하나 봐”

제주해녀 할머님들의 대부분은 잠병을 앓으신다고 한다. 해녀의 직업병인 잠수병. “머리는 빙빙 돌고 구역질은 나는데 눈앞의 해삼 하나, 전복 하나가 어찌나 기분이 좋은지, 고맙기까지 했거든. 잠수병은 나만 겪는 게 아니고 우리 어머니도 그랬고 해녀라면 다 겪는 일니까”

제주에는 유난히 해녀 할머님들을 치료하는 병원이 많다. 그만큼 해녀도 많고 잠수병도 많다는 의미일 것이다. 할머니 또한 잘 들리지 않으시고 50세부터 약을 드셨다고 하셨다. 30년 가까이 약을 드시면서 물질을 그만둘 법도 한데 할머니에게 바다는 삶의 터전이자 놀이터 같은 곳이었다.

“우리가 아침에 눈 뜨면 밥 먹고 해 지면 잠 자는 것처럼 물질도 그렇게 일상인 거야. 다를 것도 없고. 이렇게 살다가 바다에서 눈감으면 그렇게 가는 것이겠지”

할머니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파도가 심하지 않는 날이면 거의 매일 물질을 하셨다고 한다. 할머니뿐만이 아닌 대부분의 해녀 할머니가 이러한 삶을 이어가셨다. 지금이야 제주도에서 병원비 지원

도 해 주고 고무옷 지원도 해 주기 때문에 나아졌다고는 하지만 해녀는 고무옷 하나와 물안경 하나 쓰고 테왁 들고 바다에 들어가는 사람이 아닌가.

신문기사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본 적이 있다.

“112명의 해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물질에 들어가기에 앞서 진통제와 같은 약을 먹느냐’는 질문에 전체의 85.7%가 ‘약을 먹는다’고 응답했다. ‘약을 먹지 않는다’는 응답자는 14.3%뿐이었다. 또 ‘현재 일상생활에서 어떤 병을 앓고 있느냐’는 물음에 근육·관절통이 40.4%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두통·어지럼이 25%, 심장질환 13.2%, 호흡곤란·폐질환 5.1%, 귀병과 골다공증, 위장병 등 기타 16.2%로 나타났다. 해녀들이 갖고 있는 질병은 대부분 오랜 물질생활에 따른 직업병으로 분석된다”

할머니의 말씀처럼 많은 해녀 분들이 직업병에 시달리고 계셨다. 세월이 많이 좋아져서 나라에서 병원도 지원해 주고 고무옷도 지원해 준다고 하지만 진통제 없이는 하루도 힘든 할머니의 삶은 바다만이 위로해 줄 수 있을 것이다.

부끄럽다며 사진 찍기를 거부하신 할머니의 발과 손은 상처투성이에 검게 변해 있었다. 하얀 내 손과 너무도 다른 할머니의 손은 해녀의 삶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증거와도 같았다.

저승에서 벌어 이승에서 쓴다 – 숨비소리

할머니의 물질터인 보목동은 세 구역으로 이루어져 있다. 한 구역당 25명의 해녀 할머니들이 함께 물질을 나선다. 평균 70세 고령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물질에 나서는 이유는 해녀의 명맥을 지키

기 위해서이다. 성계철이 되면 혼자 벌어 둘이 먹고 산다는 말이 생길 정도로 벌이가 좋다고 하신다. 그래서인지 파도가 심한 날이 아니면 늘 바다에 나간다고 하셨다.

“옛날엔 바다가 참 많은 것을 줬어. 전복도 많았고 성게로 제주 바다 밑이 까맣게 물들어 있었지. 우리 엄마가 물질할 때는 더 했다고 하셨어. 일본 사람들이 잠수부를 데려와서 싹 쓸어가기 전까지 만 해도 제주바다는 넉넉했지”

맨몸으로 물안경, 테왁망사리, 그렇게 단출한 도구를 챙겨 바다에 나가면 성게며 미역이며 톳이며 가득가득 그물에 담을 수 있었다. 운이 좋은 날은 주먹보다 훨씬 큰 전복을 잡는 날도 있었다.

“욕심 부리면 물숨을 쉬게 되거든. 봄부터 초여름까진 천초가 가득하지. 이때가 전복을 딸 때 욕심이 제일 많이 나. 이때를 다스리지 못하면 물숨을 쉬는 거야”

물숨이란 자신의 숨이 넘어서는 순간 바닷속에서 쉬게 되는 숨이다. 자신의 한계를 알면서도 욕심을 부리면 물속에서 숨을 쉬게 되는 것이고, 그 순간 물안경 가득 바닷물이 차 바닷속 저 멀리 멀어진다고 했다. 이 보고서를 쓰는 시기에도 3명의 해녀 할머니께서 목숨을 잃으셨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다. 스스로를 다스리고 스스로를 아프게 하면서 지켜나가는 것이 해녀의 삶이다.

숨을 참은 대가는 쌀이 되고 남편의 술이 되고 아이의 책과 연필이 되었지만 해녀에게는 한이 되었다.

“물숨이 우리의 숨을 끊어 놓는다면 숨비는 우리의 숨을 늘려 놓는 것이여”

“휘이익~” “휘이익~”

한기옥 할머니는 그렇게 슬픈 눈빛으로 숨비소리를 내셨다.

해녀와 유네스코 등재

숨을 쉬는 날보다 숨을 참는 날이 많았던 제주해녀 할머니들의 삶은 우리나라가 아닌 해외에서 먼저 인정받았다. 일찍이 우리 해녀 할머니들은 절박하고 질긴 생명력으로 바다를 누벼왔고, 중국과 일본은 물론 러시아까지 진출하여 잠수기술을 전수했다. 1960년대 미 공군은 바다에 불시착한 조종사들이 저체온증으로 곧바로 숨지는 것을 보며 한겨울 바다에서도 추위를 이기며 물질하는 제주해녀들을 연구하기도 했다.

우리나라는 제주해녀의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를 위해 2006년부터 많은 연구와 노력을 기울여왔다. 그 결과 ‘제주해녀 문화’는 지역문화적 가치를 뛰어넘어 21세기에 부합하는 경제학적 측면에 그 방점을 찍고 있다는 점을 찾을 수 있었다. 제주해녀들은 오랜 세월 해산물 채취로 생계를 꾸려오면서도 조직적으로 금채기 를 정하거나 일정 크기 이하의 어획물을 잡지 않고, 꾸준히 전복씨 를 뿌리는 등의 노력을 해 왔으며, 이를 어길 경우 자체적으로 조업 을 금지하는 제재를 가하는 등 바다자원 보호를 위해 꾸준히 노력 해 왔다는 점에서 우리 해녀문화의 가치를 엿볼 수 있다는 것이다.

현지사회에서 그 문화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고, 이를 지키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또 보편타당한 가치를 갖고 있느냐 가 유네스코 문화유산의 주요 심사기준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제주 해녀문화’는 이 조건에 완벽히 부합한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문화 유산 등재에는 걸림돌이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세계사람들이 우리 해녀를 오래오래 기억해줬으면 좋겠어. 숨 비소리가 세계에 알려질 수 있게”

해녀학교를 세우다

제주로 이주하는 사람이 늘고 해녀문화에 관심이 높아지면서 해녀가 되고 싶은 사람이 많아졌다. 그러나 막상 해녀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는 사람도 많지 않았다. 할머니처럼 물질을 가르쳐 주는 사람이 따로 없는 것이 문제였다. 그리고 넓고 넓은 제주바다 또한 마을어장이 존재하고 구역이 존재하기 때문에 해녀가 되는 일은 쉽지 않다고 했다. 한기옥 할머니는 그런 구조를 바꾸고 해녀학교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셨다.

“우리는 이제 나이가 많아 오래 물질을 할 수가 없어. 누군가 일을 이어가야 하는데 육지의 자식들을 부를 수도 없고 요새 사람들이 이렇게 힘든 일을 하려고 하지도 않아서 도지사를 찾아갔던 거야”

그렇게 생겨난 곳이 서귀포시의 법환잠녀마을해녀학교와 제주시의 한수풀해녀학교이다. 2:1에서 4:1까지 높은 경쟁률을 보이고 있으며 벌써 20명에 가까운 해녀들이 어촌계와 함께 활동중이라고 하셨다.

“아무나 해녀가 되는 것은 아니야. 마음이 통해야 해녀가 되는 것이지”

물질을 할 줄 알아도 어촌계의 허락이 없으면 해녀가 될 수 없다. 지역별 수협의 조합원이면서 그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만 가입이 가능한 게 어촌계이다. 그러니 해녀가 되고자 하는 이는 몇 년 동안 그 지역에 살면서 어촌계의 신망을 얻어야 한다. 지역에 따라 선 조합비를 내야 하는 경우도 있다. 어촌계 가입 뒤에는 관할 시 해양수산과에 해녀 신청을 해야 한다. 조업일수가 60일 이상이거

나 1년 채취 규모가 120만 원 어치가 되면 해녀증이 나온다.

“자기들끼리만 해녀 해 먹으려고 한다는 사람이 많아 규정이 까다로우니까. 하지만 누구나 다 해녀를 해서 사고가 나는 것도 문제이지만 바다가 사막이 되는 것도 문제니까. 지킬 것은 지켜야지”

“할머니, 저도 해녀가 될까요?”

“내 이기심에는 해녀가 늘어나면 좋지만 너무 힘들어, 예쁜 아가씨는 더 큰 세상을 봐야지. 높은 사람이 되어야지. 그래서 우리를 기억해 줘요”

할머니의 말씀이 어딘지 마음이 아파 억지로 웃음을 지으며 인터뷰를 끝냈다. 제주해녀는 우리가 지켜야 할 나의 엄마, 나의 할머니이다.

스스로 처절한 삶을 위로하려 노래를 부르고 안전을 기원하며 궂판을 벌인다.

이여싸나 이여싸나

너른 바당 앞을 재연

흔질 두질 들어가난

저승질이 왓다 갓닥

- 해녀노래 中에서

우리 할망, 바다 이야기

제주사범대학부속고등학교 2학년 홍지희



- 주술자 : 홍지희
- 나이 : 1949년(68세)
- 고장 : 서귀포시 신양동
- 현거주지 : 서귀포시 신양동
- 연락처 : 홍지희
- 면담일시 및 장소 : 9월 4일, 자택

이야기를 담아내며

해녀의 생애를 구술사의 형식으로 담아내는 활동을 한다고 처음 들었을 때는 그저 막막했다. 구술사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어떤 형식인지, 그 의미가 무엇인지 도무지 아리송했다. 그래도 우리에게 익숙한 주제인 해녀였기 때문에 편안하게 다가갈 수 있었고 내가 평소에는 전혀 들을 수 없었던, 외할머니가 살아온 이야기였기에 흥미로웠다.

구술사에 대한 설명과 그 채록과정과 방법을 듣고, 사실 별 거 아니라는 생각도 했었다. 어차피 인터뷰하고 그 말들을 글에 담아내는 일이니 그렇게 힘들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이다. 그러나 구술사를 적고 외할머니의 얼굴을 보며 그 시간의 조각 하나하나를 담고 이해하는 것은 어려웠으며 기억의 조각들은 무거웠고 그 깊이는 깊었다.

외할머니의 이야기를 듣다가 가슴이 먹먹해지기도 했고, 어느 순간 시간과 세월의 무상함에 젖은 할머니의 모습도 볼 수 있었다. 그리고 나중에야 내가 이야기를 담아가는 과정은 단순히 할머니가 말씀하신 내용을 필기하고 정리하는 작업이 아니라 할머니의 역사 를 이해하는 일이었음을 배우게 되었다.

나는 이번에 맡게 된 해녀생애사 채록활동을 통해 외할머니가 살아오신 바닷속 이야기뿐만 아니라 인생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리고 이 인터뷰 과정을 통해 그 분께서 걸어오신 삶에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나의 외할머니와 어머니뿐만 아니라 당당히 하나의 여성으로 꿋꿋이 살아오신 한 해녀의 이야기를 듣고자 한다.

할머니 물질 이야기

Q. 할머니는 평생 해녀로 살아오셨는데, 언제 물질을 시작하시게 되셨나요?

A. 15살 때였지. 우리 어머니도 해녀여서 나는 시간 날 때마다 어머니 따라 바다에 갔고 그게 오래되다 보니 나도 물질 배우고 해녀일 배우면서 물질하게 됐지. 가난하게 살아 공부도 못했고 배운 거 없으니 그냥 이 일을 직업 삼아 이렇게 살아 온 거지.

Q. 해녀일 하다보면 힘든 점도 많으셨죠?

A.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었지. 젊을 때는 젊은 대로 힘들고 나이 들면 나이 든 대로 힘들었어. 옛날에 나 시집 갈 때는 돈도 뒷도 아무 것도 없었고, 시댁 형편도 엄청 가난했어. 밑천도 없이 시집 가서 일 많이 했지. 내가 해녀 물질해서 번 돈으로 가족들을 다 먹여 살리는 게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 그래도 먹고 살아야하니까 일을 하는데, 내가 해녀 물질만 했으면 몰라, 밭에 가서 농사지으러 다니라 집안일 하랴 이 일 저 일 하려니 정신없고 힘들었지. 나중에 애들도 넷씩이나 생기니까 애들 먹이고 학교 보내서 공부시키려면 하루도 일을 쉴 수가 없는 거지. 그러다 오래 누우면 쌀값도 안 나오니까 또 바다에 나가고 여차저차 쌀 떨어지면 쌀장수한테 가서 쌀 외상도 하고 그랬어. 어떤 때는 친정에 가서 쌀 빌리고 올 때도 있었고. 이렇게 바쁘니까 몸조리 같은 거는 생각도 못하지. 일 놓으면 쌀 떨어질라 쉬지도 못하고. 왜 해녀들 노래 들어보면 애 낳고 금방 바다 나가잖아. 나도 첫째 낳고 열흘만에 일어나서 다시 바다에 들어갔어. 쉴 시간이 없었으니까. 그렇게 일해서 집 사고 밭 사고 그랬어.

그래도 이제는 오래 일했으니까 형편은 괜찮은데 나이가 들면 들 어갈수록 물질하면서 다치기도 하고 밭일도 하다보니까 여기저기 아픈 데도 많아지고 또 빨리 낫지도 않으니까 시내 병원 여기저기 다녀야 하는 게 불편하지.

Q. 할머니도 물질하다가 위험한 일을 겪거나 그런 일 들은 적 있으세요?

A. 올해도 2명이 그랬을 거야. 요즘에도 텔레비전에 나오고 그러지만, 예전에는 훨씬 더 많았어. 우리 동네 해녀가 사고 나서 죽는 일도 많았고. 그래서 이제는 오토바이 타고 해녀 탈의장 가면서도 마음속으로 빙지. 오토바이 사고 안 나게 하고 오늘 물질도 무탈하게, 조심히 끝나게만 해주십사하고. 나도 예전에 큰일 날 뻔한 적 몇 번 있었어. 날씨랑 파도랑 막 험해서 오늘은 쉴까 하다가도 집에 있는 애들 먹일 생각하면 일이 손에서 안 놓여. 그때 한 번은 날 안 좋고 파도 셀 때 들어갔다가 못 나올 뻔한 적도 있었어. 큰일 겪고 나서 다시는 저런 날 안 가야지 하면서도 또 막상 그런 날 되면 이번은 괜찮겠지 하고 그냥 들어가기도 하고 그랬어. 나이 들어가면서 몸이 예전 같은 것도 아니고 요즘 사고 나는 해녀들도 많으니까 그런 걱정이 더 들지.

Q. 그럼 해녀들도 따로 조심하는 것들이 있겠네요?

A. 옛날에는 굿이랑 제사를 많이 했어. 영등굿할 때 해녀들 같이 가서 남들 한 만큼만 잘하고 목숨부지해서 물으로 나오게 해 달라고 하지. 근데 요즘에는 굿 막 많이는 안 하고 각자 정성 드리고 그래. 요왕한테 오늘도, 내일도 무탈하게 잘 살펴 주십사하는 거지.

Q. 옛날에 불턱에서 해녀들이 쉴 때는 어떤 얘기를 나누셨어요?

A. 해녀들이 거의 다 자식들 있는 엄마니까 자식 생각 집 생각뿐이지. 불 쬐면서 오늘 별로 못 잡은 해녀는, 오늘을 벌이가 안 좋아서 찰을 못 살 것 같다고 걱정하기도 하고, 많이 잡은 해녀는 오늘은 그나마 편안히 애들 밥값 우유값은 할 수 있겠다, 하고 안심하기도 하지. 쉴 때나 끝낼 때는 다들 얼마나 잡았는지, 애들 학교 보내는 얘기하는 게 대부분이지, 뭐.

Q. 사람들이 옛날 해녀랑 지금 해녀를 볼 때 달라진 게 있나요?

A. 이제는 도에서 해녀한테 관심도 많이 가지고 해녀학교 같은 것도 생기니까 젊은 사람들이 하기도 하더라고. 이제는 텔레비전 다큐멘터리 보여주고 영화에도 나오고 그러니까 해녀를 전보다는 좋게 봐주는 것 같아. 예전만 해도 해녀하면 그저 힘든 바다일 하는 여자들로만 생각했었는데 요즘은 멋지다고 해주니까 속으로 으쓱하기도 하지. 예전에는 힘들기만 했는데 이제는 많이 찾아주고 알아주고 너네처럼 해녀 이야기 들어주는 학생들도 많고 해녀축제 같은 행사도 많이 하니까 해녀 물질하면서 뿌듯하기도 하지.

할머니 사는 이야기

Q. 할머니는 해녀가 되기 전에 무엇을 하고 싶으셨나요?

A. 그냥 뭐가 되고 싶다 이런 거보다는, 나는 학교를 더 다니고 싶었어. 초등학교도 채 졸업 못했으니까. 나는 지금까지도 공부를 할 수 없었던 게 제일 후회스럽고 또 서러워. 형편만 됐으면 물질이 아니라 공부해서 더 배우고 학교도 더 오래 다녀보고 싶었는데 말이

지. 나는 지금이라도 배울 수 있으면 더 배워서 남들 다니는 직장에
도 다녀보고 싶고 그래. 어릴 때에도 학교 못 다닌 게 섭섭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이가 많이 들고 보니까 그때보다 더 서럽더라고.

Q. 할머니의 어머니도 해녀였다고 하셨는데, 그 분을 볼 때는 어떤
느낌이었나요?

A. 우리 어머니는 65살 때까지 물질을 하고 70살 때 돌아가셨지.
지금이야 해녀들이 다들 50~60대지만 그때는 그런 해녀가 많지 않아서 그 나이면 꽤 나이 든 해녀였거든. 그래도 그때까지 일을 참 잘했어. 그렇게 우리 가족 뒷바라지하셨거든. 나처럼 다리 아파가면서도 병원 안 가고 억척스럽게 물질했지. 지금도 어머니 일했던 거, 해녀일 끝나고 막 아픈 거 생각하면 지금도 마음 아파. 나 어릴 때는 우리 어머니 물질하는 거 보고, 진짜 나는 절대 해녀물질은 하지 말아야지 했어. 내가 어릴 때 봐도 힘들어 보였으니까. 그래도 안 하겠다 하기 쉽지 않다가도 또 배우면 이거 진짜 못할 일이다 싶기도 했지. 나도 시집 가고 이 일 저 일하고 자식들 뒷바라지해 보니까 우리 어머니 생각도 나고 어머니도 참 대단한 사람이다, 하는 생각도 들어.

Q. 자식들도 물질했으면 하고 생각하신 적 있으세요?

A. 어휴, 나는 딸한테 물질하라고 말 못하겠더라고. 우리 어머니가 물질하는 것도 보기도 하고, 나도 한평생 이 일 하고 살았지만 이게 그냥 쉬운 일이 아니야. 진짜 저승 가서 돈 벌어다 이승 가서 쓴다는 말이 농담이 아니거든. 위험한 때도 많고 몸이 고단할 수밖에 없는 일이니까 말이야. 하루 5시간 물질하고 진짜 수십 번도 더 물 위,

물 아래로 왔다 갔다 해야 하고 겨울에는 그 추운 날 하려니 정말 고단하지. 그리고 아플 일이 많아. 나도 약을 진정제, 구심, 뇌선 이렇게나 먹어. 심장 아프니까 진정제 먹고 계속 물속에 들어가려니 머리 아파서 그 뇌선 같이 독한 약을 먹을 수밖에 없지. 이런 거 저런 거 생각해 보면 자식들한테 물질하라고 쉽게는 말 못하지.



느낀 점

나는 이번 학년 동안 해녀문화와 관련된 다양한 활동을 했었다. 해녀문화 탐구 동아리에서 해녀문화와 처음엔 미처 몰랐던 그녀들의 가치에 대해 깊게 배워보기도 하고 춤이나 노래에 대해서도 알게 되었으며, 내가 배운 것을 바탕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었다. 그 결과 해녀문화의 공동체적, 여성학적 가치를 깨닫고 반성했다.

그러나 이번 생애사 채록 활동은 내가 알아왔던 것과는 많이 달랐다. 외할머니의 생애사를 통해서 내가 본 것은 평범함 속에 녹아

있던 생생한 특별함이었다. 나는 채록한 이야기 속에서 내 또래 정도 나이의 어린 소녀를 보았고, 힘들고 긴 세월을 거쳐온 강인하면서도 억척스러운 어머니, 그리고 다시 현재의 시간을 끗듯이 살고 계시는 할머니를 보았다. 물론 내가 채록한 생애사는 해녀 한 명이 가진 평범하다면 평범한 이야기 중 하나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채록하는 나에게 있어, 그리고 그 이야기의 산 증인인 외할머니에게 생애사는 삶의 궤적이 담긴 세상에 하나뿐인 이야기였다.

어쩌면 평범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던 할머니의 역사는 나에게 생각 이상으로 짙은 여운과 세월을 느끼게 해주었다. 그래서 그 시간의 숨결이 소중하고 각별하게 다가왔다. 그리고 앞으로도 할머니의 생애사를 더 오래도록 듣고 싶다는 생각이 들만큼 인상깊은 시간이었다.

6남매를 훌로 키운 어머니의 힘, 해녀의 힘!

제주여자고등학교 1학년 강예진



- 구술자 : 김윤자
- 나이 : 초4학년 1948년 생(69세)
- 고향 : 제주시 구좌읍 세화리
- 현거주지 : 제주시 구좌읍 하도리
- 연담자 : 강예진
- 연담일시 : 8월 28일, 10월 20일

김원자 할머니의 출생과 교육

김원자 할머니는 8남매(4녀 4남) 중 장녀로 태어나셨다. 그 시절에는 1~2년 있다가 출생신고를 하는 게 대수로운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태어난 날짜는 정확하지 않다. 실제로 1946년생인데 동생과 같이 출생신고를 하면서 1948년으로 출생신고가 되었다.

할머니는 국민학교를 나오셨다. 그 시절에는 중학교까지 한 사람도 별로 없었다고 한다. 교복을 입는 지금과는 달리 치마저고리에, 고무신을 신고 학교에 다니셨다. 옛날에는 공부하는 것이 그렇게 힘들지 않았다면 ‘가갸거겨’ 같은 것을 배웠다고 한다. 기억력만 좀 좋으면 공부하는 게 힘들지 않았다면 과거를 회상하셨다.

첫 물질, 해녀의 시작

19세가 되는 해, 육지에 물질해 돈 벌러 가셨다. 구체적으로 통영 쪽에서 미역, 합자(홍합)를 잡고 충무에 가서 팔았는데, 다시 말해 첫 물질이 출가물질인 셈이다. 그 시절은 보통 18살에 육지에 돈 벌러 물질하러 나간다고 한다. 근데 본래 집에 일이 좀 많아서 19살이 돼서야 육지로 가셨다. 누구의 강요가 아닌, 남들 다 가는 것을 따라 일부러 돈 벌러 간 것이었지만 부모형제 다 떼어놓고 헤어지니까 마음이 슬퍼서 많이 우셨다고 한다.

특히 제주도에서 육지로 배 타고 떠날 때 ‘돌아와요 부산항에’라는 노래를 스피커로 해서 틀어주었는데, 그때 참 많이 울었다고 한다. 떠날 땐 그렇게 울었지만 올 때는 기분 좋게 돌아왔고, 그렇게 해녀의 길을 시작할 수 있었다. 지금은 괜찮지만 처음엔 육지의

물이 너무 깊어서 겁이 났다고 한다.

물질은 헤엄칠 줄만 알면 할 수 있다고 한다. 할머니의 경우 17살 때 헤엄을 치는 걸 배웠다. 육지는 4년 동안 4번 갔다 왔는데, 즉 22세까지 갔다 오신 것이다. 보통 봄철인 3월달에 출가 갔다가 추석 전 8월 쯤에 돌아온다고 한다. 육지에 갔다가 돌아와서는 그 당시 물소중이를 입었기 때문에 추워서 물질을 못한다고 한다. 지금은 고무옷을 입기 때문에 겨울물질도 가능하다고 하신다.

결혼, 그리고 엄마의 힘

김원자 할머니가 23세가 되었을 때는 지금의 남편을 중매로 만나셨다. 그때는 그냥 부모가 나가라고 하면 나가던 시대였다고 한다. 그리고 같은 해에 부모님의 권유로 결혼을 하셨다. 이때 고향인 세화에서 결혼하면서 하도리로 오게 되셨다고 한다. 결혼한 후로 할머니의 생활은 더 바빠지셨다. 물질뿐만 아니라 밭일도 해야 하고, 아기도 돌봐야 하고, 제사도 해야 하고 몸이 열 개라도 부족했을 것이다.

할머니가 38살 때, 남편이 37세의 나이로 돌아가셨다. 그때 가장 큰 아이는 중학교 2학년밖에 되지 않았다. 심지어 막내아들은갓 돌이 넘은 2살 때, 막내딸도 4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아버지의 얼굴을 모른다고 한다. 그래서 정말 힘들게 살았다고 하셨다. 남편 없이 홀로 해녀일과 당근밭 일을 하며 6남매 다 공부시키고 교육시키셨다. 아들이 아닌 딸들은 물질을 시켜봤을 법한데, 해녀일을 한 번도 안 시켰고, 심지어 다른 일도 거의 안 시켰다고 한다. 자신 같이 고생할까 봐 일도 잘 안 시켰다며 무조건 공부만 하라고 하

셨다. 할머니는 어렸을 때 공부를 못한 게 한이 되었기 때문에 자녀들은 전부 공부시켜 편안하게 만들어 주려고 무조건 공부만 하라고 하셨다. 덕분에 현재 6남매는 모두 대학을 나왔고, 직장을 다니고 있다. 학교에서도 할머니의 노력을 알았는지 자녀들 잘 키웠다고 어머니상을 수여했다.

심지어 물질을 하면서 자식들 교육 잘 시켰다고 노태우 대통령 시절 때 대통령상도 받으셨다. 하도리 마을 사람들도 자식들이 다 잘 졌고, 이렇게 부지런한 사람이 없다며 칭찬을 하였다. 바쁘지만 마을 부녀회장까지 도맡아서 했던 할머니를 보면 얼마나 부지런하고 바쁜 삶을 살았는지 알 수 있다.

이제는 편하게 사니까 그렇게 힘들게 살았던 게 생각이 잘 안 나신다면 행복하다고 하셨다. 그 시절에는 아이들 먹이고 입히고 하는 생각에 남편의 죽음을 슬퍼할 겨를도 없었다고 하셨다.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다며 자식들 생각밖에 안 했다고 말씀하셨다.

현재

현재 할머니는 중군해녀로 보통은 5~6m 정도 들어가며, 상황에 따라 10m도 들어갈 수 있다고 하신다. 한번 물에 들어가면 4시간 이상 작업한다. 지금은 곰옷(고무옷)을 입기 때문에 겨울에 견딜만 하지만 옛날엔 물소중이를 입었기 때문에 매우 추웠다고 하신다.

할머니가 지금까지 쌓아온 숨 참는 기술은 크게 없다고 한다. 숨을 참아야 무언가를 잡기 때문에 그저 들어가서 숨을 참는다고 한다. 특별한 능력과 재주가 아닌 무언가를 잡고 나와야겠다는 의지와 끈기가 숨 참는 기술이었던 것이다. 다만 숨 쉬지 않고 무언가

를 잡으면 기분이 좋아져서 올라오지만 만약 못 잡으면 힘이 빠져서 쉽게 지친다고 하셨다. 물속에서 딱 밖으로 나왔을 때는 심장이 두근두근하다고 한다. 그래서 숨비소리를 하는데 실제로 숨비소리 하는 것을 보여주셨다.

할머니는 우뭇가사리나 뭐 아무 거나 따고 그냥 돈 벌면 그게 보람차다고 하셨다. 해녀일 자체를 보람찬 일로 생각하시는 것 같다. 그래서 그런지 취미는 그냥 친구들이랑 놀다가 바닷가에서 물질하는 것이다. 할머니에게 위험한 일 또한 해녀라면 항상 겪을 법한 일로, 그냥 깊은 데 들어가는 것이라고 하셨다. 추가로 제주도엔 합자(홍합)가 잘 나오지 않는다면, 천초(우뭇가사리), 소라, 성게가 잘 나온다고 같이 말해주셨다.

그러시면서 전복을 캤을 때가 가장 기분이 좋은데 요즘은 전복이 잘 안 보인다고 한다. 예전에는 많이 보였었는데 이제는 바다가 오염돼서 보려고 해도 못 본다고 아쉬움을 나타내셨다. 또한 우뭇가사리는 5월달 끝나면 잡고, 그 후 성게와 천초를 같이 하다가 여름의 금채기를 지나 10월엔 소라를 잡는다고 말씀하셨다. 잡는 것에 크기 기준도 있는데 소라 7cm 이상만 잡고 잔거(작은 것)는 안 잡는다고 한다.

물질을 하면서 힘들 때는 파도칠 때라고 하셨다. 물속에 있어도 몸이 흔들려 힘들다고 하셨다. 또한 물속에 들어갔는데 물건이 안 보일 때도 힘이 든다고 하셨다. 힘들었던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그랬는지 지금은 금채기라서 빨리 물에 가고 싶거나 그런 건 없다고 하셨다. 오히려 조금 쉬었으면 한다고 하셨다. 노는 시간이 없다며, 어차피 밭에서 일하다가 바다에도 가고, 둘 다 한다고 한다. 그렇게 앞으로 잘하면 3~4년 정도 하지 않을까, 라고 말씀하셨다.



그림1



그림2



그림3



그림4

이 사진(그림 1)은 할머니의 ‘연철’로 7kg 이상을 차고 들어가신다고 한다. 다음 사진(그림 2)은 ‘오분자기 호맹이’로 추측되며, 소라, 문어, 성게를 끄집어낼 때 사용한다고 한다.

할머니의 테왁망사리(그림3) 중 하나만 찍은 것으로, 여러 종류의 크기의 테왁을 가지고 계셨다. 테왁닻(그림4)은 테왁망사리가 물에 떠내려가지 않게 고정시키는닻이다.

돌고래와 거북이를 만나다

할머니께선 해녀를 하면서 만난 돌고래 이야기도 해 주셨다. 돌고래가 혼자만 있을 때 사람을 둘러싸 빙글빙글 돌면서 장난친다고 한다. 전혀 위협을 가하진 않지만 그래도 좀 무서웠다고 한다. 또한 거북이를 보면 재수가 없다고 한다. 재수가 없어서 잡았던 것의 일부를 던져주던가, 만약에 건네줄 게 없으면 장갑이라도 던져서 준다고 한다. 거북이는 해녀들에게 있어 다소 안 좋은 상징으로 통함을 알 수 있었다. 할머니는 거북이를 봤을 때 놀라서 좀 아팠었다고 한다.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라도 거북이를 보면 기분이 안 좋다고 말씀하셨다.

바다마다 구역이 있다?

해녀라고 모든 바다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 할머니가 사는 마을은 면수동, 서동, 서문동, 신동, 굴동, 동동, 창홍동 등 7개 마을 구역이 정해져 있다. 각자 자신이 해당하는 바다구역에서 물질을 해야 한다고 한다. 다른 데 들어가면 넘어오지 말라며 난리가 난다. 만약 구역을 넘어오면 외치면서 막는다고 한다. 다행인 것은 어디까지나 해녀로서의 규칙일 뿐 마을에서는 한동네라 서로 도우면서 친하다고 한다. 가끔 관광객이나 다른 마을 사람들이 보말을 잡으면 잡지 말라고 지키는 동네도 있는데, 할머니가 사는 마을은 안 친다고 한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보말을 잡는 것이 좀 더 깊숙이 안 예까지 들어와서 양식장에 것들을 잡아갈까봐 그런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다.

정이 살아있는 제주해녀

많이 잡은 해녀가 적게 잡은 해녀에게 해산물을 나누어주는 ‘계석’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누었다. 옛날에 할머니가 살던 마을에는 많이 잡은 사람이 적게 잡은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것으로 미역을 많이 줬다고 한다. 지금은 다 자기 할 만큼 잡아서 그런 건 별로 없다고 한다.

사라지는 해녀

마을에서 가장 나이 많은 분은 81세로, 그 분들도 가까운 바다에서 천초, 성게, 소라 등을 잡으신다. 예전에는 많았는데 이제 해녀가 많이 사라졌다며 하도리의 제일 막내해녀는 56세라고 한다.

해녀가 사라지는 것은 안타깝지만 할머니 또한 만약 손녀가 해녀를 하겠다고 하면 말린다고 하신다. 요즘 아이들은 하겠다고 하지도 않을 것이며, 힘들기 때문이라고 하셨다.

덧붙여 주신 귀한 말씀

이날에도 바다에 가서 소라 50kg을 잡았다. 할머니 몸무게만큼 잡은 것이다. 아들 딸들 모르게 가셨다는데 이젠 자식들이 다니지 못하게 해서라고 하셨다. 하지만 이젠 물질하는 것이 생계형이 아니라 취미라서 재밌고, 서로 이야기 나누고, 웃고, 돈 벌고, 좋아서 하는 거라고 말씀하였다. 이제는 밭일 다 끝나서 집 가면 할 일 없다고 바다에 가는 게 더 좋다고 하셨다. 8월 28일 인터뷰에선 금채

기 때 해녀일하러 가고 싶진 않다고 말했었지만 아마 진심은 아닌 것 같다. 가끔 쉬고 싶을 때도 있지만 물질을 하는 것을 정말 즐겨 하시는 해녀이시다.



할머니랑 찍은 사진으로, 전혀 그렇게 보이진 않겠지만 같이 하트를 만든 사진이다. 할머니의 미소가 돋보인다. 또한 도구를 소개해 주시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눴는데 귀가 안 좋아서 약을 드시는 것을 알게 되었다. 물속에서 하는 일이라서 그런 거라며 해녀 친구들 거의 다 약을 먹는다고 말씀하셨다.

한가정의 든든한 대들보

제주여자고등학교 1학년 강해인



- 구술자 : 한순금
- 나이 : 1960년생 (59세)
- 고향 : 서귀포시 성산읍 시내리
- 현거주지 : 제주시 구좌읍 하도리
- 연담자 : 강해인
- 연담일시 및 장소 : 8월 27일, 자택

어려웠던 가정을 일으켜 세운 든든한 맘이

한순금 씨는 성산읍 시흥리의 가난했던 한 가정의 맘이로 태어났다. 어머니는 제주어로 ‘웃드르’라 하는 송당에 거주하였기 때문에 물질을 하지 않으셨다. 하지만 한순금 씨는 바다가 바로 앞인 시흥리에 살았기 때문에 어린 나이에 친구들과 자주 바다에 가서 옛날 해녀들이 입던 물소중이와 유사한 하얀 옷을 입고 가벼운 수영을 즐겨하곤 했다.

그러다 보니 자연적으로 바다와 친해지게 되었다. 한순금 씨 아래로 동생들도 많았고, 때문에 어려운 가정형편을 집안의 장녀로서 책임져야만 했다. 그래서 돈을 벌기 위해 옆집 언니를 따라 충청남도 천안으로 물질을 가기로 결심하였다. 한순금 씨는 물질을 전문적으로 배운 적도 없고 바닷속에서 기본적으로 수영만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충청남도로 올라가서 처음 물질을 배워야만 했다. 배우고 난 후 며칠 동안은 매일 머리가 아프고 체력적으로 힘이 들어 많이 울었다.

그렇게 물질을 배우고 난 후 제주도로 다시 내려와 결혼하면서 남편이 있던 구좌읍 하도리에 살게 되었다. 한순금 씨는 힘든 날들의 연속인 삶을 살아야만 했다. 사업에 실패하고 빚도 많아 굉장히 힘든 가정형편 속에서 아이들도 키워야 했기 때문에 물질을 나갈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 그러다가 우연찮게 충청남도 보령시 장고도에 출가물질을 가게 된 후 돈을 많이 벌게 되면서 밑바닥의 삶이었던 가정을 오로지 자신의 힘으로 끌어 올리고 아이들도 다 길러서 출가시켰다. 한순금 씨의 아들은 이러한 사실에 대해 “이 세상에서 가장 대단한 사람은 엄마다”라고 했다.

바다물질

한순금 씨를 비롯한 상군해녀들은 보통 물질을 나가면 8시 30분부터 3시 30분까지 총 7시간 동안 수심 10~15m 정도 되는 깊은 바닷속에서 물질을 한다. 까꾸리나 빗창과 같은 도구들은 해산물을에 상처를 입힐 수도 있어 잘 사용하지 않고, 10월 초 소라가 구멍 안에서 나오지 않을 때 까꾸리를 이용한다. 한순금 씨는 수심이 깊은 바다에서 작업을 하기 때문에 다른 중·하군 해녀들보다 더 적은 무게의 연철을 찬다. 얇은 곳이나 나이가 든 분들은 연철이 많이 있어야 바닷속에서 떠오르지 않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무거운 연철을 차게 된다. 보통 얇은 바다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해녀는 ‘호오잇~’ 숨비소리를 내지만 한순금 씨는 숨비소리보다는 깊은 바다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파하아아’하고 소리를 크게 질러 답답했던 숨을 내뱉고 스트레스를 푼다. 한 씨는 물질을 천당과 지옥을 오가는 작업으로 칭하며 자신의 손주들에게는 결코 권하고 싶지 않다고 했다.

바다는 나의 일부

한순금 씨는 바다에 나가서 활동을 하지 않으면 오히려 답답하고 온몸이 쑤시고 피곤하다. 바다에 나가 수영을 하고 나면 몸이 가벼워지고 건강도 더 좋아지는 것을 느낀다. 이렇게 한순금 씨에게는 어느새 바다가 자신의 일부가 되어버렸다. 한순금 씨는 상군해녀로 중·하군 해녀들과 다르게 깊은 바닷속으로 들어가 썰물 때를 맞춰 장시간 동안 물질을 하며 하루 최소 20만 원 어치의 해산물

을 잡을 수 있다. 소라 위주의 해산물들은 10월부터 다음해 4월까지 잡고 5~6월은 천초(우뭇가사리) 물질을 한 후 7~9월은 산란기여서 해산물을 채취하지 못하는 금채기간으로 정해져 있어 물질을 하지 못한다.



한순금 해녀의 고무옷

충청남도 보령시 장고도에 나가 출가물질할 때는 제주도의 홍해삼과 달리 검은 해삼을 100kg씩이나 잡으며 밀려서 중국에 수출하였다. 그러다가 4월 중순 산란기간이 되면 번 돈을 들고 제주도로 다시 내려왔다. 약 3달 간 물질을 하며 한가정을 다시 일으켜세우게 한 바다는 한순금 씨에게는 언제나 고마운 존재이다.

또한 바다로부터 위협을 느끼고 수심이 깊어질수록 귀가 아파 깊은 바다에서 수영을 하지 못하는 해녀들도 많은 반면 한순금 씨는 아직까지 단 한 번도 바다로부터의 위협을 느끼지 못했다. 선천적으로 폐활량도 좋고 귀도 아프지 않으며 약을 먹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천상해녀라고 불릴 만큼 바다와 잘 맞는 해녀이다. 활동 같은 큰 물고기들을 만나거나 거북이와 돌고래랑 함께 수영하게 될 때가 있었는데 굉장히 즐거웠고 또 한편으로는 두려움을 느끼기도 하였다.

점점 황폐화되어만 가는 바다

한순금 씨는 매우 깊은 바닷속까지 들어가 물질을 하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바닷속의 사정을 잘 알고 있다. 5년 전까지의 바다만 하더라도 전복이 많고 바닷속도 깨끗했는데 이제는 백화현상이 일어날 정도로 뿌옇고 전복도 일 년에 겨우 한두 개 잡을 정도로 없어져 벼렸다. 한순금 씨는 자신의 삶의 터전이자 제2의 육지인 바다가 점점 황폐화되어 가고 오염되고 있다는 사실에 매우 안타깝고 씁쓸함을 느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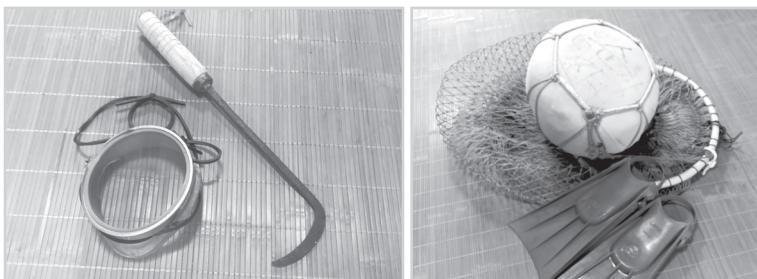
자랑스러운 해녀로서의 삶

한순금 씨는 불과 1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해녀는 천한 직업으로 여겨지고 사람들의 천시를 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직업이 해녀라고 말하지 못하였다. 하지만 세월이 흘러 이제 해녀들의 문화와 삶이 소중한 문화유산으로 여겨지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조사하고 관심을 가져줘 이제는 자랑스럽게 자신의 직업은 해녀라고 말할 수 있게 되었다. 한순금 씨는 해녀로서의 자부심과 뿌듯함을 느끼며 하도리 해녀합창단의 단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또한 계석(수확한 해산물들을 나눠가지는 행위)과 어촌계 바다를 통해 같이 작업하는 해녀들과 어촌계 사람들끼리 끈끈하고 두터운 정을 나누고 특히 에너지가 많고 활발한 성격의 한순금 씨는 금채기간에 다른 해녀들과 같이 친목을 다지기도 한다.

한순금 씨를 비롯한 하도리 해녀들은 음력으로 2월 15일쯤 영등맞이 의식을 치르는 심방을 주로 마을 각시당이나 탈의실에 불러

제사를 지낸다. 때로는 할망당에 모여 제사를 지내고 일 년 운수를 보기도 한다. 제사를 지낼 때는 밥에 계란, 과일 등 다른 것들을 함께 싸거나 마른 쌀을 백지에 싸서 바다에 던지며 해녀 자신과 가족들의 행복을 기원한다.

한순금 씨를 비롯한 해녀들의 평균 나이는 점점 높아져만 가고 이제 젊은 해녀들은 찾아보기 힘들다. 천초물질과 같은 바닷가 작업은 젊은 해녀들이 할 수 있어도 깊은 바다까지 나가 물질을 하는 실력있는 해녀들은 전부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이다. 한순금 씨는 해녀들이 점점 사라져가고 해녀문화가 위험에 처해 있음을 느낀다.



수경, 까꾸리, 테왁망사리

바다의 딸, 해녀

제주여자고등학교 1학년 김서연



- 구술자 : 윤복희
- 나이 : 1941년생(76세)
- 고향 : 제주시 우도
- 혈거주지 : 제주시 구좌읍 하도리
- 연담자 : 김서연
- 연담일시 : 8월 27일

하도리에 정착하다

윤복희 할머님은 1941년 우도에서 2남 4녀 중 4녀로 태어났다. 그곳에서 국민학교를 졸업했고 23살에 하도리로 시집 와 정착하였다. 슬하에 5남매를 두고 있고, 현재는 홀로 하도리 서문동에 거주하고 있다.

바다, 삶의 터전이 되다

국민학교 1학년, 여덟 살 때부터 어머니를 졸래졸래 따라다니면서 혜엄을 배우기 시작했다. 대부분의 해녀들이 다들 그렇게 물과 친해지기 시작한다. 열다섯 살쯤 되어서는 본격적으로 돈을 벌기 위한 물질을 시작했다. 그리고 열여덟 살부터는 육지로 돈벌이하러 다녔다. 이를 바로 ‘출가물질’이라 한다. 당시 제주도에서는 돈벌이 할 데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육지로 물질하고 돈 벌러 다녔다. 주로 울산으로, 진도로, 경상도쪽의 거제도 구조라쪽으로, 여러 지역을 다녔다. 한 6개월 정도를 출가물질을 하고, 끝나면 돌아오고, 또 다시 육지로 나가는 생활을 반복했다.

지금도 물질을 하고 있다. 그러나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상군해녀가 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물질을 하는 해녀들은 상군·중군·하군으로 분류되는데, 수심이 7m 이상인 깊은 곳에서 일하는 숙련된 해녀들을 ‘상군’, 수심이 너무 깊은 바다는 들어가지 못하고 2~3m 정도에서 물질을 하는 해녀들을 ‘중군’, 물질을 배우는 사람들을 ‘하군’으로 분류하는데(할머님의 설명), 할머님은 상군에 속한다. 나이가 들어 이제는 3~4m 정도 깊이에서 물질을 한다. 깊게 들어가면

비록 힘들긴 하지만, 얕은 곳엔 물건이 없고 깊이 들어가야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이왕이면 깊이 들어가려고 한다.

보통 6월에서 7월초 조금(조수간만의 차가 가장 작은 시기), 아니면 중순(보름)까지 물질을 하고 쉬었다가 10월 1일부터 다시 재개한다. 쉬는 기간에는 노는 사람은 놀고, 밭에 나갈 사람은 밭일을 하고, 장사할 사람은 장사를 하며 지낸다. 계절에 따라서 5~6월달은 우뭇가사리(천초)를 뜯고, 또 10월부터 우뭇가사리하기 전 4월까지는 소라, 성게, 해삼, 문어 등을 보이는 대로 다 잡는다. 작업시간은 그날의 조류와 일기상황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정확하게 정하진 않는다. 보통 천초 물질은 3~4시간, 소라 잡을 때는 8시에서 오후 2~3시까지 한다. 조금에서 서물날(조금 전후의 조차가 작은 시기)까지가 제일 물질하기 좋아 이때는 5시간에서 6시간 동안 물질을 할 수 있다. 또 외살(사리 조차가 큰 시기)에 다섯물, 여섯물, 일곱물, 여덟물 때는 잘하면 3~4시간 정도 할 수 있다.

음력	물이름	비고	음력	물이름	비고
1	여덟물		16	여덟물	
2	아홉물		17	아홉물	
3	열물		18	열물	
4	열한물		19	열한물	
5	열두물		20	열두물	
6	막물		21	막물	
7	아끈鞠기		22	아끈鞠기	
8	한鞠기	한조금	23	한鞠기	
9	한물		24		8시(동동의 경우)
10	두물		25	두물	한물 8시 30분
11	세물		26	세물	9시
12	네물		27	네물	9시 30분
13	다섯물		28	다섯물	10시
14	여섯물		29	여섯물	10시 30분
15	일곱물		30	일곱물	

하도리의 바다물때

바닷속 깊이 들어가면 귀가 아프다. 그래서 껌 같은 것으로 귀를 막는다. 물론 막는 사람도 있고 막지 않는 사람도 있다. 해녀마다 약을 두세 가지 정도는 기본적으로 복용한다. 머리 아프지 말라고 뇌선(비마약성 진통제)을 먹고, 멀미하지 말라고 멀미약도 먹고, 또 심장 뛰는 몇몇 사람들은 심장약까지 먹는다. 약을 먹지 않으면 바다에 파도가 칠 때 멀미가 나 구토가 나오고, 수압 때문에 머리가 아프다.

“바다가 우리의 밭, 삶의 터전이라. 우리는 농사 지을 밭도 없고 아무 것도 없어. 맨몸으로 물질해 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이라”

자랑스러운 제주해녀

옛날에 고무옷이 없었을 때는 천으로 소중이(속옷)를 만들어 입었다. 옛날 할망들이 소중이와 속옷 등을 만들어 입었을 당시 겨울철에는 추위로 인해 고작 30분 정도밖에 물질을 할 수 없었다. 그래도 그때는 물건(소라, 고동 등의 해산물)이 많으니까 30분에서 1시간 정도만 해도 소라 같은 것을 비교적 많이 잡을 수 있었다. 요즘에는 고무옷 덕분에 춥지 않아 오랫동안 물질을 할 수 있으니까 많이 잡는 탓에 옛날만큼 물건들이 많이 보이지 않는다. 옛날보다는 바다의 물건이 반 이상 준 것 같다고 한다. 옛날에는 잘해 봐야 소라 20~30kg 잡던 것이 요즘은 잘하는 상군들은 보통 100kg, 80kg는 거뜬히 잡고, 그 밑으로도 기술에 따라서 50kg, 30kg은 잡는다.

해녀의 가장 큰 애로사항은 ‘숨’이다. 숨을 참고 바다에 들어갔다가 숨이 다할 때쯤 나오면 그 순간이 가장 고통스럽다. 해녀는 숨

을 참고 일해야 하기 때문에 고통스럽다. 그래도 이제는 고무옷이 나왔기 때문에 숨이 차는 것 외에는 그렇게까지 고통스러울 건 없다. 또 하다보면 요령이 생기기 때문에 여기에 고동이 있고, 근처에 전복이 있으면 소라는 내버리고 전복부터 딴 다음에 숨이 조금 남았을 때 올라오기도 한다. 천초 같은 것이 올라올 때는 욕심을 좀 부려서 숨이 찰 때까지 그럴 수도 있고, 옛날 30~40년 전 물질할 때보다 그렇게 고통을 받는 것이 없고, 오히려 돈 버는 재미에 고단함도 잊곤 한다. 옛날엔 고생했지만 요즘은 소라 시기에, 잘 잡는 사람은 최소 30~40만 원, 성게 할 때난 아무리 못해도 하루에 20만 원에서 15만 원 가량은 번다. 그렇듯 돈 버는 재미에 고단한 줄도 모르고 물질을 한다.

또 약을 많이 먹으니까 입병이 많이 생기고 뿩뚤(연철)을 많이 차면 잔등이(허리 부근)가 찢어지는 듯이 아프다. 그 고통을 참으려고 약을 많이 먹는 것이다. 기술이 좋아져서 그것을 차지 않고 물질을 할 수 있다면 정말 좋을 텐데, 그것을 차면 가라앉는 속도가 빨라져 차지 않은 상태에서는 열 번 발질해서 들어갈 것을 다섯 번이면 들어갈 수 있게 해 준다.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차는 게 너무 아파 소라 따는 해녀들은 뿩뚤을 소라 딴 것과 같이 테왁에 놓기도 한다.

해녀들이 돈을 모아 학교를 설립하고, 마을을 돋기도 하는 ‘바당’이라는 공동체는 신세대 해녀들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아직까지 이런 촌에서는 그런 것이 없다. 하지만 자기가 벌어 수협 등에 내기는 한다. 해녀가 어촌계에 가면 수수료를 납부한다. 100만 원을 번다고 하면 3만 5천원 가량을 수협에 낸다. 그것이 바로 해녀들이 내는 세금이자 봉사이다. 품목에 따라 수수료도 조금씩

다르다. 우뭇가사리는 수수료가 8%에서 6%로 바뀌었고, 소라나 성계는 10%를 떼어간다.

옛날에 소중이만 입을 때는 창피하기도 하고, 육지로 나가면 제주도 해녀라고 깔보고 천하게 보는 시선이 많아서 정말 죽고 싶었다. 그래서 자식들만큼은 물질을 시키지 않으려고 열심히 물질하고 돈 벌어서 5남매 모두 서울로 보냈다. 하지만 요즘에는 물질하는 게 너무나 자랑스럽다. 근 15년 전 무렵부터 해녀 대우가 좋아진 덕분에 해녀합창단도 만들고, 해녀 위주의 행사가 많아졌다. 그럴 때마다 해녀들이 아무런 자본 없이 맨몸으로 돈을 벌어 자식들 공부시키고 대학까지 보낸 것이 정말 자랑스럽다. 농사를 짓지 않더라도 생계를 이끌어 가니까 자부심도 생기고, 용기도 생기고, 요즘에도 돈 버는 재미로 쏠쏠하다. 그것이 바다가 좋은 이유이다.

뿐만 아니라 일본에 견학도 세 번이나 다녀왔다. 일본에서는 물질하는 여자들을 아마상이라고 한다. 아마상과 해녀가 얼마나 다른 문화에서 물질을 하고 있는가를 비교하는데, 비교를 해 보니 물질을 하는 환경이 제주도만큼 잘된 곳이 없다. 탈의장과 같은 시설을 물론이고, 30만 원 정도 하는 고무옷도 최소한 3년에 한번은 지원을 받아서 공짜로 입을 수 있다. 해녀증을 가지고 있으면 좀한(웬만한) 병원 같은 것도 무료다. 약 사는 데만 돈이 들지 초음파, 엑스레이 같은 것은 도에서 지원해 줘서 공짜다. 모든 면에서 해녀가 대우를 받는다. 과거에는 어디 가도 잠수하는 여자라면 놀림을 받기만 했는데, 이제는 해녀박물관도 세워지고 세계 각국에서 관심을 가지고 해녀들을 관찰하니까 너무나 뜻떳하고 해녀문화가 앞으로 유네스코에 등재가 될 생각을 하면, 해녀라는 직업이 정말 자랑스러워지고 돈벌이를 떠나서 과거에 괴로웠던 기억을 싹 잊을 때도 있다.

솔직히 옛날에는 물질하는 것이 죽기보다 싫었다. 춥고 돈벌이 도 별로 되지 않고. 요즘은 노력한 만큼 돈을 가져오니까 그게 제일 보람이 있고, ‘해녀를 하길 참 잘했구나’하는 생각이 든다. 딸이 있거나 며느리가 제주도 산다면 꼭 해녀를 시키고 싶은 마음이 든다.

해녀 탈의장 또한 시설이 무척이나 잘 되어있다. 따뜻한 물도 나오고, 탈의장도 할머니네 집보다 더 깨끗하게 지어져 있고, 거의 모든 게 다 갖추어져 있다. 이제는 물질하는 것도 바다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이 힘들 뿐이지, 나온 다음에 하는 것은 옛날하고는 비교 할 수 없을 정도로 좋다. 지금은 남부러울 게 없는 것이 해녀들을 둘러싼 환경이다.



돈벌이만 해도 농사짓는 것보다 훨씬 괜찮다. 농사를 지으려면 제반 경비도 제법 많이 들지만 해녀들은 고무옷 하나만 입고 나가도 돈 10만 원 정도는 너끈히 벌어올 수 있어 돈 모으는 재미도 쏠쏠하다. 기한을 정해 25일 정도 물질을 하는 시기에는 잘 하면 600~700만 원도 번다. 뭐 그렇게 큰돈은 아닐지라도 살아가면서 굳이 남한테 손 벌리지 않아도 된다. 요즘 같은 돈벌이와 대우 정도

라면 해녀일을 마다할 필요가 없다. 몸이 허락하는 날까지 물질을 계속하고 싶다.

“앞으로 10년이 될지 5년이 될지 내일이 될지 모르겠지만, 이 상태로 건강하다면 80까지, 85까지, 내 몸이 허락할 때까지 하고 싶어. 해녀라는 직업이 알고 보면 정말 좋은 거라. 옛날에 속옷 입고 물건도 별로 없을 때는 이게 진짜 죽기보다 싫었는데, 요즘 같이 일하고 돈벌이하면 마다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 그래서 난 후배들 한테 물질을 할 수만 있다면 해보라고 조언하고 싶고, 얘기해 주고 싶어”



신흥 바당 소라왕

제주여자고등학교 1학년 김수진



· 주술자 : 이인순

· 나이 : 1935년생(주민등록상),

설레나이 1932년생(85세)

· 고속도 : 제주시 조천읍 신흥리

· 현거주지 : 제주시 조천읍 신흥리

· 면담자 : 김수진

· 면담일시 및 장소 : 8월 28일, 마을회관

친구들과 함께 물질을 시작하다

이인순 할머니의 어머니는 해녀가 아니었다. 할머님의 어머니는 해녀일을 하지 않고 옷을 만들거나 예단을 짓는 등의 바느질(바느질)을 하셨다. 할머님의 어머니는 발미싱을 이용해 온갖 옷을 지으셨고, 신흥에서 바느질을 가장 잘하셔서 매우 유명하셨다고 한다. 심지어 신흥에서 살다가 외방(다른 마을)으로 간 사람도 할머님 어머니의 바느질 솜씨 때문에 옷을 신흥에 와 맡길 정도였다고 한다. 안타깝게도 바느질 면에서 할머니는 어머니보다 좋은 솜씨를 갖지는 않으신 듯 보였다. 면담자에게 발미싱, 손미싱 등의 이야기도 해 주시는 할머니는 매우 즐거워 보였고, 어머니가 바느질을 아주 잘하셨다는 사실을 자랑스러워 하시는 듯 보였다.

할머니가 처음 물질을 시작한 나이는 15세에서 16세 정도였다고 한다. 비록 어머니나 아버지께 직접 물질을 배운 것은 아니었으나 동네에 워낙 많은 해녀 분들이 계셨고, 지금처럼 컴퓨터나 TV가 없던 그 시절에는 친구들과 바다에 나가 해엄치는 것이 유일한 놀거리였다고 말씀하셨다. 그러면서 할머니는 스스로 물질을 배웠다고 말씀하셨다.

그렇게 물질을 시작했을 때 할머니가 처음으로 잡았던 것은 미역이었다. 그 당시 미역은 신흥에서 아주 유명했으며, 대정 사람들도 신흥 미역이 좋다고 해서 사갈 정도였으니 할머니가 얼마나 자랑스러워 하셨는지는 말하지 않아도 알 것 같았다. 그리고 할머니가 잡은 물건 중 가장 자랑스러운 물건은 바로 전복이었다. 하루는 할머니가 바다에 들어가셔서 500g 정도 나가는 전복을 잡아 숙자고모(할머니의 고모 분)께서 값을 잘 쳐 사 가셨다고 회상하셨다.

감춰졌던 한 숨

해녀들에게는 평소 감춰두었던 마지막 한 숨이 더 있다고 한다. 내가 정말 숨이 턱 끝까지 차올랐을 때, 그때 전복과 같은 물건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질문하였을 때 이인순 할머님께서는 해녀들에게는 숨이 다 찬 것 같아도 마지막 한 숨이 있다고 하셨다. 해녀들은 바닷속 좋은 물건은 거부할 수 없다. 좋은 물건을 보면 욕심이 나기 때문에 마지막 그 한 숨을 이용하여 할머니께서는 물건을 건져 올렸다고 말씀하셨다. 그렇게 해녀들은 마지막 한 숨을 이용하여 물건을 건지지만 안타깝게도 그러는 와중 돌아가시는 분들도 계시다고 했다. 당시 30세의 슨하라는 분도 그렇게 돌아가셨다고 말씀하시며 할머니는 매우 안타까워 했다.

그 당시에는 슨하 할머님처럼 그렇게 돌아가는 분들이 꽤 있었다고 말씀하셨다. 손에 빗창 끈을 묶고 돌 아래 붙어있는 전복을 뗄 때 잘못하여 그 빗창이 돌에 걸려버리면 빼지를 못해 돌아가신다고 하셨다. 그리고 그렇게 마지막 한 숨까지 참고 겨우겨우 바다 위로 올라오면 폐가 찢어질 것 같은 그때, 숨비소리가 나온다고 말씀하셨다. 내가 혹시 숨비소리를 들려줄 수 있는지 여쭤보았을 때 숨비소리는 보통 때 흉내 내도 그런 소리가 나지 않고 숨을 정말이지 끝까지 참을 때 나는 자연적인 소리라고 대답해주셨다.

희로애락의 해녀

내가 할머님께 해녀일을 해서 자랑스러웠을 때와 해녀일이 가장 힘들었을 때를 여쭤보았을 때 할머니께서는 이를 담담하게 말

씀하셨다. 먼저 자랑스러운 일을 말씀하실 때는 밭도 사고, 집도 짓고, 아이들 공부도 시키는 돈이 모두 바다에서 나왔다고 말씀하셨다. 그 당시엔 돈벌이가 해녀일밖에 없었기 때문에 할머니는 해녀 일을 하면서 돈을 벌었던 것이 자랑스러웠다고 말씀해 주셨다.

반면 할머니가 해녀일이 가장 힘들다고 생각하실 때는 너무 가혹한 ‘추위’를 느끼셨을 때였다. 할머니가 물질을 시작한 지 30년 정도가 지나고 40대 가까이 되셨을 때 돼서야 고무옷이 나왔다고 한다. 할머니가 해녀일을 처음 배울 때부터 고무옷이 나오기 전까지는 속옷(물소중이)를 입고 물질을 했다고 말씀하셨다. 고무옷을 입으면 한 번에 3시간 가량 할 수 있었던 물질이 물소중이를 입었을 때는 1시간만 해도 몸이 덜덜 떨릴 정도로 추웠다고 담담히 당시를 회상하셨다.

그렇게 떨리는 몸을 이끌어 ‘불턱’(돌담을 쌓아 만든 탈의장)에서 몸을 조금 덥히고 다시 물에 들어가는 일을 3번 정도 반복했다고 한다. 할머니께서 그 추위를 회상하실 때 눈을 질끈 감고 몸을 부르르 떠시는 모습을 뵈니 과연 얼마나 추웠을지 나로선 감히 짐작조차 할 수 없었다.



할머니의 빗창

신흥 바당 소라왕

이인순 할머님께서는 신흥에서 소라를 가장 잘 잡는 소라왕이셨다고 한다. 상군이었던 할머니는 소라 말고도 미역, 전복 등 다른 물건들도 잘 잡으셨으나 소라를 최고로 잘 잡으셨다고 말씀해 주셨다. 신흥 바다 소라왕답게 이인순 할머님께서는 바다에서 잡히는 물건들에 대해 해박한 지식을 지니고 계셨고, 이를 내게 알려주셨다. ‘성게는 3월이 제일 맛있고 좋다’ ‘전복은 사시사철 잡아도 맛있고 값도 비싸게 쳐주던 물건이었다’ ‘청각은 옛날에는 정월부터 잡았으나 지금은 2월부터 잡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다. 그리고 톨(臭)은 2월, 우뭇가사리는 톤을 수확한 다음에, 겨울에는 소라, 전복, 해삼, 문어 등을 수확했다고 가르쳐 주셨다.

신흥 바다에서 유명했던 미역은 3월 대목이 좋으며, 신흥에 사는 해녀들 모두가 ‘새벽 조문햄찌~(물질한다)’라는 소리에 나가서 미역 물질을 했다고도 말씀해 주셨다. 이러한 말씀을 해 주시면서도 할머니는 신흥에서는 미역, 전복, 소라, 해삼, 청각이 가장 유명했다고 말씀하셨고, 톤은 신흥 것이 양도 많지만 질이 가장 좋았고, 신흥 바다가 1등 바다라고 자랑도 하셨다.

할머니는 수확물 이야기를 할 때 문어에 관련된 에피소드도 말씀해 주시면서 문어를 잡을 때는 갈쿠리로 빙빙 돌려서 잡아 뜯어야 하며, 문어는 기운이 아주 세기 때문에 만일 문어가 웃에 붙을 때는 위험할 수도 있고, 그래서 문어가 웃에 붙으면 빨리 옆에 사람과 함께 문어를 떼어내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다. 할머님께서는 이를 설명하실 때 직접 문어를 떼는 동작도 보여주시는 바람에 나와 할머니가 함께 빙그레 미소를 띘 수 있었다.

해녀들의 공동체

나는 이인순 할머니와 이야기하기 전 해녀에 대해 공부하면서 해녀들의 공동체문화가 얼마나 자랑스럽고 훌륭한 유산인지를 알고 있었다. 면담 과정에서도 역시 그러한 이야기가 나왔다. 나의 왕 할머니(할머니의 어머니) 역시 아주 유명한 대상군 해녀셨다. 그래서 이인순 할머님께서도 이를 회고하시며 면담자의 왕할머니가 해녀회장을 하실 때에는 청각이 신흥의 아주 큰 자본이었다고 말씀해 주셨다. 해녀들이 청각을 수학하여 학교도 운영했고, 마을의 경비도 청각을 판 돈으로 지원하였다라고 말씀해 주셨다. 이인순 할머님께서는 이 이야기에 대해 말씀하시며 매우 뿌듯해 하셨고, 내게도 역시 뭉클함이 전해졌다.

바다를 살릴 수가 없지…

과거에 할머니가 바다에 물질을 하러 들어가시면 전복도 300g~500g, 크기도 25cm 정도로 큰 물건들도 있었고, 물질하러 들어가 키를 맞닿아 보면 거의 사람 키만한 해초들도 아주 많았다고 회상하셨다. 그런데 이러한 이야기를 하면서 할머님께서는 “근디 이젠 그런 것이 없주게”라며 안타까운 표정을 지으셨다. 바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과거에는 머구리배(잠수기)가 좋은 물건들을 다 쓸어갔다고 한다. 머구리(잠수부) 바다, 해녀 바다가 따로 나눠졌을 때도 신흥 바다의 물건이 좋다는 것을 알고 육지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던 머구리배가 모르게 들어가서 물건을 잡아갔다고도 말씀해 주셨다. 그 때문에 신흥 해녀 분들께서는 바다를 감시했다고도

한다. 현재 중국 어선이 제주바다에 가까이 다가오는 것처럼 할머님께서는 약간의 원망스러움과 함께 당시 머구리배에 대한 이야기를 해 주셨다.

그러면서 할머님은 현재 바다에 대해서도 나와 깊은 이야기를 나눴다. 할머님께서는 이젠 제주 전체의 바다가 너무 오염되어서 큰 전복, 해초는 상상도 못한다고 하셨다. 양어장, 생활용수(세제, 락스, 샴푸 등), 그리고 결정적으로 농약이 스며들어 다 바다로 흘러가는 바람에 바다가 오염되어 툴도 없어지고, 전복도 많이 없어졌다 고 말씀하셨다. 이 부분을 언급하는 내내 할머니는 바다에 안타까운 감정을 가지고 계셨다. 과학이 발달하는 동안 오히려 자연은 오염되었다고 말씀하시며 “이젠 바다가 살아날 수가 없주게”라고 말씀하셨다.

할머니께서는 아마 바다가 많이 오염되었기 때문에 해녀도 점점 없어지는 것 같다는 말씀도 하셨다. 이제 오염된 바다에서는 좋은 물건이 옛날만큼 많이 나지 않기 때문에 해녀일을 배워도 생활에 보탬이 되지 않아 해녀들이 많이 없어지는 것이라고 하셨다.

우린 잘도 고생하명 살았쪄

할머니는 면담을 하는 내내 옛날 생각이 많이 나신 듯했다. 면담이 끝날 즈음에 할머니는 옛날에 자신들이 살았던 것은 다 고생이었다고 말씀하셨다. 할머님께서는 동네 할머님들 이야기를 하면서 해녀일을 할 때는 임신을 해 내일 아기가 나올 수 있다고 해도 물질을 했고, 아기를 낳고도 3일만에 다시 물질을 하는 할머님들이 많았다고 회상하셨다.

그 당시는 먹을 것이 없어 요새 사람들처럼 산후조리할 새도 없이 물질을 나가셨다고 했다. “그렇게 못 전디명 살았주게. 그래도 살아갔지. 살젠 하난”이라고 말씀하시면서도 할머니는 슬픔보다는 오히려 평안한 표정을 보이셨다. 할머니는 해녀일을 하는 동안 한스럽거나 아팠던 일은 없었다고 말씀하셨다. 이인순 할머님과 면담을 하는 내내 나 또한 희노애락을 더불어 경험했다.



면담이 끝난 뒤 마을회관에서 할머님 집으로 이동해 해녀복과 테왁망사리, 까꾸리 등 내가 사진으로만 봐 왔던 해녀 물품을 보여주시며 사용법도 알려주셨다. 이번 면담을 통해 나 역시 제주해녀의 정신이 얼마나 강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고, 이를 보존하기 위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데까지 도움을 드리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테왁사리,
여러 종류의 까꾸리들

평생을 제주해녀로

제주여자고등학교 1학년 문유경



- 주술자 : 양순숙
- 나이 : 1938년생(79세)
- 고향 : 제주시 구좌읍 한동리
- 현거주지 : 제주시 구좌읍 한동리
- 연담자 : 문유경
- 연담일시 및 장소 : 8월 28일, 자택

자연스럽게 시작하게 된 천직

양춘향 할머니는 한동리에서 태어난 후 바로 앞집에 사는 남편을 만나 지금까지 한동리 해녀로 살고 있다. 양춘향 할머니는 15세 때 자연스럽게 물질을 시작했다. 어머니가 바다에 가실 때 따라가 해엄치며 놀았던 것이 해녀로서의 삶의 시작이었다. 어두워질 무렵 몰래 미역을 조금 캐다 팔았다. 당시 미역은 한 남에 30원이었다고 한다. 비록 적은 돈이지만 돈을 버는 기쁨을 알게 되었고, 이후 매일 미역을 캐러가게 되었다. 어렸을 때는 고무옷도 입지 않고 속옷(물소종이)만 입은 채 물질을 하였으며, 주로 미역만을 채취했다. 이렇듯 어릴 때부터 바다에서 지냈기 때문에 물이 무섭지는 않았다. 한번은 친척이 물질을 하다가 죽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다. 이때는 겁이 나서 물질을 제대로 해내기 힘들었다고 한다.

부엌대학, 해녀대학, 농과대학

양춘향 할머니는 학교에 전혀 다니지 못하셨고, 매일 밭에 나가 일을 했다. 그 당시에는 여자는 공부할 필요가 없고 시집만 잘 가면 된다는 인식이 보편적이었다. 그래서 당시 촌에서는 대부분 딸들을 학교에 보내지 않았다. 만약에 학교를 간다 해도 동네 어르신들이 안 좋은 시선으로 바라보았고, 밭일 때문에 결석이 잦았다. 19세에 젊은 남자가 야학으로 한글을 배워준 것이 할머니에겐 교육의 전부이다. 덕분에 자신의 이름을 한글로 쓸 수 있게 되었다. 호야등과 각지등을 켜서 밤에 공부할 수 있었다.

어느날 대학생 손자가 할머니에게 어느 대학을 다니셨는지 물

어보았다. 그때 할머니는 부엌대학, 해녀대학, 농과대학을 나왔다
고 농담했다. 물론 손자는 농담인 것도 모르고 많은 대학을 졸업했
다며 놀라워했다. 할머니는 우스갯소리로 농담하셨지만 세 대학이
할머니의 삶을 모두 담고 있다. 할머니는 학교 교문에 발을 딛지도
못하고 평생 동안 부엌에서 집안살림을 하시고 밭에서 일하고 물
질을 하신 것이다.

21세에 동네사람과 결혼하여 딸 셋 아들 하나를 얻었다. 남편이
군대에 가버렸을 때는 아기를 구덕에 놓고 밭일도 하고 물질도 하
였다. 자식들 중에서는 큰딸이 물질을 했었지만 결혼하고 나서 그
만뒀다고 하셨다.

출가물질

19세에 처음으로 전라도 생일도(완도군 생일면)로 출가물질을 나갔
다. 인솔자가 모집을 하였고, 전주와 인솔자를 포함해서 12명의 사
람이 한배를 타고 갔다. 섬이었기 때문에 직접 노를 저어 가야했다.
그곳에서 제주도에는 많이 없었던 소라, 전복, 해삼을 캘 수 있었
다. 하지만 바로 해녀들에게 돈이 돌아오지 않고 인솔자 등을 거치
기 때문에 전체 3할 정도의 돈을 받았다. 절반을 받으면 재수가 좋
은 것이었다. 제주를 떠나 물질을 나가면 해녀 5명이 살 수 있는 집
이 제공되었지만 먹을 것은 각자 챙겨가야 했다. 그래서 어머니께
서 찰, 된장 등을 미리 준비해 주셨다.

이 외에도 결혼하고 나서 경북, 울산, 충북, 남해 등 열 번 정도
의 출가물질을 더 나갔다. 특히 50대 때 일본으로 물질하러 갔는데
여행이라고 속이면서 물질을 해야 했다. 당시에 김녕 할머니가 인

솔했는데 인솔자 할머니, 선장, 바당값으로 많은 돈이 나가는 바람에 매우 적은 돈을 받았다. 그리고 일본은 물가가 비싸서 반찬을 챙겨서 가야 했고, 큰돈이 부담이 되는 탓에 밥을 먹지 않기도 했다. 본래 해녀는 오로지 제주도에만 있었다. 물질은 제주도에서 시작되었고, 제주도 사람이 육지 사람들에게 전파시킨 것이다.



해녀옷과 테왁망사리

억척스러운 제주해녀

제주해녀로서의 삶은 매우 바빴다. 아침에 보통 3~4시에 일어나 밭일을 2시간 정도 했다. 밭일을 하고 나서는 집에 돌아와 남편과 자식의 밥을 차려주고 먹였다. 그렇게 하고 난 뒤 바다로 향했다. 보통 4시간 정도 작업을 하고 다시 밭에 간다. 지금은 아니지만 옛날에는 하루도 안 빼지고 물질을 하였다. 특히 5~6월은 농작물 때문에 더욱 바빴다. 지금은 오리발도 있고 연철도 있기 때문에 물 속에 오랜 시간 있을 수 있지만 옛날에는 오리발과 연철이 없었기 때문에 길어야 30분 가량 있을 수 있었다. 반면에 지금은 한 달에 14일 정도 물질을 하고 오랜 시간 동안 물에 있을 수 있다. 이러한

해녀일을 하면서 제일 보람있었을 때는 많은 해산물을 캘 때이다.

요즘에는 뭐라도 하나 잘못 먹어서 자식이 탈나면 어떻게 하나, 걱정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당시에는 밥해 놓으면 자식들이 알아서 꺼내 먹었다. 만약에 어린 자식을 돌봐줄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아기구덕으로 아기를 재우면서 부엌에서 불을 때고 밭에도 아기구덕을 가져가 놓고 일을 했다. 제주여성은 바깥일과 집안일 모두를 책임져야 해서 매일매일 부지런한 삶을 살아야 했다. 여자로서 지금은 세상이 많이 좋아졌으며, 힘든 삶을 살았던 할머니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하셨다.

무서운 수두

옛날에는 많은 미신과 풍습이 있었다. 옛날에는 수두라는 병을 몰랐기 때문에 동네에서 수두에 걸린 아이는 죽는다는 말이 있었다. 그래서 심방과 할머니가 잘못했다고 손을 비비면서 골목길에서부터 거실까지 들어왔다. 심지어 큰 어른이 오셨다고 하면서 제사도 상을 안 피고 지내기도 하였다. 병의 원인과 명칭을 아예 알지 못했기 때문에 집에서 민간요법으로 약을 만들어 주는 것밖에 달리 다른 방법은 없었다. 예를 들어 겨울에는 감기 걸린다고 쪽파를 주고 설사하면 흰쌀밥에 속을 긁어넣어 먹기도 하였다.

제주해녀의 성공과 비애

해녀들은 자신들이 열심히 번 돈으로 동네 초등학교를 세우기도 하였다. 한동 해녀들이 미역을 열심히 캐서 학교를 세웠다. 그리

고 옛날에는 많은 수확을 올리면 수확이 적은 다른 해녀에게 양보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요즘에는 물건이 너무 없기 때문에 나누어 주는 문화가 많이 사라졌다고 한다.

약은 뇌선만 드셨다. 머리가 아프지 않게 하는 진통제로, 뇌선을 먹지 않으면 머리가 깨지는 듯이 아파 대부분의 해녀가 먹는다. 물질 시작 30분 전에 한 포를 먹는다. 귀를 밀로 막기도 하지만 양춘향 할머니는 그러지 않았다. 물질하는 사람치고 귀가 멀지 않는 사람이 없다고 할 정도로 물질을 하면 어쩔 수 없이 귀가 나빠진다. 할머니도 마찬가지로 오랫동안 물질을 하신 탓에 지금은 작은 소리는 잘 듣지 못한다.



몸이 닿는 데까지

양춘향 할머니는 79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계속 물질을 하신다. 나이가 든 탓에 이젠 하군 역할을 하신다. 옛날에는 물질을 잘하셨는데 나이가 든 탓에 하군 역할을 하게 된 것이다. 그리고 많은 연철을 매고 물질을 해야 하며 예전과 다르게 숨이 짧다. 하지만 앞으로도 계속 몸이 받쳐준다면 계속 해녀일을 할 거라고 하신다. 해녀는 밭일과 물질 모두를 한다. 짧았을 때는 물질하는 것이 더 재미있고 좋았는데 요즘에는 물질하면 몸이 많이 아프고 힘들기 때문에 밭일이 더 편하다고 하셨다.

지금 학생들이 해녀가 되겠다고 하면 추천하고 싶지 않으시다. 바다에 캘 수 있는 많은 해산물이 있으면 보람도 있고 재미있지만 요즘에는 해산물이 너무 적어서 애를 먹고 짜증난다. 예전에 물질할 때에는 ‘저기에 있을 것 같다’하고 가는데 요즘에는 ‘저기에는 없을 것 같다’하면서 간다. 물건에 욕심을 가지면서 물질을 하는데 물건이 만족하기엔 턱없이 적기 때문에 요즘은 힘들다.

오랜 세월 함께해 온 나의 친정, 바다

제주여자고등학교 1학년 성미현



- 주술자 : 나인숙
- 나이 : 69세
- 고장 : 서귀포시 하이웨이 하동
- 현거주지 : 서귀포시 하이웨이 하동
- 멘답자 : 성미현
- 멘답일시 및 장소 :
8월 27일, 10월 22일, 자택

가업처럼 이어져 온 물질

나인숙 씨는 6남매 중 넷째로 태어나 부모님, 할머님까지 합해서 거의 10명의 식구들이 함께 사는 집에서 자라왔다. 집안 식구도 많고 옛날에는 교육보다는 생계를 꾸리는 것이 우선되었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부모님과 할머님을 따라 농사일을 도우러 밭에 가거나 바다에 가서 소라, 오분자기 등을 잡으며 생활해 왔는데, 그런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족쇄눈을 쓰고, 천으로 만든 물소중이를 입고 바다에 나가 조금씩 물질을 하기 시작했다.

그때 나인숙 씨의 나이는 10살쯤이었고, 처음에는 물질하는 법을 바로 자신의 어머니에게서 배웠다. 당시엔 바닷속에 들어가는 법도 잘 몰랐기 때문에 일단 작은 통에서 물에 뜨고 수영하는 법을 먼저 배우다가 그것이 점차 익숙해질 무렵이 돼서야 물속으로 들어가는 법을 배우고 서서히 물질을 시작했다. 나인숙 씨에게 해녀는 할머니에게서 어머니로, 그리고 또 다시 어머니에서 자신에게로 계속해 대를 이어 내려오는 직업으로, 한마디로 가업 같은 것이었다. 그렇게 어머니로부터 자연스럽게 물질을 배우며 처음 시작할 때는 육지에서 밭일을 하는 것보다 바닷속에 들어가는 것이 훨씬 시원하고 좋았으며, 생계를 위해서 하는 일이라는 생각보다 재미있는 놀이라는 생각이 더 크게 들었다고 한다.

타지에 나가서 겪은 고생

20살이 되었을 때부터는 제주도를 벗어나 육지로 출가물질을 나가기 시작했다. 전라남도 여수의 돌섬, 강원도, 경상북도 등으로

물질을 하려 갔는데 보통 음력 2월에 갔다가 추석 즈음에 돌아오곤 했다. 강원도에 갔을 때는 음력으로 2월이었는데 날씨가 너무 추워서 물이 얼어 있을 정도였는데 심지어 그때는 지금 입는 것 같은 잠수복도 없었을 때라서 바닷속에 오래 들어가 있는 것이 너무 힘들었다. 그곳에서는 미역을 채취했는데 제주도에서 본인의 마음대로 하고 싶은 만큼 물질을 했던 것과는 달리 강원도는 암주들이 자기 구역의 바다를 산 후 미역을 채취할 해녀들을 고용하는 방식이었기 때문에 아무리 추워도 고용된 입장인 탓에 마음대로 물에서 나올 수가 없었다.

게다가 객지에 나가니 일하는 것뿐만 아니라 생활하는 것까지도 쉬운 일이 없었다. 좁은 방 하나를 빌려 세 명에서 다섯 명이 함께 생활하며 갈 때 쟁겨간 보리쌀이나 좁쌀에다가 주인집에서 반찬을 얻어먹거나, 물질을 하지 않을 땐 시간을 내 밭일을 도와 끼니를 해결하곤 했다. 시간이 지나 날이 따뜻해지면 성게나 전복을 잡았으며, 전라남도 여수쪽에서는 강원도에서와 달리 미역이 아니라 해삼이나 홍합, 명게 등을 캤다.

전라도에 가서는 뱃물질도 했는데 배에서 식사부터 불을 쬐는 것까지 모두 해결했다. 바람이 거세게 부는 바다 한가운데서 불을 쬐다보니 몸이 그다지 따뜻해지지도 않았고, 결국 몸이 풀리지 않은 채로 다시 바닷속에 들어가야 해서 특히 고생했다. 어느 겨울에는 물질을 하고 나왔는데 날씨가 너무 추운데다가 찬바람을 많이 맞아서 기절까지 한 적도 있었다.

나인숙 씨뿐만 아니라 추운 날씨에 물질을 하는 해녀 분들이 종종 이런 상황을 겪었다고 한다. 그러나 이런 고생을 하면서도 육지가 제주도보다 잡아온 것들을 팔 판로가 훨씬 넓고, 그로 인해 보다

많은 돈을 벌 수 있어서 힘들고 열악한 상황에서도 참고 견뎌내며 열심히 일했다.

10살부터 70살까지 함께해 온 바다

옛날에는 그냥 얇은 천으로 만든 물소중이를 입었기 때문에 물 속에서는 오래 있지 못하고 불턱에 나와 불을 쪘면서 여러 번 왔다 갔다 했다. 게다가 옷이 몸을 보호해주지 못하는데다가 해산물을 채취할 때 낫을 이용했기 때문에 물질을 하다가 다리나 팔이 베여서 피가 나는 경우도 허다했다. 그러나 지금은 잠수복을 입고 바다에 들어가기 때문에 4~5시간도 바닷속에 있을 수 있고, 다양한 물 품들을 사용할 수 있어서 과거보다 비교적 편하게 물질을 한다. 하지만 물속에 오래 있는 만큼 머리가 아프고 코가 당기기 때문에 나인숙 씨는 항상 뇌선과 같은 여러 약들을 챙겨 먹는다. 이러한 약들을 먹지 않으면 찾아올 통증이 불안해서 물질을 할 수 없다.

평소에 물질을 할 때는 8일은 작업을 하고 8일은 쉬는 방식으로 일하며, 산란기에는 두 달 정도 바다에 나가지 않는다. 어떻게 보면 해녀가 매우 힘든 직업이지만 나인숙 씨는 이 일이 항상 즐겁고 바다에 나가는 것이 여전히 좋다고 한다. 이렇게 나인숙 씨는 해녀일에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어린 학생들이 해녀를 한다면 찬성하지는 않는다. 즐겁고 좋은 일이고 돈까지 벌 수 있는 일이지만 몸이 힘들고 피곤한 일인 탓에 요즈음의 젊은 사람들은 힘들어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만약 뚜렷한 직장이 없다면 해녀도 괜찮지만 본인의 자식이 이 일을 하고 싶다고 하면 권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한다.

나의 친정, 바다

나인숙 씨는 10살쯤에 물질을 시작해서 거의 70살이 다 되어가는 지금까지 계속 물질을 해오고 있는데, 바다에 가면 일이 고되 몸은 물론 힘들지만 물속에 들어가는 것이 처음 물질을 시작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여전히 재미있다고 한다. 또한 무언가를 배울 기회가 드문 옛날에 어머니로부터 해녀일을 배움으로써 스스로의 힘으로 삶을 꾸려나갈 수 있는 하나의 기술을 갖게 되었고, 그것을 통해 돈을 벌어 자식들을 입히고, 먹이고, 교육시킬 수 있었던 것을 매우 자랑스럽게 여긴다.

또한 아직까지도 바다가 자신에게 큰 힘이 된다고 한다. 나인숙 씨는 바다가 친정과 같은 존재라 생각하는데, 빈손으로 가도 바다는 항상 아낌없이 무언가를 주기 때문이다. 바다는 나인숙 씨에게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고 항상 많은 힘과 용기를 준다. 어떨 때 보면 친정보다 더 마음이 편하고 의지가 되는 존재라고 한다.



웃는 모습이 아름다운 해녀 할머니의 생애

제주여자고등학교 1학년 양해림



- 구술자 : 고비자
- 나이 : 1941년생(76세)
- 고향 : 제주시 구좌읍 한동리
- 현거주지 : 제주시 구좌읍 한동리
- 연담자 : 양해림
- 연담일시 및 장소 :
8월 28일, 동기 해녀의 자택

Q. 처음 물질을 시작하시게 된 계기가 무엇인가요?

A. 15살 때부터 해수욕을 하듯이 바다 얕은 곳에서 자주 놀던 고비자 씨는 친구들과 같이 숨 오래 참기 놀이를 하면서 자연스레 물질을 배우게 되었다.

Q. 물질을 할 때의 환경은 어땠나요?

A. 고비자 씨가 본격적으로 물질을 배우기 시작했을 때는 17~18살 정도였다. 그 시절에는 정말 가난하고 힘들게 살았다. 고무옷이 없어서 물옷을 입고 물질을 하였다. 너무 추운 까닭에 길어봐야 한 시간 정도밖에 물질을 하지 못했다. 그때는 바다에 미역밖에 없었는데 고비자 씨는 그 미역이라도 잡아서 팔아 부모님을 도와드렸다. 조금씩 물질을 배워가고 시간이 지난 후에는 소라와 성게를 잡았다. 전복은 어쩌다가 한 번 잡는 꼴이었다. 요즘에는 성게가 비싸지만 그 당시에는 값이 별로 나가지 않았다. 소라도 마찬가지로 가격이 잘 나가지 않아서 팔아도 별로 소득이 되지 않았다.

고비자 씨가 결혼을 한 후 얘기를 낳아야 하는데 돈이 없었다. 땅이 있는 사람들은 조, 보리, 고구마 같은 농사를 지었지만 땅이 없었기 때문에 돈을 벌려가며 생활했다. 아이가 아파도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돈을 벌려 병원에 가며 남에게 의지하는 생활을 하였다. 이렇게 힘들었기 때문에 고비자 씨는 아이가 4~5개월 정도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바다에 나갈 수밖에 없었다. 젖도 나오지 않아 쌀가루를 갈아다가 죽을 췄서 아기한테 먹였는데 그릇조차 없었기 때문에 전복껍질을 사용하였다. 물질 하나로 버티는 고단한 삶이었다. 차츰 우뭇가사리 등 바다에 채취할 만한 것이 늘어가고 밭농사를 짓을 수 있게 되자, 고비자 씨의 생활은 점차 나아져갔다. 또한 어

촌계가 생기면서부터 활발하게 물질을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전복 등을 채취하여 팔 때 어촌계 수수료를 떼다보면 5할에서 7할 정도의 수익밖에 나지 않았다. 이 남은 돈으로 자식들을 공부시키고 생활해 가며 살았다.

Q. 연세가 드셨는데 아직도 물질하러 나가시나요?

A. 고비자 씨는 76세임에도 불구하고 먹고 살기 위해서 물질을 나간다. 물때에 맞춰서 4시간 정도 물질을 한다. 요즘은 전복과 문어가 없어서 소라를 주로 잡는다. 제주해녀의 86%가 그런 것처럼 물질하러 들어가기 전 머리 아플 것을 예방하기 위해 여전히 뇌선을 먹는다. 고비자 씨는 물질을 오래 하였지만 기술이 부족한 탓에 하군해녀에 속한다.



Q. 출가물질을 다녀오셨나요?

A. 고비자 씨는 치녀 때 거제도와 부산 해운대, 울산에 출가물질을 다녀왔다. 거제도에서는 미역만 채취하였고, 부산과 울산에 갈 때는 전복 같은 해산물 대신 우뭇가사리를 채취하였다.

Q. 물질할 때 언제 힘들고 언제 즐거우셨나요?

A. 고비자 씨는 아파서 물질을 못할 때가 가장 힘들었다. 돈을 벌어야하는데 위암에 걸려서 수술하느라 그 동안 물질을 하지 못했다. 1년 후 다시 복귀하려 했을 때 숨이 벅차서 물속에 잘 들어가지 못했지만 7~8년이 지나자 자연스럽게 물질을 할 수 있었다. 고비자 씨가 젊을 때는 돈을 벌어야 자식들을 공부시키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겠다는 마음에 물질하는 것을 그렇게 싫어하지 않았다.

Q. 요즘에 해녀에 대한 대우가 예전과 많이 달려졌나요?

A. 옛날에는 해녀라고 하면 천하게 보곤 했지만 지금은 해녀를 천하게 보지 않고 오히려 병원진료도 공짜인 등의 혜택을 받는다. 고비자 씨는 바다의 해산물이 사라져서 그렇지, 해녀라는 직업에 안 좋은 점은 없다며 해녀를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요즈음 고비자 씨는 해녀에 대해 관심을 가지는 관광객들과 함께 사진도 찍는다.

Q. 지금도 농사하나요?

A. 고비자 씨는 남편과 떨어져 살아서 혼자 농사를 짓는다. 옛날에는 조, 보리, 메밀 등만 심었는데 지금은 당근, 감자를 심는다. 이번 가뭄에 스프링쿨러가 없기 때문에 대를 세워서 물을 뿌렸다. 물을 뿌리려고 자정에도 새벽에도 밭에 올라가서 잠을 잘 자지 못하고 애를 먹었다. 한 곳에 세 시간 정도 물을 주고 대를 다른 곳으로 옮겨가며 며칠 동안 힘들었다.

Q. 결혼생활은 어땠나요?

A. 고비자 씨는 밭도 집도 돈도 없는 사람을 만나 결혼했다. 남편은

술을 많이 마시고 화투도 많이 쳐서 자주 싸우고 피곤하게 살았다. 너무 힘든 탓에 몇 번이나 같이 안 살겠다고 친정으로 도망도 갔다. 그러나 친정어머니의 설득으로 남편에게 돌아가 계속 같이 살게 된 것이다. 지금은 오토바이도 있고 자동차도 있지만 그 당시에는 흔하지 않아서 구르마(일종의 리어카)를 끌고 아기를 업고 남의 밭에 검질 매러 다녔다. 고비자 씨는 남편이 와서 도와주기를 기다렸지만 술을 먹고 자느라 오지 않는 일이 다반사였다. 항상 새벽 2시에 일어나 물 길어오고 검질 매서 아궁이를 때고, 무쇠 솥을 엊어서 밥을 지었다. 냉장고와 세탁기도 없던 탓에 지금보다 훨씬 힘든 삶을 살았다.

고비자 씨의 남편은 차차 나이가 들어가면서 마음을 잡아 노력을 했다. 여전히 술은 많이 드시지만 말이다. 그런데 남편이 뇌경색에 걸려 지금은 요양원에 있다.

삼천포 물질로 청춘을 보내고

제주중앙여자고등학교 1학년 고민주 박미선 강성민 장지은



· 주술자: 고순덕

· 나이: 81세

· 고향: 우도면 조설리

· 현거주지: 우도면 조설리

· 멀답자:

고민주 · 박미선 · 강성민 · 장지은

· 멀답일시 및 장소: 7월 30일, 자택

2016년 7월 30일 아침, 우리 해녀 조사팀은 인솔교사이신 강만익 선생님의 작은 차를 타고 오전 9시 성산포항에 도착하여 우도에 들어갔다. 우도는 소의 머리 형상을 하고 있는 화산섬이다. 바다뿐만 아니라 농사짓는 땅도 넓어 우도 주민들은 농업과 나잠업을 동시에 한다.



우도 해녀들의 작업터전,
우도바당

해녀 조사는 우도의 변화 모습을 조사하기 위한 주제 중 하나로 이루어졌다. 4명으로 구성된 우리 학교 해녀 조사팀은 사전에 조사할 해녀 분과의 예약 없이 영일동에 살고 계신 미선이 작은엄마를 만나뵙고 인사를 드린 다음, 해녀 분을 소개받기로 했다. 우도를 방문한 날은 날씨가 화창했으나 태양 빛이 매우 강렬했다. 우도에 도착한 후 미선이 작은엄마네 집을 찾아 갔다. 우리들은 반갑게 맞아주시는 작은엄마께 인사를 드리고, 시원한 수박을 먹으며 더위를 식혔다. 그리고 해녀 경험담을 말씀해주실 해녀 분을 소개해 달라고 부탁드렸다.

그러자 작은엄마께서는 평소에 잘 알고 말씀을 잘해 주실 수 있는 해녀 분들께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연락되는 해녀 분이 없었다. 우리들이 그 이유를 물으니 지금은 물때인 탓에 물질작업을 하고 있다고 하셨다. 그러시면서 우리들에게 오후에 다시 방문하라는 말씀을 남기셨다.

그래서 우리들은 최근에 우도가 많이 달라지고 있는 해안을 따라 탐방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동천진동항에 있는 우도해녀항쟁기념비를 보면서 1930년대 일제에 저항하며 일으켰던 우도 해녀들의 기상과 저항정신을 배울 수 있었다. 하우목동에 있는 홍조단괴 해변에서 홍조단괴의 형성과정과 해안퇴적, 그리고 해안에 인공시설물들이 등장하고 방파제가 만들어지면서 파괴되는 홍조단괴 해변을 생생하게 관찰할 수 있었다.



해녀조사단 모습

하우목동 항구를 둘러보고 주홍동으로 이동한 다음 우도의 명물로 알려지고 있는 ‘한라산볶음밥’을 점심으로 먹었다. 잠시 휴식을 취한 후 하고수동 해변에서 사진을 찍고 돌담 해안을 따라 이동하며 비양동에 도착했다. 그런 다음 이곳 서쪽에 있는 우도의 섬인 비양도를 찾아갔다. 이곳에서 해녀들이 물질을 하고 있었다. 비양도에는 섬을 한바퀴 도는 올레길이 만들어져 있었다. 우도 해안에는 경관이 좋은 장소를 따라 우후죽순처럼 식당들이 생겨나고 있다. 우도로 들어온 외지인들에 의해 식당들이 운영되고 있다는 설명을 들으니 우도의 미래가 어둡다는 생각도 들었다. 어느덧 약속 시간이 되어 작은엄마 집으로 갔다. 우리 일행을 기다리고 계셨던 작은엄마는 근처에 살고 계시는 해녀 한 분을 소개해 주셨다.

우도 해녀, 고순덕(高順德)

나이는 81세. 우도 토박이셨다. 왜소해진 체구는 아마도 세월 턱 이리라. 그 동안 겪으셨던 풍파의 흔적들이 얼굴에 고스란히 나타나 있었다. 마음이 찡했다. 할머님께서는 집을 방문한 우리들을 반갑게 맞아주시면서 덥다고 하며 그늘로 안내해 주셨다.

그러시면서 자신을 만나는 이유를 물으셨다. 민주가 “우도의 해녀 분들은 어떻게 살았는지 인터뷰하려 왔습니다”고 대답했다. 순간 아차했다. ‘인터뷰’라니. 할머님이 ‘인터뷰’라는 말을 과연 아실까, 하며 다시 대답하려는 순간, 할머님은 “인터뷰? 그거 테레비에 나왕 말허는 거?”하고 하시면서 인터뷰 경험이 있다고 말씀하셨다. “방송에서 여기로 자꾸 인터뷰하러들 와서, 그땐 해변가에서 인터뷰를 했는디, 예전에 해녀질하는 거 인터뷰 많이 했지. 모살개 해녀 길 닦아논 데서. 겨울에 바다에서 성게 까단 보난 하루는 조카들이 이모가 인터뷰헌 거 테레비 전국방송에 나왔다고 허더라고”

우리들은 ‘휴, 다행이다’고 생각하며 본격적으로 서로 변갈아가며 질문 보따리를 풀기 시작했다. 다음은 우리들에게 들려주셨던 할머님의 해녀 경험담이다. 할머님은 현재도 해녀일을 하고 계시나, 몸이 약해져 깊은 바다에는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셨다. 나이 들면 바다가 더 무서워진다고 하셨다.

“결혼은 언제 하셨나요?”

“21살에 했지. 결혼해도 28세까지 해녀질하러 육지에 다녔어. 경상도 삼천포에서 우도 집에 오니깐 얘기가 들어선. 그때 남편이 집을 지어서 함께 살아신디, 얘기 아방은 33세에 돌아가부렸어. 지금은 자식들 결혼시키고 혼자 물질하며 살고 있어”

열일곱부터 좀수질

“언제부터 물질을 하셨나요?”

“학교를 아홉 솔에 들어강 열다섯 솔에 졸업해 가지고, 열일곱 솔부터 좀수질을 배웠지. 어릴 적부터 마을 앞바당에서 헤엄을 치며 놀아 좀수질 배우는 것은 어렵지 않았지” 물질은 바다에서 소라나 전복을 따서 팔아 돈을 버는 것이었다. 그래서 돈을 벌기 위해 악착같이 물질을 배웠다고 하셨다. 바다에서 번 돈으로 아들딸 모두 결혼시켰고, 현재는 그럭저럭 생활이 된다고 하셨다.

해녀들에게 바다는 ‘삶의 원천이고 무대이며, 에너지원이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곳의 해녀들은 물때를 보면 밭농사 또는 바다농사를 동시에 했다. 물때가 아닌 경우에는 밭에 나가 땅콩, 쪽파 등을 심고 관리한다. 물때가 되면 허리를 간단히 채운 다음, 물질도구들을 준비해 바다로 들어간다. 해녀들은 쉴 틈이 없다고 하셨다. 쉬는 날은 큰 비나 바람이 불어 집 밖으로 나갈 수 없는 날이었다.



마당에서 도박 말리는 모습

우도 바다에는 소라와 전복이 많았다. 지금은 많이 없어 양식도 하고 있다. 천초(우뭇가사리), 미역, 듬뿍, 도박, 감태도 많이 났다. 우도는 다른 마을에 비하면 그래도 물건들이 많아 해녀들이 먹고 살기에 편했다. 오다 보니 길에서 해초를 말리고 있었고, 차들이 그 위

를 달리고 있었다. 길에서 우뭇가사리를 말리기도 한다. 이것을 햇볕에 말린 후 마계로 두드려야 한다. 차가 지나면서 밟아주면 오히려 좋다고 한다. 이 집 마당에서는 도박을 말리고 있었다.

우도 해녀의 일상

“우도에서 해녀일을 할 때 언제가 가장 힘들었나요?”

“전복 딸 때 힘들지, 많이. 그리고 바닷가에 와서 마중이 없을 때. 할아버지(남편)가 어시니까 누가 전복 망사리를 밖으로 꺼내 줄 사람이 어실 때. 그때가 가장 서립고 힘들곡 하여” 전복은 무게가 많이 나가므로 혼자 들기 힘들었다. 그래서 남편의 도움이 절실했다. 그러나 일찍 남편을 여읜 고순덕 해녀는 마중 나온 사람 없이 혼자 전복 망사리를 끌어올려 운반해야 했다.

“당(堂)에 자주 가시나요?”

“예전에 젊었을 때 갔주. 지금은 잘 안 가서 모르겠다. 이젠 당을 관리하는 책임자만 가주. 나이 많은 사람들은 잘 안 가곡”

“당에 갈 때 어떤 것을 준비해 가시나요?”

“옛날에는 뭐 무신 거 상 갔지만 지금은 뭐 출령 가지 않고 돈으로 가져가주. 그디 사람들이 알앙 다 차리기 때문에 부조 같이 돈을 봉투에 담양 가주” 바다에서의 물질은 목숨을 담보로 했다. 따라서 안전한 작업을 위해서 신앙이 필요했다. 우도 해녀들은 마을 근처에 있는 당신(堂神)에 의존해 무사안녕을 기원했다. 그러나 현재 당을 찾는 해녀들이 줄고 있다. 해녀 수가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과거에 당을 찾을 때는 정성을 다해 음식을 준비해 진설하여 기원했으나 지금은 당 관리자만 당을 찾고, 당에서 큰 굿을 할 때는 제

물 대신에 봉투에 돈을 담아 상에 올리는 형식으로 간소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동네에는 ‘할망바당’이 있나요?”

“물가에 있주. 막 멀리 깊은 덴 안 가곡” ‘할망바당’은 고령의 해녀들을 위한 배려의 공간이다. 모든 해녀들은 반드시 나이 들어 은퇴를 해야 하므로 이들을 위해 해녀 공동체에서 관습적으로 지정해 둔 곳이 ‘할망바당’이었다.

“물질을 하지 않을 땐 무슨 일을 하시나요?”

“밭에 강 일도 허고. 농번기엔 바다에 가기 전에도 밭에 가곡. 밭에 갓당 바당 가고. 물에 가기 전엔 밭에 가곡, 물에 갓당 밥 먹 Ying 밭에 가곡. 바다에 가기 전까지 밭에 가고. 오전에 갈 때는 아침에 바다에 갓당 오후에 밭에 가고, 오후에 갈 때는 밭에 갓당 바당 가고. 우도에서는 노는 시간이 따로 없지. 물때가 궁헐 땐 바다에 안 가지” 우도 해녀들의 노동력은 바다와 밭으로 향한다. 이것은 우도가 반농반어촌이기 때문이다. 땅을 놀리면 동네에서 게으르다고 욕을 먹기도 한다. 우도에서 여성들은 그야말로 부지런함의 상징이나 한편으로는 일 년 내내 일을 해야 하는 고달픈 존재이기도 했다.

우도에서 해녀 되기

“해녀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바다에 강 막 혜엄청, 물속에 갓당 나왔당 반복하면 해녀가 되는 거지. 처음부터 한꺼번에 못해. 자꾸 가믄 배워지는 거지”

“누가 물질을 가르쳐 줬나요?”

“누가 배워주진 안 혀영. 어렸을 때 땅에서 안 놀곡, 바다에서

놀아서. 여름에 막 더울 때 바다에 강 헤엄치고 장구치고. 보말도
줍곡. 여기 이신 거도 따오곡. 장난 삼양 막 뭐든 따오는 거라. 어릴
때 바당에서 놀당, 돌에 몸 박아부러서 다친 데도 있어”

우도에서의 물질 배우기는 누구에 의존하기보다는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 눈 뜨면 보이는 것이 해녀들이 작업하는 모습이었다.
그래서 여름철에 바다에 나가 장난삼아 헤엄치며 물속에 보이는
보말, 도박 등을 채취하며 자연스럽게 해초 이름들을 기억하면서
해녀의 길로 들어선다.

“물질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따로 있나요?”

“건강할 때까지 하곡, 아프믄 못 허지. 나이가 드니까. 건강하믄
80 넘영까지 하곡, 건강 안 허믄 80 넘영까진 못허주. 나는 내년까
직 할 거라. 몸이 허락하믄 하는 거고, 못하믄 안 하는 거고” 해녀들
에게 과연 정년이란 게 있을까? 해녀 작업은 아마 죽어야 끝이 나
는 일인 것 같다. 고순덕 해녀는 자기 스스로 몸의 상태를 알기에
82세로 정년을 정하신 것 같다.

“여기 해녀 중 가장 나이가 어린 사람은 누구인가요?”

“현아, 현아가 서른 몇인가야. 원래 여기 사람이라. 우도 전체에
서 가장 나이가 어려. 여기서 크고, 여기서 중학교까지 허고, 고등
학교와 대학교는 시에서 하곡. 결혼하고 여기 와서 작업하는 거지”

“이 동네 해녀는 몇 사람이나 되나요?”

“나이 많은 사람까지 끼워 넣으면 15명에서 20명이고, 옛날엔
50명 정도 있어서. 이 중에서 내가 나이 가장 많아, 가장 젊은 애가
서른 몇이여. 다들 시집 가불곡, 나이 들어불곡해부난 해녀 수가 막
적어져”

우도의 최연소 해녀는 30대의 ○현아 씨라고 한다. 그녀는 우도

토박이로 고등교육은 제주시에서 마친 후 고향으로 돌아와 물질한다는 것이다. 과거에 이 마을에는 50여 명의 해녀들이 있었으나 현재는 20명 정도로 감소했다. 이렇게 해녀 수가 감소한 이유를 고준덕 해녀는 다른 지역으로 시집 가버리거나 고령화를 주요 원인으로 들고 있다. 타지 결혼으로 인한 이주와 고령화로 해녀일을 포기해 버린 결과 해녀 수가 감소했다는 것이다.

물질의 조건, 동회 가입

“다른 데서 살다가 온 사람들의 경우엔 어떻게 하면 물질을 할 수 있나요?”

“동회(洞會)에 가입해야주” 동회는 마을회를 말한다. 동회에 가입한 여자에 한해서 물질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다. 이 점은 배타적으로 보일 수 있으나 한정된 바닷속 물건들을 지속 가능하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입어자격을 아무에게나 개방하는 것엔 위험부담이 따른다고 한다.

“그러면 동회에 가입할 때 대가를 지불하지 않나요?”

“동회 가입비가 300만 원이여. 300 정도 됨주. 300만 원 내믄 그 동네에서 물질할 자격이 되는 거여. 죽을 때까지 할 거. 우리 동네만 300만 원이지, 다른 동네는 막 더 비싸”

“다른 동네 가입비가 더 비싼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기는 바다에서 나는 것이 더 많으니까. 그런 걸 거라”

동회 가입비는 마을별로 다르다. 바닷속 물건들이 많아 수입이 많은 마을에서는 동회 가입비를 높게 책정한다. 능력이 있는 사람만 높은 동회 가입비를 부담하고 바다에 들어가라는 것이다. 바다

환경에 따라 동회 가입비를 달리하는 것은 어쩌면 합리적 차별이라 할 수 있다.

육지물질 떠난 배경 1; 바다싸움(어장분쟁)

육지물질은 제주의 해녀들에게 매력적인 선택지였다. 제주지역은 전복과 소라를 채취할 수 있는 마을어장이 좁아 해녀들 간의 수산물 채취 경쟁이 매우 심하였다. 마을 바다의 경계설정을 둘러싸고 다툼도 있었다. 두 마을 해녀들이 사생결단하겠다며 덤벼들었던 바다싸움이었다. 영일동과 비양동 해녀들 간의 싸움이었다. 싸움은 격렬했다고 한다.

바닷속의 물건들은 바로 돈을 의미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가급적 모래가 없고 ‘여’가 있어 소라와 전복이 잘 자라는 바다공간을 차지하려고 하면서 해녀들 간에 싸움이 벌어진 것이었다. 결국 평화협상으로 해결되지 못해 법으로 가기도 했다. 땅 위에서는 두 마을 해녀들 간에 사이가 좋으나 바다로 들어가면 눈에 불을 키고 바다를 지킨다고 한다.

육지물질 떠난 배경 2; 줄어드는 바닷속 물건들

이처럼 좁은 어장을 양분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던 바다싸움, 즉 ‘해녀사건’도 해녀들을 육지로 보내는 하나의 원인이 되었다고 한다. 더욱이 바닷속 물건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상황은 제주해녀들을 육지로 보내는 또 다른 동력이었다. 제주에서 작업할 때보다 육지물질로 버는 수입이 많았기 때문이다.

육지물질은 김오일 소개로

“누구 소개로 육지에 물질을 하러 갔나요?”

“남편이 잘 아는 분이었던 하우목동 오일이 하르방 소개로 간 거라. 그 하르방 지금은 돌아가서. 이름 잘 모르크라. 하도 오래부 난. 그 할아버지 아마 김가일 거라. 이름은 김오일인가?” “그 하르방은 본래 벤사공이었주. 그 사람허곡, 우리 동네 사람인 용민이 아방 김민준이. 둘이서 벤사공질하면서 해녀들을 모집했지”

우도 해녀들의 육지물질은 육지 바닷가에 살고 있는 친척이나 먼저 육지물질 나갔던 해녀들의 소개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고순덕 해녀처럼 육지에 아무런 연고가 없었던 경우는 ‘동네 잘 아는 사람’의 소개를 받아 육지물질을 나갔다고 한다. 믿을 만한 사람의 소개가 있어야 육지로 물질을 나가는 결정을 했다. 물질은 목숨 걸고 하는 일이기 때문이었다.

삼천포 물질

“육지로의 물질은 언제부터 다니셨는지요?”

“열아홉 솔 나니까 육지로 해녀일하러 나갔어”

“어디로 가셨는지요?”

“경상도 삼천포. 삼천포 가서 전복을 땠지. 전복 따는 배가 있었어, 2등을 하기도 했지. 거기에 전복 많더라”

“삼천포에는 어떻게 갔는지요?”

“배로 부산까지 간 다음, 삼천포로 빠졌지”

“해마다 물질을 떠나셨는지요?”

“해마다 기회가 되면 갔어”

“삼천포 말고 다른 곳도 갔나요?”

“우리 언니가 있던 울산 하포에 있었는디. 이곳에 잠시 머물면서 메역을 케기도 했지. 그 후엔 계속 삼천포에만 있었지, 삼천포로만 물질 다녀서. 지금은 전복을 땄던 삼천포 바닷가가 메꾸어졌다 고 하더라”



“삼천포에서 지낼 땐 어디에서 주무셨나요?”

“집을 비러 가지고. 세냉. 일년 사는 것까진 안 허고, 봄에 강 8월 나면은 맹질 먹으려 들어오는 거주. 가을까지 하려고 하면 집세 더 내곡. 한 달에 얼마 정도 더 내는 걸로”

“한 달에 집세로 얼마를 냈나요?”

“너무 오래 돼 부난 얼마 줘신지 몰라”

삼천포에 머물며 물질하기 위해서는 임시 거처가 필요했다. 대개는 같이 간 해녀들이 함께 돈을 모아 집을 빌려 살았다. 1년 계약이 아니고 물질 기간에만 거주해야 하므로 월세계약을 했다. 육지 물질은 봄철(5월 전후)에 출발해 8월 추석 전에 돌아왔다. 대체로 3개

월 동안 출가물질이 이루어졌다. 추석 전에 들어올 이유가 없는 경우 월세를 더 내 가을까지 작업을 했다. 겨울이 되면 남해안도 수온이 내려가므로 작업하기 힘들었다. 한겨울 추운 날씨는 오히려 그동안 지친 해녀들을 쉬게 해 주었다.

“삼천포에서 물질한 물건은 어떻게 팔았나요?”

“뱃사공이 대신 팔았주. 판장에 가서 뱃사공들이 회계해 가지고 키로 수 따정 해녀들에게 줬지”

“저울로 무게를 속이진 않았나요?”

“속이고 경 허진 안 허고, 누구 얼마, 누구 얼마 그렇게 적었 가지고 우리들은 수협 판장에 가서 경매 상황을 지켜보지. 키로에 열마하는지”

“수입은 어떻게 나누었나요?”

“해녀들을 바다로 실어 나르고, 물건을 운반했던 선주들은 해녀보다 좀 많이 가졌다. 그래도 돈 들어올 땐 제일로 기분이 좋았지”

삼천포에서 해녀들이 채취한 물건들은 해녀들을 대신해 선주가 수협 공판장에서 팔았음을 알 수 있다. 해녀들은 선주에 고용되어 있기 때문이다. 선주들은 해녀들이 채취한 물건들을 해녀 이름과 함께 채취량을 기록한다. 나쁜 마음을 먹고 저울을 속여 채취량을 줄여 기록하지 않았다. 만일 그랬다가는 소문이 나서 다음부터는 해녀들을 모집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정직한 선주에게 해녀들이 모이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판매소득은 선주가 해녀보다 많이 가졌다. 분배비율은 7:3, 6:4, 5:5가 있었다. 판매수입은 물질 작업환경과 kg당 판매액을 고려하여 서로에게 갈등이 없을 정도로 적절하게 분배되었다. 서로에 대한 신용이 무엇보다 중요했기 때문이리라. 채취량에 비례하여 수입

이 분배되기 때문에 짧은 체류기간에 돈을 모으기 위해선 쉴 틈이 없었다. 몸이 아파도 물에 들어야 했다. 고향에는 돈을 벌어오기를 기다리는 가족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육지에서는 돈을 어느 정도 벌었나요?”

“삼천포에 강 최고로 벌어나서. 그때 최고 벌었으면 지금 돈으로 20만 원 정도 벌어서. 그 돈으로 뒷동네 밭도 하나 사서” 고순덕 할머니는 19세부터 당차게도 육지물질을 다녔다. 6·25전쟁 직후부터 삼천포를 왕래하며 10여 년 간 물질을 했다. 그렇게 하여 애써 모은 돈으로 뒷동네 밭도 샀다. 제주해녀들의 근검절약 정신을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고순덕 해녀의 더 넓은 바다로 진출하여 돈을 벌어보겠다는 개척정신과 진취적 자세는 제주해녀들이 갖춘 공통된 심성일 것이다.

“삼천포 가면 먼 바다까지 가지는 않나요?”

“삼천포에서는 우리를 고용한 선주 배를 타 가지고 일할 바다에 나갔지. 도착하면 배에서 해녀들을 바다 이디 저기 다 드리치지. 배로 가믄 멀리까지 가기도 했어. 그래도 그날 강 바로 돌아와. 그런 다음 아침에 강 저녁 때 돌아와” 삼천포 물질은 대부분 뱃물질이었다. 선주의 배를 타고 작업장소로 이동하여 소라나 전복을 잡수해 채취했다. 가끔 먼 바다로 가기도 했으나 작업 장소는 하루 이동이 가능한 곳이었다. 아침에 출발하여 저녁에 돌아오는 일정이었다. 기상상태가 중요했기 때문에 바람과 파도가 없는 맑은 날이 물질작업에 적당했다.

“한 달에 몇 주 정도 작업했나요?”

“한 달에 물때 맡고는 3일 정도는 놀아. 3일 정도 놀고 나머지는 작업하지”

“그 3일 정도 쉴 때는 물때를 보고 놀았나요?”

“물때, 13물(막물), 14물(아끈재기)때” 삼천포에서의 물질은 한마디로 쉴 틈이 없었다. 공휴일이 따로 없었고, 물때를 봐서 작업이 불가능하거나 기상조건이 좋지 않을 때만 휴식을 얻을 수 있었다.

“해녀일을 할 때 언제가 가장 기분 좋았나요?”

“우리 쪽드레 간 사람은 전부 망사리로 소복하게 전복을 따서. 전복밭에서 15키론가 몇 키로를 따서. 그때가 제일 기분 좋았어. 바당 속을 모르는 디 가서. 전복을 많이 따니깐 제일 기분 좋지, 돈 많이 버니깐” 바당속을 알 수 없는 바다에 전복들이 많이 있었다. 깊은 바다에 들어가야 큰 전복을 딸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 상군해녀야만 물질작업이 가능했다. 고순덕 해녀는 당시 상군해녀였다.

고무 잠수복

“그때는 고무 잠수복을 입었나요?”

“그때는 고무옷이 없었어. 속옷. 속곳. 소중이. 광목으로 만든 거, 물적삼하고. 우리 시대엔 ‘까부리’라고 모자처럼 만들 Ying 썼어. 옛날 할머니들은 물적삼도 없고 소중이뿐”

“고무옷은 언제부터 입었나요?”

“한 45년 아니면 50년쯤 되어실 거라”

“고무옷 입으면 좋은 점이 있나요?”

“아무리 오래 일해도 춥지 안 헉곡. 물속에서 더 오래 사니까 소라 전복 더 딸 수 이서”

“고무옷 입으면 나쁜 것이 있나요?”

“그런 거 잘 어서”

우도해녀들은 고무잠수복이 들어오기 전에는 광목으로 만든 물소중이를 입고 물질했다. 물소중이 위에는 물적삼을 입었다. 1960년대까지만 해도 겨울에만 방한용으로 물적삼을 입었다. 1970년대부터 고무잠수복이 도입되기 시작하면서 물소중이가 잠수복으로 대체되기 시작했다. 그 결과 물속에서 추위를 극복할 수 있게 되면서 작업시간이 늘어났고 소라나 전복을 더 많이 딸 수 있었다.

직업병 치료제, 뇌선

“작업 시간이 오래 걸리면 머리가 아프지 않나요?”

“그런 건 오래 작업 안 해도 머리 아픈 사람은 머리 아픈다. 작업 갈 때는 뇌선이라는 약이 이신디 그거를 꼭 먹는다”

“뇌선을 먹으면 좋은 점이 있나요?”

“먹으면 몸이 좀 가벼운 느낌, 머리도 좀 덜 아프고. 약간 진통이 적어지는 거라. 뇌선 안 먹고 물에 들어가믄 집에 와도 머리가 아파. 물에 들어가기 전에 뇌선 먹엉 들어가면 물에서 나와도 머리가 안 아파. 이거는 직업병이지, 직업병. 제주의료원에 가면 잠수 뭐 그런 곳에 해녀는 일 년에 한 번씩 두 번씩 진료받지”

뇌선(腦旋)은 두통이나 귀의 통증이 있을 때 먹는 약이다. 물질에 따라 나타나는 직업병을 치료하기 위한 약으로 알린다. 해녀들은 습관적으로 뇌선을 먹는다고 한다. 이 약을 먹으면 몸이 좀 가벼운 느낌이고, 머리도 덜 아프며, 약간 진통이 적어진다. 뇌선을 안 먹고 물에 들어가면 집에 와도 머리가 아프다고 한다. 그래서 물에 들어가기 전에 뇌선을 먹고 들어가야 작업 후 물에서 나와도 머리가 아프지 않기 때문에 제주의 모든 해녀들에게 뇌선은 어쩌면 생명

을 연장해 주는 약일 수 있다.

해녀조사 중에도 우도 바다에는 여전히 해녀들이 주황색 테왁에 의존해 물질을 하고 있었다. “휘이 휘이”하고 내뿜는 숨찬 숨비 소리는 해녀들의 처절한 몸부림처럼 들린다. 해녀들에게 바다는 생명의 공간이다. 바다에 들어야 행복을 느낀다고 한다. 내년까지만 물질을 하고 이젠 쉬시겠다는 고순덕 해녀의 건강을 기원한다.

두 해녀 취재일기

제주중앙여자고등학교 2학년 김지영



- 구술자 : 김옥자
- 나이 : 1940년생 (만 76세)
- 고향 : 서귀포시 성산읍 신촌리
- 현거주지 : 제주시 이도2동
- 연락처 : 김지영
- 연락일시 및 장소 :
7월 17일, 8월 27일, 자택

- 구술자 : 강복순
- 나이 : 1964년생 (만 52세)
- 고향 : 서귀포시 대정읍 하모리
- 현거주지 : 서귀포시 성산읍 서성일로
- 연락처 : 김지영
- 연락일시 및 장소 :
9월 11일, 자택

취재를 시작해 볼까? 근데 누굴 취재해야 하지? 호기롭게 시작하자고는 했지만 막막했다. 일단 조언을 들은 대로 인맥을 활용해 볼까?

“아버지, 주변에 아는 해녀 있어요?”

“해녀? 너 할머니 해녀였잖아!”

헉! 처음 안 사실이었다. 다른 누구도 아니고 바로 할머니가 ‘해녀’라니? 그러나 부연된 설명을 들어보니 할머니는 해녀로서 활동한 기간이 짧았다고 했다. 그렇지만 할머니도 분명 해녀였다고 했으니 먼저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어보기로 결정했다. 그럼 출발!

1. 현옥자, 우리 할머니의 삶

늘 보아오던 할머니를 상대로 인터뷰를 하자니 조금 어색한 기분도 들고 약간 긴장도 되었다. 그러나 곧 내가 모르던 어릴 적 할머니의 굵곡진 인생사를 알게 되면서 아버지까지 전해 내려오는 가족사를 알 수 있었다. 나의 할머니가 아닌 아버지의 어머니로서의 할머니를 만날 수 있는 시간이었다.



할머니와 형제들

현옥자 할머니는 1940년 서귀포시 성산읍 신천리에서 3남 4녀 중 셋째로 태어났다. 어릴 때부터 밭일과 물질이 일상적인 때였다.

당시엔 학교 가는 아이들도 얼마 없었던 터라 가라는 말에도 귀찮아서 갔다가 돌아오길 반복하곤 했다. 지금 돌아봤을 때 그때 학교에 다니지 못했던 것이 아직도 한으로 남는다고 말씀하신다.

첫 물질은 15세 때, 혹은 그 전이었다. 어머니도 해녀였고, 동네 사람들도 해녀가 태반이기에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고향인 신천리 바다에서 주로 미역을 잡았다. 그때는 고무옷이 없던 시절이라 ‘물 웃’이라고 하는 물소중이와 적삼 차림이었다. 미역 말고 소라도 잡고, 작살로 고기도 잡으면서 반찬을 했다. 쳐녀 때는 숨도 잘 참고, 미역하는 손도 꽤 빠른 편이다 깊은 곳까지도 곧잘 들어가곤 했다.

17세 때 처음으로 육지물질을 나갔다. 어린 나이에 배를 타고 나가면서 어른들이 해녀노래 부르는 것을 들었다. 대체로 노 젓는 사람들이었다. 첫해는 흑산도에 가서 전복 잡는 일을 도왔다. 제주도 물은 밑이 환하게 보이는데, 여기는 물이 어둡고 칙칙해서 밑에까지 가야만 뭐든 건져올릴 수 있었다. 이듬해에는 사랑도로 가서 미역을 잡았다. 그해 추석에는 큰 사라호 태풍이 불어 닥쳤다. 역대 최고의 인명 피해가 났던 태풍이었다. 그렇게 2년을 보내고 돌아왔다. 다른 사람들은 육지물질 나가면 큰돈을 번다고 하는데 그렇게 큰돈은 벌지 못했다. 그때 같이 간 사람들과 방을 구해 2~3개월 같이 살았던 기억이 난다.

20세에 중매를 통해 결혼을 했다. 남편은 초등학교 교사였다. 당시는 풍천초등학교에 있었다. 할아버지는 키가 작은 편이었는데 할머니의 키는 꽤 큰 편이어서 결혼을 결심했다고 한다. 결혼하고 8개월 후 남편이 군대를 가 남편이 없는 동안 맏아들을 낳았다. 아들을 외할아버지, 즉 할머니의 아버지가 봐주었다. 그 동안 밭일과 물질을 동시에 했다. 밭일을 할 때는 인력이 없어서 가마니에 한가

득 담아서 옮기고 널고 하는 모든 일을 도맡아 했다. 고된 노동이었다. 그때는 맏아들이 뱃속에 있던 때라서 유산을 걱정했을 정도였다고 한다. 거기에 물질 나가서 미역 캐는 일도 더했다. 아기를 낳고 난 다음에도 아이를 업고 일을 하느라 힘들었다. 하지만 성실하게 일을 했더니 큰돈을 벌었다. 무려 14만 원이었다. 그 돈으로 집과 소를 사느라 생긴 남편의 빚도 갚고, 땅도 샀다.



할머니 결혼사진

그런데 출산하고 며칠 안 되어 물질을 나갔다가 귀가 멍멍해지는 귓병이 났다. 한번은 귀를 ‘딱’ 때리는 충격에 정신이 멈춰서는 것 같았다. 물 밖에 나왔더니 잔잔한 바다였던 것이 사납게 휘몰아치는 것처럼 두려웠다. 그때 그렇게 죽을 고비를 넘긴 뒤로 점차 물질을 잘 못하게 됐다. 그 전까지는 중군까지는 했는데 이후부터는 중군도 못되었다.

곧 남편이 제대를 하고 나서 태흥국민학교로 발령이 났다. 그곳에서 2년을 보냈고, 거기서도 물질을 했다. 이어서 딸아이를 낳았다. 그런데 청천벽력처럼 며칠만에 파상풍균이 잘못 들어 슬픔 속에 아이를 보내고 말았다. 슬픔을 가눌 새 없이 이어서 2남을 낳았다. 다행히 건강한 아이였다. 태흥리 다음은 바닷가 근처가 아니라 물질을 못했고, 그 다음 학교인 마라도에 가서 물질을 계속했다. 큰

아이가 막 학교를 다닐 즈음이었다. 마라도에서는 5년을 살았다. 그 곳에서 3남, 즉 나의 아버지를 낳았다.

마라도는 미역과 소라, 전복이 좋은 곳이지만 귓병 때문에 소라나 전복을 보아도 들어가지 못했다. 그럴 때면 옆 사람에게 저쪽 바다에 전복이 있으니 가보라는 소리밖에 할 수 없었다. 그러면 가끔 그 물건들을 가져다주기도 했다. 마라도에서 난산리로 돌아온 다음부터는 거의 물질을 하지 않았다. 거의 40대를 전후로 해서는 아예 해녀일을 그만 두었다. 몸이 아파 해녀를 업으로 삼지는 못했다고 했다. 대신 다음부터는 밭일을 주로 했다. 주로 고구마, 깨, 굴을 수확했다. 그리고 아이들을 키우면서 어머니로서, 나의 할머니로서의 삶을 살아갔다. 지금은 할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제주시에 올라와 혼자 살고 계신다.

2. 강복순, 막둥이해녀의 바다

해녀가 되다

‘막둥이해녀 복순이네’ 성산의 한적한 도로를 달리다보면 친근한 이름의 식당 하나를 발견할 수 있다. 작은 곳임에도 손님들이 북적북적한 이곳은 직접 잡은 해산물로 음식을 하는 복순이 할머니네 가게이다. 사실 할머니라고 부르기엔 너무나도 젊어 보이는 강복순 할머니는 이 부근 해녀 가운데 가장 어린 ‘막내해녀’이다.

모슬포에서 태어난 할머니는 오빠가 둘에 언니만 셋인 다복한 집안의 막내였다. 친정이 바닷가 근처라서 어렸을 때부터 물과 친했다. 수경을 쓰고 물밑에 내려가 돌을 잡는 놀이도 하고, 좀 더 큰

후에는 미역이나 우미 잡는 일도 했다. 그래도 직접 물질을 나가진 않았고, 실제로 형제 중 유일하게 해녀일을 한다. 가정 형편이 나쁘지 않았던 터라 대정여고를 나온 후 21세에 이른 결혼을 했다. 그리고 나서 터를 잡은 곳이 이곳 성산이다.

1남 1녀를 낳고 서른둘에 아버지가, 서른다섯에 어머니가 돌아가셨다. 그리고 그 이듬해 본격적으로 물질을 시작했다. 처음의 현실적인 계기는 살기 힘드니까 해녀가 수입이 좋다는 이야기를 듣고 시작한 것이었다. 그러나 이제 할머니에게 물질은 단순한 돈벌이 이상이 되었다. 물질을 시작하기 전에는 밭일하는 게 전부였는데, 이제는 아침에 해녀 분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노래도 하면서 웃는 일이 많아졌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슬펐던 일이나 살면서 힘들었던 게 해녀일하면서 풀린다. 친목을 다지는 분위기라 서로 챙겨준다.

물질은 섭지코지에서 하신다. 섭지코지는 소라, 전복, 해삼 등 다양한 해산물이 나는 곳이다. 10월부터 소라 작업을 시작해서 전복도 잡는다. 이런 바다 지식은 어른들이 알려주신다고 한다. 그토록 긴 세월 물질을 했는데도 바닷속을 다 알지 못한다. 처음 물질을 할 때는 바닷속에도 땅처럼 주소가 있다는 게 참 신기했다. 그러나 자신을 낚추는 말과 달리 할머니는 동네에서 상군해녀에 속한다. 문어도 곧잘 잡아 올리고, 하루에 전복을 2kg이나 잡은 적도 있다. 소라는 무려 109kg까지 잡아봤다. 성게는 안 하지만 작살로 고기 잡는 일도 한다.

물질할 때 신기하게도 바닷가 가면 힘이 난다. 물질이 끝나면 옛날에는 불턱에 모였지만 지금은 탈의장에 모여서 옷도 말리고 다른 할머니들과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눈다. 할머니 자신은 가본

적 없지만 출가물질을 다녀온 이야기도 가끔 듣는다. 그 분들이 말 씀하시길 가족들과 떨어져서 지내는 게 가장 힘들었다고 한다. 그래서 자신은 못 다녀올 것 같다고 덧붙였다.



해녀 이후의 삶

물질을 하러 들어갈 때는 처음에 고무옷을 입고, 가벼우니까 뜨지 말라고 허리에 납을 찬다. 그 다음 호맹이(까구리), 벗창을 들고, 테왁망사리까지 준비하면 끝이다. 물에 들어갈 때는 체질마다 다른데 단번에 깊은 데 들어가는 분도 있고, 할머니 같은 경우에는 얕은 데부터 깊은 데로 들어간다. 숨 들이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한번 물에 잠수하면 대체로 2분 동안 작업하지만, 컨디션 좋을 때는 더 오래 할 수 있다.

물질은 매일 하는 게 아니라 일주일 쉬고 일주일 물질하는 식으로 한다. 소라를 채취할 때는 9시쯤 바다에 나가서 2시에 나온다. 거의 5~6시간 작업하는데 육지로 나오고 다시 들어가는 것을 반복하는 게 아니라 물 안에서 잠수하고 나오기를 반복한다. 20년 전에

는 소라를 잡으면 두렁박이 꽉 차서 비우고 다시 들어가기도 했다는데 요새는 물건들이 많이 없어서 그 정도는 아니다. 작업하는 시간은 시기별로 다른데, 성게 작업 때는 서너 시간 정도 작업하고 자신이 원하면 한 시간만 작업하고 들어가도 된다.

할머니는 이런 점에서 볼 때 해녀만큼 좋은 직업도 드물다고 말한다. 가서 한 시간만 있다 오든, 늦잠을 자서 늦게 가든 걱정을 들을지언정 누가 뭐라 하는 사람도 없기 때문이다. 우리 고정관념에는 힘든 일이라는 편견이 남아있지만, 다른 걱정 없이 오로지 몸만 있으면 가능한 일이라 따로 돈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다. 밭일할 때 보면 비료값이니 뭐니 해서 나가는 돈이 많지 않은가. 할머니는 한 때 금채기 때 식당하기 전에 해녀의 집(식당)에서 일을 해 본 경험을 말하면서 바닷가에서 물질하는 것만 못했다고 회상했다. 밭에 가면 아침부터 밤까지 일해야 하는데, 해녀라는 직업의 자유로움이 좋다고 덧붙였다. 솔직히 말하자면 지금도 밭일하기 싫어서 식당을 하고 있다고 한다. 그런데 오히려 밭일보다 식당일이 더 힘든 것 같다고 농담 섞어 토로했다.

잡은 것은 어촌계에 수수료 0.3%, 대행인 수수료 0.3% 내고 나머지는 집으로 가져온다. 할머니처럼 식당일하면서 팔기도 하고, 아니면 직접 팔기도 하는 식이다. 수입이 좋아서 시작한 만큼 벌이가 나쁘지 않다. 예를 들어 소라 100kg이 45만 원 상당이다. 이렇게 물질로 돈을 벌면 경제력을 갖추게 되니까 남편이 목에 힘준다고 털툴거린다. “돈 벌어졌던 큰소리친다”라는 게 남편의 말이다. 하지만 정작 할머니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았다. 남편은 농사 일을 하는데 요새는 예전보다 농사가 더 힘들어서 그런 것 같다고 말씀하신다.

복순이 할머니의 바다

할머니도 그리 적은 나이는 아니지만 벌써 이 동네 마지막 해녀다. 할머니는 나이가 들면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아쉽다고 하신다. 이제 더 이상 해녀 할 사람이 없다. 20년 전 처음 물질을 했을 때와 비교하면 격세지감이다.

수가 줄었다지만 여전히 해녀일을 하시는 분들이 많다. 이런 와중에 문제로 꼽히는 게 직접 바다로 들어가는 해녀들이 혜택을 못 받고 있다는 것이다. 이유인즉 어머니가 해녀 하다가 돌아가시면 그 해녀증만 물려받아 어촌계에 가입만 해놓고 병원비를 무료로 받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다. 그런 사람들이 실제 해녀보다 훨씬 많다. 실제 해녀들이 100명이라고 하면 200명이 그런 사람일 정도이다. 이런 사람들 말고 정말 물에 들어가는 분들에게 도움이 절실하다. 만약에 MRI라도 3년에 한 번씩 하게 하면 훨씬 좋을 것이다.

해녀일을 하면서 가장 기억나는 일이 있다. 같은 탈의장을 쓰는 삼춘 한 분이 돌아가셨을 때 견져낸 사람이 복순 할머니였다. 할머니가 견저낼 때까지만 해도 돌아가시기 전이었는데, 심폐소생술과 같은 대처법을 몰라서 결국 돌아가시고 말았다. 그 추운 겨울에 119 도 헷갈려서 20분, 30분 지체되고 말았다고 한다. 눈앞에서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지 못한 게 가슴에 남았다. 만약에, 사람 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내가 만약 그런 일을 당하면 누가 나를 견져줄 것인가 하는 걱정도 되었다. 어른들도 무서워했었다. 그냥 조심하는 게 최고지만 조심한다고 되는 게 아니니까.

할머니에게 앞으로 어떤 일을 하고 싶냐고 물었더니 몸이 안 아플 때까지 물질을 하고 싶다고 밝혔다. 직업 중에는 가장 좋다고 생

각하신단다. 아까 말한 일처럼 위험한 일이 있지 않느냐고 여쭈었더니 “바당에만 가면 죽임사?”라는 대답이 돌아왔다. 마지막으로 할머니에게 물었다. 그 무엇보다도 기억에 남는 대답이었다.

“할머니한테 바다는 어떤 느낌이에요?”

“바다는, 어머니. 좋아, 가면 무섭지도 않고”



섬지코지 바닷가에서 바라본 성산일출봉

취재를 마치고

숨 쉬는 게 너무나 당연해서 그 중요성을 잊고 사는 것처럼 나는 해녀라는 독특한 문화를 거의 잊고 살았다. 어쩌면 나와는 멀리 떨어진 일이라고 생각했는지 모른다. 실제로 본 적도, 실제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본 적도 없던 나는 해녀를 그저 제주의 옛 문화 중 하나라고 치부했다. 그것이 현재진행형인 제주의 정체성인지도 모르면서 말이다.

그러다가 할머니가 해녀였다는 걸 알게 되었을 때 나는 깜짝 놀라고 말았다. 그리고 부끄러웠다. 이토록 해녀를 비롯한 제주의 문

화에 관심도, 지식도 없는 내가 과연 정말 내 고향 제주를 사랑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

한편으로는 지금이라도 이렇게 알 수 있게 되어 다행이다. 게다가 직접 해녀를 취재하면서 그들의 생생한 이야기를 듣는 것은 흔치 않은 기회였다. 현옥자 할머니가 이야기해 준 죽을 뻔한 경험은 누구나 당연히 여기는 ‘숨’ 하나에 목숨이 달려있는 해녀들의 치열함을 엿볼 수 있게 했다. 사전에 해녀에 대한 조사를 할 때 해녀는 무호흡으로 인간의 한계를 넘으며 물질을 한다는 구절을 읽었는데 바로 이 점이 강인하고 근면한 제주여성의 이미지를 만들었던 것 같다. 실제로 만난 해녀 분들도 자신이 주체성을 가지고 가정경제에 이바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무척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었다. 전통적인 여성이라고 하면 흔히 떠올리는 수동적인 이미지가 아니라 생활력 강하고 능동적인 모습이 진심으로 멋있게 느껴졌다.

무엇보다도 강복순 할머니를 취재할 때 느껴졌던 ‘해녀’ 자체에 대한 사랑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 자신이 해녀라는 사실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 그야말로 당당한 여성의 모습이었다. 덧붙여 바다를 ‘어머니’라고 칭하는 마음에서는 깊은 감동을 받았다. 어떤 이에게는 제주바다가 개발의 대상, 혹은 관광상품일 수도 있다. 그러나 직접 바다와 호흡하는 해녀들에게는 삶의 터전 그 이상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머리로만 환경 보호를 이해하는 나에게 정말 강렬한 충격이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해녀를 ‘여성 생태주의자(eco-feminist)’로 부르기도 한다. 새삼 해녀문화의 가치를 느낄 수 있었다.

이런 가치를 인정받았는지 국내외에서 제주해녀를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한 노력이 한창이다. 물론 세계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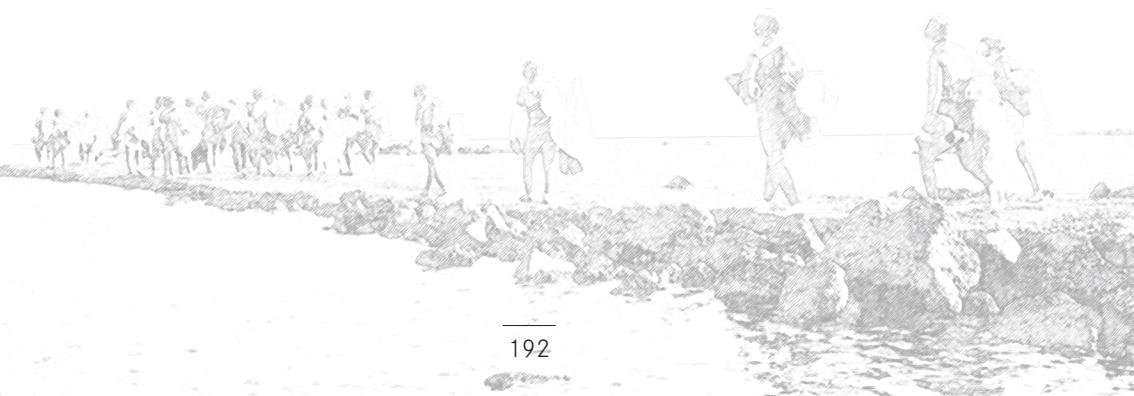
으로 이렇게 인정받는 것도 중요한 일이다. 그런데 복순 할머니의 취재 과정에서 나왔듯 지금 해녀들을 위해서 현실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해주는 일이 수반되지 않으면 그저 허울에 그치고 말 것이다. 진정한 제주의 랜드마크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아직 좀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 같다.

이번 취재는 해녀뿐만 아니라 제주의 역사와 문화에 한층 더 깊은 관심을 갖게 해주는 계기가 되었다. 아마 가장 큰 수확은 멀게만 느껴지던 해녀와 해녀문화가 실은 아주 가까이에서 우리와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이다. 깨달음을 얻었으니 이제 정말 제주에 대해 차근차근 알아가야겠다. 그것이 항상 고민하는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답을 찾는 과정이 되길 바란다.

바다를 사랑하는 新해녀, 김영순

표선고등학교 1학년 고은빈

- 구술자 : 김영순
- 나이 : 1963년생 (54세)
- 고향 : 서귀포시 삼달리
- 현거주지 : 서귀포시 표선면 표선리
- 연담자 : 고은빈
- 연담일시 및 장소 : 10월 16일,
금데기횟집



안녕하세요. 저는 ‘고등학생이 기록한 해녀이야기’ 채록작업을 하게 된 표선고 고은빈입니다. 저는 우리 학교가 있는 지역인 표선에서 인터뷰를 하게 되었는데, 표선은 바다를 마주한 지역이라 해녀 분들을 가끔씩 볼 수 있습니다. 아는 분을 통해 인터뷰를 할 수 있었습니다. 저와 인터뷰를 한 해녀 분은 바닷가에서 횟집을 운영하시는 54세 김영순 어머니입니다.

Q. 현재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A. 표선에서 금데기라는 횟집과 해녀일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Q. 병행하시면서 힘들지는 않으십니까?

A. 힘들진 않습니다. 저는 바다를 좋아하고, 바다는 언제나 저와 함께했던 존재이기 때문에 별 다른 어려움 없이 해내고 있습니다.

Q. 그렇다면 어떤 식으로 식당운영과 해녀일을 병행하고 있나요?

A. 아침에는 할머니들과 함께 해녀일을 하고, 오후가 되면 식당 일을 합니다.

Q. 항상 아침에 바다로 가시는 건가요?

A. 항상은 아니고 한달에 10~15번 정도 만납니다. 대략 아침 8시부터 12시까지 하는 편입니다. 4~5시간 정도 한다고 보면 됩니다.

Q. 다른 해녀 분들 중에서도 해녀일도 하면서 다른 일을 병행하는 분이 계시나요?

A. 대부분이 그런 방식입니다. 저를 제외하고는 거의 60~70대가

대부분인데 그분들은 해녀일도 하고, 밭도 일구고, 과수원일도 합니다.

Q. 해녀일을 현재 몇 년 동안 하셨나요?

A. 사실 1년 전까지는 해녀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1년차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Q. 그렇다면 지금 처음 시작하시는 건가요?

A. 그런 건 아니고, 어렸을 때 했다가 그만뒀었는데 현재 다시 시작하게 됐습니다.

Q. 몇 살 때부터 해녀일을 시작하게 됐나요?

A. 8~9살 때부터 해녀일을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가 해녀였는데 그 때는 엄마가 자식들에게 가르쳐줘서 여자아이들 대부분이 해녀일을 했고, 저도 어머니한테서 배웠습니다.

Q. 어머니와 함께 일을 하면서 특별히 생각나는 일화가 있나요?

A. 특별한 일은 없는데 집 가까이에 있던 바다에서 물질을 자주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께서 상군이셨습니다.

Q. 상군이 무슨뜻인가요?

A. 아, 상군이란 해녀들 중에서 물질을 가장 잘 하는 사람입니다. 어머니가 그 마을 사람들 중에서 가장 해산물을 많이 잡았었습니다. 그 피를 이어받은 저도 상군을 목표로 현재 열심히 물질을 하고 있습니다.

Q. 상군이면 혹시 따로 해택이 있나요?

A. 해택은 없습니다.

Q. 어머니를 제외하고 혹시 친인척 중에 해녀가 있나요?

A. 아, 없습니다. 어머니와 저만 해녀였습니다.

Q. 그런데 어렸을 때 했다가 그만뒀던 이유가 무엇인가요?

A. 성인이 된 후에도 물질을 했었는데, 결혼을 한 후로 살기 바빠져 자연스럽게 물질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가끔씩 바다 생각도 나고 물질했던 것이 그리운 마음에 이렇게 다시 시작하게 됐습니다.

Q. 다시 해녀일을 시작한 이유가 있나요?

A. 바다에서 물질했을 때가 그립기도 했고, 이 지역에서는 젊은 해녀가 없어서 저라도 힘을 보태고 싶어서 시작한 것이 가장 큰 이유 같네요.

Q. 그만뒀다가 다시 시작하시는 건데 힘든 점은 없으신가요?

A. 사실 체력적으로 힘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나이도 나이인지라 그래도 저보다 연세도 많으신 분들도 열심히 하는데 저도 그 모습들을 본받아 열심히 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Q. 주로 어떤 해산물을 잡으며 수입이 어떻게 되나요?

A. 아직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수입이 많은 편은 아닙니다. 다른 오래하신 분들은 수입이 꽤 된다고 들었습니다. 할머니들은 해

녀일을 하면서 벼는 돈으로 자식들 시집, 장가 다 보내고 지금까지 해녀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오래 하신 분들은 전복도 자주 잡고, 저는 주로 해삼이나 미역, 소라 위주로 잡고 있습니다. 여름에는 잘 안 잡히고 11월달에는 소라, 12월달에는 해삼이 많이 잡힙니다. 실적도 올려야 돼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Q. 해녀일 하시면서 기뻤거나 뿌듯했던 경험 있으신가요?

A. 항상 즐거운 마음으로 물질을 하는데 가장 기뻤던 날이 처음으로 전복을 캤을 때입니다. 그때 어찌나 기분이 좋던지 물질을 하면 할수록 실력이 점점 느는 게 느껴집니다.

Q. 반대로 슬펐거나 무서웠던 경험은 무엇인가요?

A. 무서웠던 경험이 한 번 있었습니다. 바람이 거센 날에 물질을 하러 나갔는데 바다에 들어가다가 엄청 큰 파도가 저를 덮쳤습니다. 그때 바다가 무서웠었습니다. 하지만 금방 극복하고 다시 즐겁게 물질을 한답니다.



불턱에 걸려있는
해녀도구들

Q. 물질을 하다가 돌아가시거나 실종되는 해녀 분들이 많이 있다 고 들었는데요. 혹시 주위에도 그런 경험이 있나요?

A. 몇 년 전에 한 해녀 분이 물질하시다가 사라져서 동네 사람들이 다 찾고 다녔었는데 후에 일본에서 그 시체가 발견돼서 동네가 떠들썩했었습니다. 저도 함께 찾으러 다녔었는데 그때 정말 많이 놀랐던 기억이 있네요.

Q. 상어를 무서워하는 해녀가 많다고 들었는데 혹시 상어를 본 적 있나요?

A. 상어는 본 적이 없고 큰 말미잘을 본적이 있습니다. 그때 얼른 물질을 해서 바깥으로 나왔었습니다.

Q. 신기한 생물들을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기억에 남는 생물이 있나요?

A. 한번은 돌고래를 본적이 있습니다. 돌고래가 바다 위쪽에서 포물선을 그리며 헤엄을 치고 있었는데 할머니들이 ‘배알로, 배알로’ 하니 밑으로 내려가서 놀랐던 일이 있습니다. 정말 신기했어요. 그리고 항상 아름다운 생물들을 많이 본답니다. 바다 밑엔 정말 아름다운 생물들이 많습니다.

Q. 몇 명 정도 함께 물질을 하나요?

A. 주변 지역도 포함해서 해녀는 40명 정도 있는데, 그중에서 물질을 하는 사람은 24명 정도 됩니다.

Q. 해녀 분들끼리 물질을 어떤 방식으로 하시는 건가요?

A. 모이면 언제 어떤 장소에서 모인다고 정하고 후에 그 장소로 가서 물질을 합니다.

Q. 물질을 제외하고 그 시간에 하는 일이 있나요?

A. 그 장소에 있는 불턱에서 모여 앉아 이야기를 나누곤 합니다. 그 때 할머니들이 하시는 이야기에는 할머니들의 인생이 담겨있기도 하고, 삶에 대한 교훈이 담겨있기도 합니다. 저는 그런 할머니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을 가장 좋아합니다.

Q. 특별히 기억나는 이야기가 있나요?

A. 한 해녀 분이 해주셨던 이야기가 기억이 나는데요. 그 분이 출가해녀였는데 그곳에서 사기를 당해 많이 힘들었는데 다시 제주도로 내려와 물질을 열심히 해서 자식들을 키웠다는 이야기가 많이 감동적이고 저도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Q. 물품 사용방법을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A. 허리에 매는 납이 있는데 이 도구가 물질을 도와줍니다. 몸무게에 비례해서 kg을 단위로 허리에 차면 바닷속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납을 차지 않으면 몸이 가라앉지 않습니다. 그리고 테왁망사리이란 것도 있는데 테왁은 물속에서 해산물을 채집하면 물위로 올라와 그 해산물들을 보관도 하고, 물 밖으로 나올 때 위치를 알려주는 지표가 되기도 합니다.

Q. 해녀의 장점과 단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A. 장점은 일단 생계유지가 된다는 것 같습니다. 저는 바다를 좋아하기 때문에 돈도 벌고 바닷속도 보고 일석이조지요. 할머니들과 함께하며 정도 나누고 삶에 대한 교훈도 얻고 장점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특히 교훈은 어디에서 돈 주고도 못 듣는 그런 얘기들이기

때문에 아주 소중한 자산이 됩니다. 단점을 말하자면 위험합니다. 바닷속은 항상 경계를 낮추면 안 되는 곳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 언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요. 그리고 몸이 고된 것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역시 단점보다는 장점이 더 많은 것 같네요.



벽에 걸려있는 테왁망사리

Q. 만약 자식들이 해녀일을 하겠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A. 저는 찬성입니다. 저희 아이들도 바다를 많이 좋아하기 때문에 걱정될 게 없는 것 같네요. 특히 저희 막내딸이 수영도 잘하고 바다도 좋아합니다. 여름이 돼서 날씨가 더우면 집 가까이에 있는 바다로 가서 수영을 하고 오기도 합니다. 저는 대찬성입니다.

Q. 현재 해녀가 많이 사라지고 있는데요. 이유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A. 아무래도 나이가 되신 분들은 점점 은퇴하는데 젊은 사람들이 해녀를 하지 않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채워지지가 않아서 점점 해녀일을 하는 사람은 적어지고 연령층은 높아지고 있습니다.

Q. 그렇다면 젊은 사람들이 해녀를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라 생각합니까?

A. 요즘 젊은 친구들은 몸을 쓰는 직업을 별로 원하지 않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저 앉아서 머리 쓰는 직업만 선호하다 보니까 힘들고 고된 일들을 기피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직업들도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할 텐데요.

Q. 해녀일을 하면서 가치관의 변화나 새로 생긴 목표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A. 계속 말했듯이 저는 불턱에서 듣는 할머니들의 이야기를 좋아합니다. 물론 바다도 좋아하고요. 할머니들에게서 들려주신 이야기들이나 해녀 이야기로 책을 내고 싶습니다.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꼭 제 이름으로 된, 좋아하는 것들을 담은 책을 낼 것입니다.

Q. 그럼 마지막으로 해녀, 해남을 꿈꾸는 젊은 친구들에게 한마디 부탁합니다.

A. 해녀는 옛 시절 가족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 여성들이 선택한 직업으로 막중한 책임감과 위험성이 있습니다. 지금 시대에는 많은 직업들과 많은 생계유지 수단들이 있지만 해녀와 같은 직업들도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입니다. 돈벌이 수단보다는 상징성으로 남아 있는 직업이지만 그 직업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열심히 해녀와 해남을 꿈꿨으면 좋겠습니다.

첨언; 이 활동을 통해 해녀들의 책임과 정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많은 것을 배웠던 뜻깊은 시간이었고 잊을 수 없을 것입니다. 다음에도 이와 같은 활동이 있다면 다시 참여해 보고 싶고, 이러한 활동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숨비소리, 그 고귀한 소리의 메아리

표선고등학교 1학년 박재용

- 주술자 : 현경우
- 나이 : 1960년생(59세)
- 고향 : 서귀포시 표선면 표선리
- 현거주지 : 서귀포시 표선면 표선리
- 연락처 : 박재용
- 연단일시 및 장소 : 10월 22일,
표선리 해녀의 자



우리나라의 제주해녀문화는 2015년 국가중요어업유산 제1호로 선정되었으며, 일본해녀 아마와 유네스코 문화유산 등재를 위해 경쟁하고 있다. 일본의 아마와 우리나라의 제주해녀는 몇 가지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일본의 해녀들은 자신들의 생명줄을 가지고 물에 들어가는 방법을 주로 사용하지만 제주해녀는 그렇지 않다. 제주해녀는 물질할 때 산소통을 들고 들어가지 않고 자연보전, 자원보전 등을 고려하며 작업한다.

또한 일본의 아마는 봄, 여름 등에만 작업을 하고 하루 중에도 제한적인 시간 동안만 작업을 하지만, 제주해녀는 그렇지 않다. 마지막으로 제주의 해녀들은 혼자 물에 들어가지만 일본의 아마들은 두 사람이 한 조를 이루어 활동한다는 점에서 차이를 알 수 있다. 세계에서 유일하며 독특한 문화를 가진 제주해녀는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귀중한 문화유산이다. 이런 귀중한 제주도의 해녀와 그들이 일궈온 어업생활에 대해 알아보고, 직접 해녀 한 분을 만나 듣고 체험한 내용들을 소개하고자 한다.

	제주해녀	일본아마
잠수 장비 사용	테왁망사리와 망사리를 고정하는 돌추	산소통, 생명줄
작업 시간	물때에 따라 (조수 간만의 차이가 적은 조금부터 여섯틀까지, 한 달에 12일 정도, 마을마다 차이가 있음) 6~8월 금채기간에는 물질을 못함 (수산업법에 기재되어 있음)	봄, 여름 하루 중 일정 시간
작업 인원	단독	2인 1조

제주해녀와 아마의 비교

제주도의 어업과 제주해녀의 역사

제주도는 해안선의 길이가 253km, 깊이가 100m 안팎의 바다 밑에 대륙붕이 넓게 펴져 있다. 바닷물의 온도가 바다 생물들이 살기에 가장 적합하고 따뜻한 대마 난류가 흘러드는 곳이라서 어족이 풍부한 곳이다. 오랜 옛날부터 제주도 일대에서는 해녀라고 부르는 잠녀와 포작배가 중심이 되어 바닷말과 조개류를 따는 잠수업과 테우, 즉 떼배를 타고 그물이나 낚시로 고기를 잡는 두 가지 어업이 발달했다.

『고려사』 문종 7년인 계사년 「2월」 조에 “탐라국 왕자 수운나(殊雲那)가 아들 배옹교위(陪戎校尉) 고물(古物) 등을 보내어 우각(牛角)·우황(牛黃)·우피(牛皮)·나우(螺肉)·비자(榧子)·해조(海藻)·구갑(龜甲) 등 물품을 바쳤다. 왕이 탐라국 왕자에게 중호장군(中虎將軍) 벼슬을 임명하고 공복(公服)·은대(銀臺)·비단·약품 등을 주었다”라는 기록이 있다.

또한 『고려사』 1079년 「11월」 조에 “임신일에 탐라의 구당사(句當使) 윤응균(尹應均)이 별처럼 번쩍거리는 큰 진주 두 개를 바쳤다. 당시 사람들이 이것을 야명주(夜明珠)라고 하였다”는 글이 실려있다. 몽골에서도 사람을 보내 제주에서 진주를 구했다는 기록이 있는 것으로 보아 그 당시에도 해녀들이 바다에 나가 ‘나잠업’으로 진주를 채취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제주 앞바다에는 전복·오징어·갈치·옥도미·고등어 같은 해산물을 잡는 어부들도 많았지만 조개류와 미역을 따내는 잠녀들도 많았다.

조선 중기만 해도 잠녀들과 드물게 남자들까지 알몸으로 바다에 들어가서 낫으로 전복과 미역 같은 해산물을 채취했다. 그런데 그 당시의 풍속이 그러해서 그런지 남자나 여자나 부끄럽게 여기

지 않았고, 그 해산물로 곡식과 옷을 장만해 생활을 했다고 한다. 하지만 잠녀들이나 어부들의 삶은 신산하기만 했다. 부임한 관리가 탐관오리이면 내야 할 공물의 양을 지나치게 많이 책정했다. 그때는 한해 동안 쉴 틈도 없이 물질을 해도 그 양을 채우는 것이 쉽지 않았다고 한다.

신정일의 『새로 쓰는 택리지』 중 위의 내용과 같이 우리나라의 해녀는 힘든 환경에도 불과하고 일본해녀 아마와는 다르게 겨울에도 활동을 했다. 즉 4계절 내내 물질활동을 함으로써 뛰어난 물질 기술로 가족들의 생계비와 자식들의 교육비 등을 벌어왔다. 이런 점으로 질긴 생명력과 모성애가 있음을 알 수 있으며, 해녀들의 강인한 정신력과 책임감을 느낄 수 있다.

해녀 아주머니와의 만남

해녀들에 대해 더 깊이있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분들을 직접 만나 얘기도 들어보고 작업장을 직접 체험하고 싶었다. 다행히 우리 학교가 표선리에 위치하고 있고, 표선리에는 아직도 활동중인 해녀 분들이 많다는 사실에 기회를 잡으려 노력했다. 어렵게 해녀 한 분을 지인의 소개로 섭외했는데, 내 생각과는 달리 50대의 젊은 분이셨다. 오히려 젊은 분의 얘기를 들어보는 것도 ‘해녀’라는 유산의 명맥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를 알 수 있는 기회라 생각해 많은 질문거리들을 들고 만났다.

표선면에 거주 중이고 현재 활동 중인 해녀 아주머니 현경옥 씨를 만나 해녀에 대한 여러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동안 몰랐던 사실들과 해녀에 대해 새롭게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어 소중

한 시간이 되었다. 그리고 친절하게도 해녀들의 작업장까지 안내를 해 주셔서 작업도구와 공간을 생생하게 경험할 수 있었다. 그날 새로운 사실을 많이 알았다.

그 중 첫 번째는 지금껏 나는 해녀들이 생계유지를 위한 직업으로써 활동하는 분들밖에는 없다고 생각했었다. 대부분의 해녀들은 생계유지를 위하여 선택했을 것이고, 매우 힘든 환경에서도 생계를 위하여 물에 들어가 작업을 하고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내가 만난 해녀 아주머니는 뒤늦게 해녀일을 시작한 분인데 자식들을 다 키우신 후 일을 안 하고 가만히 있을 수 없어 운동 삼아 시작하였으며 어릴 적 해녀였던 할머니를 따라 다니며 물질을 배웠기 때문에 늦은 나이에도 쉽게 시작할 수 있었다고 한다.

아주머니께 내가 가장 궁금했던 부분에 대해 여쭈어 보았다. 해녀 아주머니들은 옛날부터 물질로 생계를 책임지고 자식들의 교육을 시키셨는데, 해녀활동을 통한 수입이 어느 정도인지 궁금하였다. 실례가 될 수도 있는 질문임에도 불구하고 흔쾌히 그 질문에 대답하여 주셨다. 물질작업과 미역작업을 3개월 정도 하면 약 500~600만 원 정도를 벌 수 있다고 한다. 그 정도의 수입이면 넉넉하지는 않더라도 생계를 유지하는 정도라고 말씀하셨고, 얻는 수입보다도 보람이 많은 일이라 하셨다.

최근 관광객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면서, 특히 해안지역이 별로 없는 대륙의 나라 중국에서 찾아온 관광객들이 신선한 해산물을 찾아 생각 이상으로 많이 해녀들을 상대한다고 했다. 중국 관광객들이 무작정으로 제주도를 찾아와 문제점도 많지만 해녀들 입장에서는 높은 수입원이 된다는 게 다행이라 생각했다. 좀 더 체계적으로 해녀들의 수입을 늘리기 위해서 방금 물질로 잡은 해산물

을 바로 판매하여 식사할 수 있도록 물질하는 장소 바로 옆에 작은 포장마차 등을 설치하여 장사를 한다면 더 많은 수입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잠수복과 통눈(왕눈)

해녀 아주머니를 따라 들어간 작업실은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현대화되어 있었다. 그곳에는 망사리(그물로 주머니처럼 짜서 채취한 해산물을 담는 것으로 입구가 좁고 그물 테두리에는 뒤옹박이 달려 있어 그물이 가라앉지 않도록 되어 있다), 테왁(또는 박새기라고도 하며 망사리에 달린 뒤옹박을 말한다), 벗창(채취도구: 약 30cm 가량의 단단한 무쇠칼), 호미(제주에서는 낫을 호미라고 한다), 까꾸리(호미류), 갈쿠리, 소살(1m 정도의 작살), 물수건(해녀들의 머리가 흘어지지 않도록 동여매는 수건), 눈(수경으로 통눈과 쌍눈 2가지 종류가 있는데, 지금은 왕눈만 사용한다), 현대화된 잠수복(고무옷) 등이 있었다.

이전에는 불턱(현재는 불을 피우지는 않지만, 옷을 갈아입고 물질 도구를 보관하는 해녀의 집을 불턱이라고 한다)이라고 하는 장소에 둘러앉아 물질을 한

후 차가워진 몸을 다시 따뜻하게 하기 위하여 불을 쬐고 옷을 갈아입으셨고, 겨울에는 들어가기 전에도 불을 쬐고 들어갔다고 한다. 지금은 해녀탈의실 등 편의시설이 많이 좋아져서 보일러가 되는 건물 안에서 씻기도 하고 몸을 녹이기도 한다고 하셨다. 그리고 잠수복이 계절별로 나와 여름에는 얇은 잠수복, 겨울에는 두꺼운 잠수복을 입어 체온을 조절할 수 있지만 옛날에는 잠수복이 따로 없었고 1970년대 이전까진 하얀 무명적삼과 까만 물소중이만 입고 바닷속으로 뛰어 들었다고 한다.

얇은 옷을 입고 추운 겨울에 바다에서 물질을 하셨던 해녀 아주머니들을 생각해 보니 다시 한번 해녀 아주머니들의 정신력과 인내력이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제주여성의 강인한 정신은 바로 여기서 나온 것이라는 생각이 절로 들었다.



해녀의 집

아주머니께 어떠한 계기로 해녀라는 직업을 가지게 되셨는지 여쭈어보니, 우선 자연 안에서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하셨고, 또 물질을 할 때 바닷속에서 욕심만 부리지 않는다면 자신의 몸이 허락해 줄 때까지 일을 할 수 있어서 해녀라는 직업을 선택하게 되었다고 하셨다. 요즘은 60세 정도가 넘어서면 은퇴해야 하는 직업이 많다. 그러한 면에서 해녀는 정년이 없는 평생 직업으로 보장된다며 큰 웃음을 지으시는데 어린 나로서는 그래도 건강이 걱정되는 것은 숨길 수 없었다.

해녀 아주머니께 보통 몇 살 때부터 해녀일을 시작하냐고 여쭈어 보았더니 어머니 혹은 할머니를 따라다니며 자연스럽게 물에 들어가게 되고, 그렇게 어린 시절부터 해녀로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하셨다. 그런데 요즘은 젊은 사람들이 물질하는 것을 어려워하고 부끄러워하는 모습을 종종 볼 수 있다며 당신들의 세대에서 해녀라는 유산이 사라질까 봐 두렵다는 말씀도 해 주셨다.

해녀 아주머니께 해녀라는 직업의 힘든 점이 있다면 어떠한 것 이냐고 여쭈어 보았다. 처음에는 납추(연철) 무게를 맞추는 일이 많이 힘들었다고 하셨다. 추가 너무 가벼우면 몸이 자꾸 떠오르고 너무 무거우면 움직이기가 힘들어 적절한 무게를 찾아야 한다고 하셨다. 체중에 따라 잠수복과 추의 무게를 맞쳐줘야 하므로 추의 무게는 해녀마다 다 다르다고 하였다. 또 계절에 따라 잠수복의 두께가 다르니 추의 무게도 계절에 따라 달라진다고 한다.

지금은 바다에 별다른 안전장비 없이 들어가 목숨을 걸고 활동을 하므로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특별히 힘든 점은 없다고 하셨다. 나도 재미있는 것을 좋아하고 위험하고 긴장감 있는 활동들을 좋아하는 편이지만 그러한 것들은 안전장비가 대부분 있고 목숨을 걸

고 하지는 않는다. 목숨을 담보로 하는 일은 보수가 아무리 좋아도 역시 힘들 것 같은데 어떻게 이 일들을 즐겁게 하시고 계신지, 아니면 아주머니만의 긍정적인 성격에서 나오는 건지 궁금했다. 그러자 아주머니는 대부분의 해녀들이 즐겁게 자부심을 느끼고 있다고 말씀해주셨다. 특히 제주해녀가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될 조짐이 보이고 있다고 하니 그 중요한 문화유산의 한사람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 위험하다는 생각은 솔직히 하지 않게 된다고 말씀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시며 눈이 반짝이는 아주머니를 보니 그 동안 편하게 일하고 고소득이 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생각하며 진로를 고민했던 내 자신이 한없이 부끄러워졌다.



잠수용 추를 장착하는 법을 알려주시는 모습

항상 일정한 장소에서 물질을 하는지도 궁금해 여쭤보았다. 그랬더니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같은 장소에서 주로 물질작업을 하신다고 하셨다. 일정한 장소에서 물질 작업을 오랫동안 하다 보면 바닷속을 훤히 알게 되어 어디에 해산물이 많은지 눈을 감고도 찾

을 수 있을 정도가 된다는 것이다. 머릿속에 지도가 들어있는 것처럼 말이다. 이 말을 듣고 정말 신기하다고 느꼈다. 새로운 장소로 이사를 가면 처음에는 길이 낯설고 집을 찾기 어렵지만 계속 그 길을 오가다 보면 그 길이 익숙해진다. 그것처럼 해녀 아주머니들은 바닷속을 자주 오가며 익숙해진 것 같다.

해녀 아주머니께 해녀활동을 하면서 문제점이 무엇이냐고 여쭈어 보았다. 그랬더니 예전보다 훨씬 바다오염이 심각해지는 걸 느끼실 수 있단다. 옛날에는 조금만 내려가도 여러 가지 해산물들이 많았는데 인간의 무분별한 개발과 환경오염이 해녀활동에 아주 큰 문제라고 하셨다. 공장에서 나오는 폐수든 쓰레기든 결국 그것들은 최종적으로 바다에 흘러온다. 그러니 바닷속의 생물들이 많이 죽고 개체수가 감소할 수밖에 없는 것 같다. 또한 스킨스쿠버의 활동도 표선면에서는 금지되어 있다고 한다.

관광객의 유치에 좋은 활동이 아니냐고 여쭈어 보았더니, 관광객은 잡지 않아야 하는 개체를 구분할 수 없으므로 자원보존에 심각한 피해를 보게 된다고 하셨다. 환경오염 문제가 심각한 것은 전부터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직접적으로 피해를 받고 계신 해녀 아주머니를 만나 얘기를 나누어 보니 해녀를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시키기 위해서는 해녀에 대한 체계적인 홍보도 중요하지만 그들의 활동이 계속 지속되고 세계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환경정비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하게 느낀 계기가 되었다. 자신의 순간적인 즐거움과 작은 이득을 위해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본다는 사실을 환경오염에 기여하는 사람들에게 알려 주고 싶었다.

내가 만난 해녀 아주머니는 표선면 불턱의 막내로서 올해 57세이다. 바로 위의 언니는 62세이고 나머지 해녀는 70대 이상이시라

고 하셨다. 현재는 너무 힘든 작업으로 인해 더 이상 후배가 생기지 않는다고 하셨다. 한림읍에 ‘한수풀해녀학교’라는 이름의 해녀학교 가 있어서 그곳에서 해녀로 활동하는 법을 가르쳐 준다고 하지만 아직 활성화되지는 않았다고 한다. 해녀학교를 졸업했다고 해서 해녀로서 활동을 문제없이 해낼 수는 없으며, 실제로 바다에 들어가 많은 경험을 한 후 해녀로 활동할 수 있다고 한다.

비싼 자연산 해산물을 지금보다 조금 편하게 채취할 수 있다면 많은 수입이 생길 것이다. 또한 해녀들의 활동을 관광 자원화하여 관광객들이 직접 물질하는 해녀들을 보고 그 자리에서 신선한 해산물을 맛보는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그 수익금의 일부를 해녀에게 생계보조금으로 지원할 수도 있다. 그리고 우리와 같은 청소년 세대들에게 해녀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고, 그들이 해녀를 아름답게 보존해야 할 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를 알아 가게 하는 교육 프로그램도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내가 해녀 아주머니를 직접 만나 얘기도 해보고 작업장을 견학 하며 그들의 실생활을 이해할 수 있었던 것처럼 곁으로만 보면서 막연하게 해녀를 이해하는 활동은 이젠 그만해야 할 것이다. 그들의 생활 속에서 이해를 하고, 그들이 보다 자유롭게 활동하면서 자긍심을 가질 수 있게 정책적인 지원이 지속된다면 직업으로서의 해녀도 충분히 가치를 평가받을 수 있고, 그렇게 된다면 해녀의 수가 조금이나마 늘어 후대에도 중요한 문화유산으로 남겨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제주해녀는 국가중요어업유산 1호로 앞으로 오랜 시간 동안 유지되고 발전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하여 제주도 곳곳에서 그들의 ‘숨비소리’가 아름답게 메아리쳐질 그날을 즐겁게 기대해 본다.

<참고문헌>

새로 쓰는 택리지 - 제주도, 신정일, 다음생각(2012)

제주해녀, 좌혜경, 대원사(2015)

바다에서 삶을 캐는 해녀, 강영수, 정은출판(2016)



